

RCDA 조사연구 2024-6

# 2024 문화로사회연대 지역거점센터 운영성과분석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 2024 문화로사회연대 지역거점센터 운영성과분석 연구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the Local  
Service Centers in the ‘Culture-based Social  
Prescribing Project 2024’



## 제 출 문

---

(재)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24 문화로사회연대 지역거점센터  
운영성과분석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신지영

---



## 참여연구진

---

김세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책임연구  
김현우 충북대학교 교수 공동연구  
백경현 비온드리서치 대표 공동연구  
양경학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공동연구  
양종민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조은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수료 연구보조

---



## 1.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2024년 실시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9개 지역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된 사업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업 성과 분석을 실시함
- 9개 지역거점센터 운영 실태와 사업 전체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태 평가 지표와 사업 성과 지표를 개발함. 운영 실태는 논리모형에 기반, 준비과정과 운영과정, 산출물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사업 성과는 핵심성과지표(KPI)를 중심으로 지표체계를 개발
- 사업 운영 평가와 성과 분석에 기반하여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의 향후 개선 방안을 제안함.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기존의 다른 문화향유 사업들과 달리 복지 영역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 문제 대응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2024년 기준 2년차에 접어드는 사업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검토하기에 앞서 사업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중요하므로 향후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 2. 연구 방법

### 1) 설문조사

- 대상: 사업 참여자, 지역거점센터 운영자, 협력네트워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 조사 방법: 오프라인 조사
- 조사 내용: 사업참여 만족도, 사업 및 외로움에 대한 인식 제고 정도 조사
- 거점센터 및 협력기관: 거점센터/협력기관 특성, 지역 여건, 협력관계 구축, 지원사업 만족도 재 참여 의사, 지원사업 측면별 난이도, 사업 성과 등
- 참여자: 사회적 활동, 외로움 변화 정도, 사회적 관계성 변화 정도,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 2) 실태 조사

- 대상: 9개 지역거점센터
- 방식: 실태조사단 운영

- 9개 지역거점센터의 사업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할 실태조사단 구성 운영
- 실태조사단을 중심으로 월 보고서 검토 및 현장 조사 수행
- 월 보고서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 조사 내용

- 참여자, 참여단체 정보
- 행사 및 프로그램(대상 발굴 관련 행사,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 참여자 사후관리 사항 기타 사업 관련 행사)
- 협력네트워크 현황
- 거점센터별 지역, 환경, 프로그램 및 참여자 특성에 따른 세부 분석 및 교차분석을 통한 변화 및 특이사항 도출

3)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대상: 사업 참여자, 사업 관계자
- 사업 참여자: 사업 주요 대상 그룹 유형 고려하여 조사 그룹 구성
- 사업 관계자: 지역 거점센터 운영 실무자, 협력 네트워크 운영자
- 방식: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 내용: 지역거점센터 운영성과 및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 효과 등 사업성과 관련 내용

4) 사회연결망 분석

-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사람들이 사회적 행위를 그들이 맺은 관계로 구성된 연결망의 특성으로 설명하는 방법
-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개인/집단들의 미시적인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관계의 패턴이 어떻게 그들의 태도 및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들간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체 연결망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이러한 연결망이 개인 또는 집단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주는지 살펴볼 수 있음
- 대상: 사업 참여자, 사업 참여 기관/단체(협력네트워크)
- 방식: 별도의 사회연결망 분석 설문지를 작성, 대상자를 표본 추출하여 실시
- 내용: 사업을 통한 연결망 형성 정도

### 3. 연구 결과

#### 1) 종합 운영 평가

- 문화로사회연대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확인됨
  - 사업참여 단체들에게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다만, 이런 높은 이해와는 별개로 사업을 진행해 가는 방법론 및 방법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됨.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론 및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전문인력 투입의 센터 간 편차가 큼.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전문인력 투입에 있어 예산 대비 센터별 인력 투입 규모에 편차가 크고, 인력 운용에 있어서 센터별 자율성의 폭이 매우 넓게 작용함
  - 협력네트워크가 다양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나 정례적 모임이나 회의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아 제도화 차원의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인문상담의 경우, 거점센터들이 연계한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짐. 각 센터들은 일반상담과 다른 ‘인문상담’으로서의 차이를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기울여진 것으로 확인되지만, 대부분 상담 관련 기관과의 협력 아래 일반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됨
  - 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맞춤형 프로그램 기준이 부재하고 운영의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에서 진행된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노력은 많이 기울였지만, 실제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줌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사업 참여단체들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 대응 사업을 수행해야 할 인식을 제고한 것으로 확인됨. 즉, 그동안 문화예술이나 보건복지 영역 등 각자의 영역에서 관련 활동을 해온 기관들이 이 사업을 통하여 협력하는 경험을 가지면서,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과 같은 문제에 대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참여기관들로 하여금 이전에 교류하지 않았던 기관,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지역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계기를 제공함

## 2) 사업 성과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을 성과지표에 따라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문화안전망: 문화안전망 구축은 사업에 참여한 단체간 새로운 관계 형성 정도, 외로움 관련 협력 관계 구축 정도, 단체간 연결망 지수, 협력 단체 자체 평가 등을 통해 분석
  - 분석 결과,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지역내 단체들이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해 새롭게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 내 문화안전망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됨
-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해소: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 해소는 사회적 고립감/외로움 해소 정도(참여자 설문조사, 프로그램 참여 전후 설문조사), 행복감 증진 정도(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 분석 결과, 사회적 관계 개선보다는 외로움의 직접적인 감소를 통해 문화로사회연대 프로그램의 효과가 확인됨. 사회적 관계의 결여 지수는 타당성이 낮으며, 사전-사후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사회적 관계: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 확장 정도는 새로운 관계형성 정도, 연결망 변화 정도, 관계에 대한 관심 변화 정도, 함께 하는 활동 변화 정도 등을 통해 분석함
  - 종합적으로 볼 때,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이 네 영역 모두에서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유의미하게 변화시켰음을 보여줌
- 사회적 인식 제고: 사회적 인식 제고는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에 직접 참여한 기관, 단체, 개인들에게 문화활동을 통한 외로움 대응 필요성을 얼마나 고취시켰는지를 중심으로 측정. 분석 결과, 이 사업은 참여자, 참여기관 모두에게 외로움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킨 것으로 나타남

## 4. 연구의 시사점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 문제에 대해 문화영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성과 분석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나 참여기관에게 유의미한 결과들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됨
- 향후, 사업 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특성화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른 한편으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문화예술과 복지 영역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문화정책의 새로운 영역을 개발한다는 차원의 의미를 가짐
- 사업 시행과정에서 지역거점센터별로 협력의 틀을 갖추는 노력이 기울여졌으나 향후 제도적인 차원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이 나타남

## 5. 향후 연구 방향

-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전문역량의 규명, 그러한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인 바 이와 관련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요약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8
1. 연구 내용 .....	8
2. 연구 방법 .....	10

### 제2장 사회적 고립과 문화정책

제1절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 및 사업 .....	15
1.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 .....	15
2. 사회적 고립 대응 체계 .....	20
제2절 문화 분야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 및 사업 .....	26
1. 사회적 고립 관련 문화 정책 .....	26
2. 사회적 고립 관련 문화 분야 사업 .....	27
제3절 분석 및 시사점 .....	31
1. 분석 .....	31
2. 시사점 .....	33

### 제3장 2024 문화로사회연대 사업과 성과지표

제1절 2024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개요 .....	39
1. 사업 개요 .....	39
2. 운영 현황 .....	45

## Ⅰ 목차 Ⅰ

제2절 성과지표 사례 .....	48
1. 성과지표 .....	48
2. 성과지표 사례 .....	51
제3절 2024 문화로사회연대사업 성과지표 체계 .....	61
1. 고려 사항 .....	61
2. 2024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성과지표 체계 .....	62
 <b>제4장 2024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현황 및 운영 실태</b>	
제1절 조사 개요 .....	75
1. 조사의 구성 .....	75
2. 조사 설계 .....	75
제2절 운영 실태 .....	78
1.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운영 실태(협력기관) .....	78
2.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실태(참여자) .....	85
제3절 거점별 운영 현황 .....	92
1. 광역거점형 지역거점센터 .....	92
2. 거점확산형(기초형) 지역거점센터 .....	105
제4절 분석 .....	127
1. 영역별 분석 .....	127
2. 연결망 분석 .....	132
 <b>제5장 2024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성과 분석</b>	
제1절 기본 방향 .....	145
1. 성과의 차원 구분 .....	145
2. 사업목적 기반 성과 분석 .....	145
3. 거점센터 성과는 운영 평가 중심으로 .....	146

제2절 성과 분석 .....	147
1. 종합 운영 평가 .....	147
2. 성과 분석 .....	157
제3절 정책 제언 .....	171
1. 정책 방향 .....	171
2. 사업 개선 방향 .....	173

## 참고문헌

## 부록 (별책)

- 부록 1. 설문지
- 부록 2. 기초 통계표
- 부록 3. 사전-사후 자료 분석

## Ⅰ 표 목차 Ⅰ

〈표 2-1〉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정책목표 .....	16
〈표 2-2〉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 방향성 .....	17
〈표 2-3〉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추진 방향 .....	18
〈표 2-4〉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 추진 전략 .....	19
〈표 2-5〉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 .....	23
〈표 2-6〉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사업 추진 절차 .....	24
〈표 2-7〉 자살예방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방법 .....	25
〈표 2-8〉 제 2차 문화진흥기본 추진 전략 .....	26
〈표 2-9〉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현황 .....	28
〈표 3-1〉 문화를 통한 사회적 처방 개요 .....	41
〈표 3-2〉 지역거점센터 개요 .....	42
〈표 3-3〉 지역거점센터 지역별 지정 현황 .....	42
〈표 3-4〉 광역거점형 주요 사업 대상 및 활동 내용(제안서) .....	43
〈표 3-5〉 거점확산형 주요대상 및 주요내용(제안서) .....	43
〈표 3-6〉 참여자 수 .....	45
〈표 3-7〉 프로그램 수 및 운영 횟수 .....	45
〈표 3-8〉 인문상담 피상담자 수 .....	46
〈표 3-9〉 인문상담 전문인력 수 .....	46
〈표 3-10〉 협력네트워크 수 .....	46
〈표 3-11〉 협력회의 수 .....	47
〈표 3-12〉 사업 운영 인력 수 .....	47
〈표 3-13〉 프로그램 운영 인력 수 .....	47
〈표 3-14〉 연도별 예산 .....	47
〈표 3-15〉 지표 개발의 목적 .....	50
〈표 3-16〉 성과평가 지표 사례 .....	51
〈표 3-17〉 성과평가 지표 사례 .....	51
〈표 3-18〉 국내 성과 평가 지표 사례 .....	52
〈표 3-19〉 지역거점센터 운영실태 지표체계 .....	64
〈표 3-20〉 지역거점센터 운영실태 지표 측정 방식 .....	65

〈표 3-21〉 사업 성과지표 체계 .....	70
〈표 3-22〉 사업 성과지표 측정방식 .....	71
〈표 4-1〉 조사 개요 .....	75
〈표 4-2〉 지역거점센터 조사 개요 .....	76
〈표 4-3〉 협력센터 조사개요 .....	76
〈표 4-4〉 협력기관 응답자 속성 .....	78
〈표 4-5〉 참여자 응답자 특성 .....	86
〈표 4-6〉 서울 지역거점 운영센터 현황 .....	92
〈표 4-7〉 서울 지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	92
〈표 4-8〉 서울 지역거점 센터 발굴-인문상담-맞춤형 처방 과정 .....	93
〈표 4-9〉 서울 지역거점센터 추진일정 .....	94
〈표 4-10〉 서울 지역거점센터 사전/사후 사업 참여자 .....	95
〈표 4-11〉 서울 지역거점센터 인문상담 운영실적 .....	95
〈표 4-12〉 충남 지역거점센터 지역 기초 거점 기관 .....	97
〈표 4-13〉 충남 지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	97
〈표 4-14〉 충남 지역거점센터 추진 일정 .....	98
〈표 4-15〉 충남 지역거점센터 사전/사후 사업 참여자 .....	99
〈표 4-16〉 충남 지역거점센터 인문상담 운영실적 .....	99
〈표 4-17〉 강원A 지역거점센터 운영현황 .....	101
〈표 4-18〉 강원A 지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	101
〈표 4-19〉 강원A 지역거점센터 추진일정 .....	102
〈표 4-20〉 강원A 지역거점센터 사전/사후 사업 참여자 수 .....	103
〈표 4-21〉 강원A 지역거점센터 인문상담 운영실적 .....	104
〈표 4-22〉 강원B 지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	105
〈표 4-23〉 강원B 지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현황 .....	106
〈표 4-24〉 강원B 지역거점센터 추진일정 .....	106
〈표 4-25〉 강원B 지역거점센터 사전/사후 사업 참여자 수 .....	107
〈표 4-26〉 강원B 지역거점센터 인문상담 운영실적 .....	107
〈표 4-27〉 전북 지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	109

## Ⅰ 표 목차 Ⅰ

〈표 4-28〉 전북 지역거점센터 추진체계 추진일정 .....	109
〈표 4-29〉 전북 지역거점센터 추진체계 사전/사후 사업 참여자 수 .....	110
〈표 4-30〉 전북 지역거점센터 인문상담 운영실적 .....	110
〈표 4-31〉 전남 지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	112
〈표 4-32〉 전남 지역거점센터 추진일정 .....	113
〈표 4-33〉 전남 지역거점센터 사전/사후 사업 참여자 수 .....	113
〈표 4-34〉 전남 지역거점센터 인문상담 운영실적 .....	114
〈표 4-35〉 경북 지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	115
〈표 4-36〉 경북 지역거점센터 추진일정 .....	116
〈표 4-37〉 경북 지역거점센터 사전/사후 사업 참여자 수 .....	117
〈표 4-38〉 경북 지역거점센터 인문상담 운영실적 .....	117
〈표 4-39〉 경남A 지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	119
〈표 4-40〉 경남A 지역거점센터 추진일정 .....	119
〈표 4-41〉 경남A 지역거점센터 사전/사후 사업 참여자 수 .....	120
〈표 4-42〉 경남A 지역거점센터 인문상담 운영실적 .....	120
〈표 4-43〉 경남B 지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	122
〈표 4-44〉 경남B 지역거점센터 추진일정 .....	123
〈표 4-45〉 경남B 지역거점센터 사전/사후 사업 참여자 수 .....	123
〈표 4-46〉 경남B 지역거점센터 인문상담 운영실적 .....	124
〈표 4-47〉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 / 중 / 후 협력단체 연결망 속성의 변화 ·	135
〈표 4-48〉 거점센터별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후 연결망 속성의 변화 ···	141
〈표 5-1〉 예산 대비 투입인력 수 .....	148
〈표 5-2〉 거점센터별 협력 기관/단체 수 .....	149
〈표 5-3〉 2~4단계 해당자 대비 인문상담 건수 .....	151
〈표 5-4〉 거점센터별 특정 월 예산 집행률 .....	153
〈표 5-5〉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수 .....	154
〈표 5-6〉 거점센터별 마중물 프로그램 대상 계층 및 참여자 수 .....	155
〈표 5-7〉 대상자 중 실제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자 비율 .....	156
〈표 5-8〉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 / 중 / 후 협력단체 연결망 속성의 변화 ·	157

〈표 5-9〉 새롭게 교류/협력하는 단체 수 .....	158
〈표 5-10〉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 / 중 / 후 협력단체 연결망 속성의 변화 ..	159
〈표 5-11〉 분야별 만족도 .....	160
〈표 5-12〉 사업 효과 .....	160
〈표 5-13〉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후 고립감 변화 .....	161
〈표 5-14〉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후 외로움 변화 .....	161
〈표 5-15〉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후 행복감 변화 .....	162
〈표 5-16〉 사회적 연결 지수 변화 .....	162
〈표 5-17〉 사회적 관계 지수 변화 .....	163
〈표 5-18〉 외로움 지수 변화 .....	163
〈표 5-19〉 프로그램 참여 전후 참여자 연결망 링크수, 밀도, 평균거리 변화 .....	165
〈표 5-20〉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후 관심의 변화 .....	166
〈표 5-21〉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후 연결망의 변화 .....	166
〈표 5-22〉 협력기관의 고립, 외로움 관련 인식 변화 정도 .....	167
〈표 5-23〉 협력기관과 참여자의 문화프로그램의 고립감 완화 인식 .....	167
〈표 5-24〉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관련 발굴된 계층 .....	170

## Ⅰ 그림 목차 Ⅰ

[그림 1-1] 논리모형 도식도 .....	9
[그림 2-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체계 .....	21
[그림 2-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조직 .....	22
[그림 3-1]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추진 체계 .....	44
[그림 3-2]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목적과 성과 영역 .....	68
[그림 4-1] 사업 준비 상호 협력 - 협력 준비 일수 .....	79
[그림 4-2]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제공 프로그램 .....	80
[그림 4-3] 인문상담 - 설문조사 결과 제공 여부 .....	80
[그림 4-4] 인문상담 - 1인 당 횟수 및 상담 시간 .....	81
[그림 4-5] 기관 간 교류 - 새롭게 교류한 기관 수 .....	81
[그림 4-6] 기관 간 교류 - 새로운 교류 기관 유형 .....	82
[그림 4-7] 사업 만족도 .....	82
[그림 4-8] 사업운영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	83
[그림 4-9] 사업 개선 필요 사항 .....	83
[그림 4-10]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1순위, 1+2 순위) .....	84
[그림 4-11] 우리 사회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관련 문화활동 기여도 .....	84
[그림 4-12] 사회적 고립관련 문화적 접근방식에 대한 인식(협력기관) .....	85
[그림 4-13] 참여 프로그램 유형(참여자) .....	86
[그림 4-14] 참여기간 및 참여 횟수(참여자) .....	87
[그림 4-15] 참여 경로(참여자) .....	87
[그림 4-16] 인문상담 도움 정도(참여자) .....	88
[그림 4-17] 새로 알게 된 사람과 사업 종료 후 교류 예상(참여자) .....	89
[그림 4-18]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참여자) .....	89
[그림 4-19] 부문별 만족도(참여자) .....	90
[그림 4-20] 만족 이유(참여자) .....	90
[그림 4-21] 선호하는 프로그램(참여자) .....	91
[그림 4-22] 사회적 고립관련 문화적 접근방식에 대한 인식(참여자) .....	91
[그림 4-23] 서울 지역거점센터 추진체계 .....	93
[그림 4-24] 서울 지역거점센터 사업 추진체계 .....	94

[그림 4-25] 충남 지역거점센터 관할 범위 .....	96
[그림 4-26] 충남 지역거점센터 사업 추진체계 .....	98
[그림 4-27] 춘천문화재단 추진체계 .....	102
[그림 4-28] 강원A 지역거점센터 진단 및 상담 과정 .....	104
[그림 4-29] 강원B 지역거점센터 원주산학협력단 추진체계 .....	106
[그림 4-30] 전북 지역거점센터 추진체계 .....	109
[그림 4-31] 전남 지역거점센터 추진체계 .....	112
[그림 4-32] 경북 지역거점센터 추진체계 .....	116
[그림 4-33] 경남A 지역거점센터 추진체계 .....	119
[그림 4-34] 경남B 지역거점센터 추진체계 .....	122
[그림 4-35]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단체별 사업 참여 전 / 중 / 후 연결망 구조의 변화(참여 후는 예상) .....	133
[그림 4-36]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전후 연결망 구조의 변화 ..	136
[그림 5-1] 사업 개선 필요 사항 .....	147
[그림 5-2] 2~4단계 해당자 대비 인문상담 건수 .....	152
[그림 5-3] 사업 전후 협력기관 인식 변화(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대응 필요성) ...	154
[그림 5-4] 부문별 만족도 .....	156
[그림 5-5]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단체별 사업 참여 전 / 중 / 후 연결망 구조의 변화(참여 후는 예상) .....	159
[그림 5-6] 프로그램 참여 전후 참여자 연결망 변화 .....	164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배경

### 1)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과 문화정책의 대응

- 기술 발달, 개인주의 확대 등과 함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우리 사회가 적극 대응해야 할 문제로 부각
  - 통계청에서 조사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는 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로 증가한 후 23년 33.0%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19년 27.7%)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임
-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등은 개인 감정 차원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 사회적 건강성, 사회자본 축적, 국민 건강과 사회적 비용 차원 등 여러 차원에서 문제를 초래함
  - 외로움이 깊어지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으며 뇌졸중, 심혈관 질환, 조기 사망위험까지 증가시키는 등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내외 보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과 관련된 의료 비용의 확대로 연계됨
- 이러한 변화와 관련한 국제 사회의 대응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 영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음
  -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 외로움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2018년 차관급으로 ‘고독부’ 장관 임명. 일본 또한 코로나 19를 계기로 사회적 고립·관계 단절에 대응하고자 2021년 내각관방에 ‘고독·고립대책담당실’ 설치
- 유네스코는 리즐리아트(ResiliArt, Art is Resilient, Art makes us resilient) 개념을 확산시키며 예술이 ‘위협에 대한 자기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힘을 가졌음’을 강조
- 우리나라에서도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문화로 연결하는 단단한 사회’를 제시하며, ‘연결사회 지역거점 구축’을 통한 사회적 연결 회복을 문화정책의 한 방향으로 제시

## 2)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확대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로움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부터 관련 사업 추진
  - 2022년 한국심리학회와 협력으로 서울 동작구민 대상 ‘외로움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
  - 2023년에는 5개 기관 중심으로 ‘연결사회 지역거점’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24년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으로 명칭 변경 및 확대
- 2024년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전년 5개 지역거점센터가 9개 지역거점센터로 확대되었으며, 예산 또한 2023년 12.8억여원 대비 2024년 17.1억여원으로 확대 편성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관한 이슈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향후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의 중요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유사 해외 사례인 ‘사회적 처방’을 시행한 영국에서는, 사회적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80%가 3~4개월 후 그들의 외래진료 횟수가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2024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거점센터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됨

## 3) 성과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체계 마련 필요성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 본격적으로 추진. 이에 따라 지역거점센터 운영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평가지표 모형 구성 필요성 제기
- 지역거점센터 운영 2년차 시점에서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효과 점검 필요
  - 지역거점센터의 성과와 사업 효과를 점검하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 추진체계를 보완하는 체계 마련 필요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국민들의 외로움이나 사회적 연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 연계 척도와 지수를 개발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척도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살펴볼 성과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를 과제가 놓여 있음
  - ※ 사회적 연결 지수 = (외로움 심리 지수 + 사회 관계 지수) / 2
-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더불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필요성 또한 제기
  - 현재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유형에 따라 광역거점형, 거점확산형,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협력기관 연계형, 지역거점센터 대상특화형, 열린 시민참여형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고, 사회적 연계 지수를 기준으로 사업주요대상 그룹(2, 3, 4 그룹)을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음
    - ※ 사회적 연계지수에 따른 집단 구분: 1그룹(심각집단), 2그룹(경계집단), 3그룹(주의집단), 4그룹(관심집단), 5그룹(자립집단)

- 지역거점센터별 운영 방식, 유형 등이 다르고 대상의 참여 유도 방식도 다르므로, 지역거점센터별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센터별로 추진된 사업의 운영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4)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모색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이 본격 시행된 지 2년째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기존에 진행되어 온 사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진행하여야 할 사업 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검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사업 방향 검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한 개선을 넘어,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이 문화정책 안에서 어떤 내용과 규모,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문화정책 및 타 정책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과는 어떤 역할 분담 또는 협력 관계를 맺으며 수행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필요로 함

## 2. 연구 목적

### 1)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방향 검토

- 본 과업의 주 내용인 지역거점센터 운영성과 분석은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의 방향성 속에서 검토되어야 함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목적은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 고취, 사회적 연결을 통한 사회통합기반 마련”임
  - 기본 방향은 ‘문화로 사회관계망 형성’, ‘협력적 대응체계 구축’,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확산’ 등임
- 위와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첫째,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연계 척도를 구성하여 사회적 연계 지수를 측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이 사업은 협력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상을 발굴하거나, 지역거점센터 자체에서 특화된 계층 또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 여기에서 대상자와 관련한 이슈가 나타나는데, 대상자가 경계집단, 주의집단, 관심집단으로 구분되어 프로그램들이 권고될 때, 이러한 과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권고를 충실히 따라 주는지,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이러한 분석 위에서 성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사업의 기본방향 가운데 하나인 협력적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하여서도, 유관기관들의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참여도, 협력의 범위/내용/수준, 사업 내용 및 방향성에 대한 공감 및 공유 정도와 역할 구분 등도 성과를 측정하기 이전에 검토되어야 할 내용들임
- 보다 거시적으로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과 관련하여 타 영역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정책이 개입하는 수준과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로 설정할 것인지 등은 동 사업의 성과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성과분석에 앞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을 시행하게 된 정책적 배경과 사업의 구체적 내용, 향후 사업 방향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에 기반하여 성과를 살펴 봄

## 2) 평가 모형 및 지표 개발

- 본 사업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2023년 시행한 ‘연결사회 지역거점센터’ 사업이 명칭을 바꾸어 2024년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역거점센터 운영 현황 및 실태를 기반으로 성과 분석 방향 구상
  - 운영 실태는 설문조사뿐 아니라 현장조사, FGI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하여 파악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점검에 기반하여 사업 성과 분석
- 사업 운영실태 분석과 더불어 2024년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성과지표 개발은 유사한 국내외 사업의 지표 사례 분석에 기반하여 진행
- 성과 평가 모형은 동 사업이 기반하고 있는 정책 내용에 대한 검토와 현재 수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한 분석에 기반해 설정
- 지표는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혼합하여 구성

## 3) 운영 실태 분석

- 본 사업은 공모에 기반한 단년도 사업으로, 명확한 사업의 방향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의 개선 사항을 분석하고,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 본 사업은 지역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발굴-처방-효과측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고립감 문제에 있어 진단과 처방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기반하여 개선 방안 검토
- 사업 참여자 발굴과 문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매개자의 역할과 기능 또한 중요하게 검토
  - 영국의 사회적 처방 매개자 ‘링크워커’(Link worker)는 지역 담당 의사로부터 사회적 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적절한 지역사회활동 자원을 소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가 프로그램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담당 의사, 간호사, 약사, 기타 의료 전문가들과 팀을 이루어 업무 수행
- 이 사업은 지역거점센터별로 다양한 유형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역거점센터의 운영 유형별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함
- 사업 운영실태는 추진체계 각 단계별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조사

#### 4) 성과분석

- 성과분석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따라 이루어짐. 이 연구는 지역문화진흥원이 기획, 구상한 내용을 현장에서 진행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원을 대상으로 동 사업 자체에 대해 실시하는 성과분석과는 차이가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업의 목적은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 고취’와 ‘사회적 연결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음
- 따라서 전체 사업의 결과지표(효과 Outcome 차원)는 참여자의 ‘정서적 안정감 고취’와 ‘사회통합기반 마련’이라는 차원이 중요하게 고려됨
  - 위 내용 외에도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에 기반한 성과와 산출(Output) 차원의 성과가 분석될 수 있음

#### 5) 사업 개선 방안 제안

- 사업 개선 방안은 운영 실태 및 성과 분석에 기반하여 사업 방향성, 성과 지표 보완 및 운용, 성과 관리 및 사업 개선 등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
- 개선 방안은 정부의 국정 기조, 목표 및 과제와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의 관련성 속에서 검토
- 동 사업이 타 문화향유 사업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 방안 마련

## 1. 연구 내용

### 1) 정책 및 사업 환경 분석

-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의 방향성 및 내용 점검
  - 이 사업은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3~2027) 중 ‘문화로 연결하는 단단한 사회’ 과제 가운데 ‘연결사회 지역거점 운영’, ‘전 국민 심리 안전망 구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인문·문화로 사회문제 해결과 회복탄력성 제고’ 과제에 간접적으로 연계됨
-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이 가지는 특성 점검
  - 이 사업은 해외의 ‘사회적 처방’ 정책과 유사한 측면을 가짐. 영국에서는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외로움 정책에 있어 각 부처의 중심 기관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9개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 수행
  - 국내 사회적 처방 사례로는 2020년 연세대학교 교수팀이 시행한 사회적 처방 시범사업, 2024년 시작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사회적처방건강관리소’ 개소를 통한 시범 사례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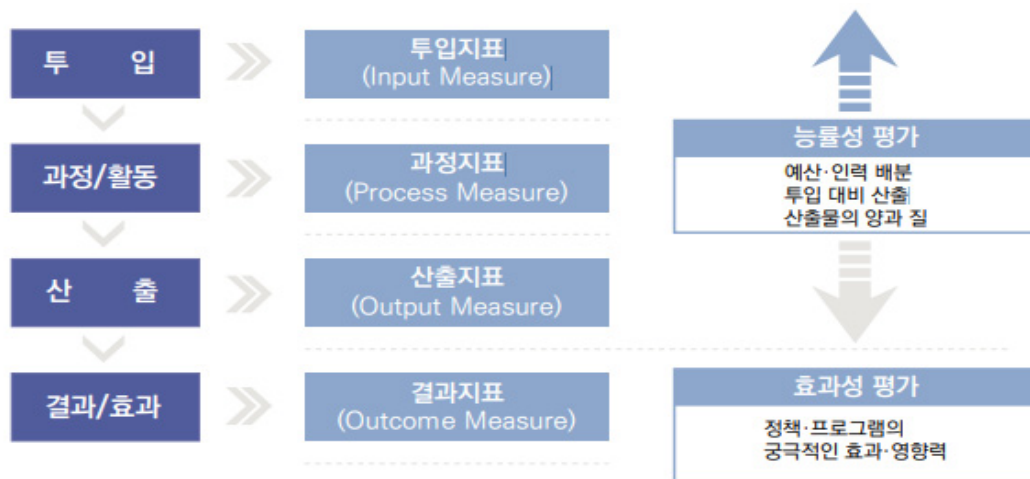
### 2) 실태 분석 및 성과 지표 개발

- 성과 평가 및 성과 지표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사례 검토. 이러한 사업들은 각 사업 성격에 따라 평가 대상, 평가 기간, 평가 유형, 추진 체계들을 구축하고 있음
  - 사회복지기관 평가지표(2018): 시설 및 환경(편의시설 적절성/안전관리 등), 재정 및 조직운영(회계 투명성 등), 인적자원관리(직원 근속율/직원 교육 등), 이용자 권리(이용자 비밀보장 등), 지역사회 관계(외부자원 개발, 자원봉사자 관리 등)
  -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평가지표(2013): 기관 운영 및 관리(기관운영/인력관리/재무 관리), 서비스 제공(서비스 개시/서비스 수행/서비스 제공 결과), 평가팀 의견(현장 평가)
  -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지표(2016): 사업 운영 및 성과(공통 지표,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참여자 선발/활동 내실화 마련 노력/담당자 전문성/사업목표 달성도/기타 사업추진 활성화 노력 등), 사업 특성화(개별 기관 지표, 서비스 수혜자 관리/수요처

관리 등), 지자체 지원(지방자치단체 협력 정도 등)

○ 이러한 사례를 검토하여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모형 개발

- 문화로사회연대 지역거점센터 운영실태 분석을 위한 평가 지표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논리모형(Logic Model)을 적용하여 개발



[그림 1-1] 논리모형 도식도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성과지표는 핵심성과지표 모형(Key Performance Indicator Model, KPI Model)을 적용하여 개발

### 3) 운영 실태 및 성과 분석

- 준비(자원조사)부터 실행(프로그램 실행 및 사후 조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운영실태 분석
- 지역문화진흥원, 지역거점센터, 협력기관/단체로 이어지는 운영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
- 맞춤형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수혜자, 프로그램 시행기관 사이의 상호 연계성 분석
- 운영 실태 및 성과 분석은 위에서 개발한 운영 평가 및 성과 지표에 기반하여 시행

#### 4) 사업 개선 방안 제언

- 사업 개선 방안은 크게 사업 방향, 사업 운영, 지표 측정 및 적용 관련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
- 사업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초기 도입 단계에 있는 본 사업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제언
  - 사업 방향 제언은 정책 담당자 및 사업 담당자 등과의 FGI, 전문가 및 자문위원 등과의 회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파악된 내용 등에 기반하여 검토
- 사업 운영 분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과 당초 구상했던 사업 구상과의 연계/괴리 정도를 분석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 개선을 위한 시사점 제공
- 지표 측정 및 적용 분야는 이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지표 및 그 적용과 관련하여 향후 필요한 개선, 보완 사항들에 대해 제시

## 2. 연구 방법

### 1) 설문조사

- 대상: 사업 참여자, 지역거점센터 운영자, 협력네트워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 조사 방법 : 오프라인 조사
- 조사 내용 : 사업참여 만족도, 사업 및 외로움에 대한 인식 제고 정도 조사
  - 지역거점센터 및 협력기관: 거점센터/협력기관 특성, 지역 여건, 협력관계 구축, 지원사업 만족도 재 참여 의사, 지원사업 측면별 난이도, 사업 성과 등
  - 참여자: 사회적 활동, 외로움 변화 정도, 사회적 관계성 변화 정도,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 2) 실태 조사

- 대상: 9개 지역거점센터
- 방식: 실태조사단 운영
  - 9개 지역거점센터의 사업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할 실태조사단 구성 운영
  - 실태조사단을 중심으로 월 보고서 검토 및 현장 조사 수행
  - 월 보고서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 조사 내용

- 참여자, 참여단체 정보
- 행사 및 프로그램 (대상 발굴 관련 행사,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 참여자 사후관리 사항 기타 사업 관련 행사)
- 협력네트워크 현황
- 지역거점센터별 지역, 환경, 프로그램 및 참여자 특성에 따른 세부 분석 및 교차분석을 통한 변화 및 특이사항 도출

### 3)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대상: 사업 참여자, 사업 관계자

- 사업 참여자: 사업 주요 대상 그룹 유형 고려하여 조사 그룹 구성
- 사업 관계자: 지역 거점센터 운영 실무자, 협력 네트워크 운영자

○ 방식: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 내용: 지역거점센터 운영성과 및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 효과 등 사업성과 관련 내용

### 4) 사회연결망 분석

○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사람들이 사회적 행위를 그들이 맺은 관계로 구성된 연결망의 특성으로 설명하는 방법

○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개인/집단들의 미시적인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관계의 패턴이 어떻게 그들의 태도 및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체 연결망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이러한 연결망이 개인 또는 집단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주는지 살펴볼 수 있음

○ 대상: 사업 참여자, 사업 참여 기관/단체(협력네트워크)

○ 방식: 별도의 사회연결망 분석 설문지를 작성, 대상자를 표본 추출하여 실시

○ 내용: 사업을 통한 연결망 형성 정도



## 제 2 장

# 사회적 고립과 문화정책

제1절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 및 사업

제2절 문화 분야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 및 사업

제3절 분석 및 시사점



## 1.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

-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는 공공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으로 부상
- 이에 따라 국제 기구 및 각국 정부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
  - 세계보건기구(WHO)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외로움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 이러한 관심의 연장선 상에서 2023년에는 ‘사회적연결위원회’를 구성, 세계보건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
  - 영국 정부는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 이 문제에 대응할 주관부처로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2024년 현재는 문화·미디어·체육부로 개편)를 지정하고, 해당 부서 장관이 외로움부 장관을 겸직하도록 조치
  - 일본 정부는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내각관방 산하에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을 설치하고 관련 장관(대신)을 임명. 이후 2021년 ‘고독·고립 대책 중점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
  -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22년 기준 34.1%로 2037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이처럼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커뮤니티를 매개로 한 사회적 연결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OECD ‘Better life index’)
- 사회적 고립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는 다양한 정책과 이에 기반한 사업들을 실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새 정부 들어서면서 범 부처적인 성격을 가지는 국정과제로 제시
  -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사회적 고립과 자살률 상승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등의 환경에서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선언,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혁신위원회 신설
  -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정신건강의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단계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2027년까지 100만명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

자살률을 50% 감축하는 것 등을 목표로 제시

- 정신건강 정책혁신 방안 전략으로는 ①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②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③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④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제시

○ 아래에서는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살펴봄

## 1) 보건복지부

-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정책은 1984년 보건사회부의 정신질환 종합대책 수립과 정신질환 역학조사 시작을 초기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
  - 정부는 1984년 10월 정신질환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정신보건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10년 이상 지연되었고, 결국 국내 정신건강복지법은 1995년 12월 30일에 최종 제정되었음
- 이후, 1998년 정신보건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4개소(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강원 춘천시, 울산 남구)에서 시작됨
  - 이 시기,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증가했지만, 주로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 측면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음
- 2016년 2월, 제1차 정신건강종합대책(2016-2020)이 발표되었고, 이어 2017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되었음
  -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신체 및 정신질환 복합사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중심 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였음
- 2021년 1월에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었고, 이후 정책의 패러다임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정책 대상은 정신질환자와 고위험군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으로 정책의 주체는 범정부 대응으로 전환되었고, 민간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체제로 발전

〈표 2-1〉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정책목표

구분	내용
비전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
정책목표	1. 코로나19 심리방역을 통한 대국민 회복탄력성 증진 2. 전 국민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경과에 따른 맞춤형 치료환경 제공 4. 정신질환자가 차별 경험 없이 지역사회 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5. 약물 중독, 이용 장애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 6. 자살 충동, 자살 수단, 재시도 등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표 2-2〉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 방향성

구분	지금까지(AS-IS)	앞으로(TO-BE)
정책대상	정신질환자+고위험군	전 국민대상
지원내용	정신과적 치료	전 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
개입시점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한 시점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시점
지원목표	정신질환자의 증상관리	전 국민의 삶의 질과 인권 증진
정책주체	(공공) 부처 지자체 분절적 대응 (민간) 정신의료기관	(공공) 범정부적 대응 (민간) 정신의료기관+지역사회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제2차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 2) 여성가족부

- 2004년 국내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2006년부터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 1차~2차 계획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친화지수를 개발하는 등 정책의 기본 틀과 방향성 제시
  - 3차 계획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과 돌봄 지원 내용 강화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변화하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특징임
  - 주요 추진 방향은 가족의 정의를 넓혀 비혼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돌봄, 생애 주기별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돌봄 공동체 모델을 확산하여 모든 가족이 포용되는 사회를 목표로 함
  - 영역별 과제로는 ①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②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③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④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이 있음
  - 3번째 과제의 세부 내용으로 ‘1인가구의 고독·고립 방지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및 지역사회 기반 일상 돌봄 지원’ 명시
- 1인 가구의 고독·고립 방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3차 계획 중 3번째 정책 과제로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이 제시되고 있으며, 1인가구의 고립·고독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소통·교류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강조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고립, 은둔 문제에도 주목,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2024.2) 발표
  - 청소년기에 고립이나 은둔을 실제로 경험한 사례 다수 파악

- 기존 지원체계로 이를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4년 5월부터 고립·은둔 시범사업 실시. 전국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내용으로는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함

〈표 2-3〉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추진 방향

방향	주요과제
오프라인을 활용한 선제적 발굴	(정보연계) 학교밖센터 미등록 사례, 실태조사 연계 등 지원대상 파악 (지역사회 협업) 유관기관 협력으로 지역 내 고립·은둔 청소년 조기 포착 (온라인 활용) 온라인을 통한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진단) 단계별 진단으로 지원수요 파악 및 계획 수립 (상담) 1:1 상담 및 마음건강 특화 지원 (치유) 청소년·가족 모두의 치유 지원 (학습) 학령기를 고려한 대면·비대면 학습 지원
자립지원 등 사후관리	(재진단 및 관리) 사후 재진단 및 생애주기적 지원 연계 (자립지원) 사회진입을 위한 진로·자립 지원
정책 기반 구축	(제도적 기반) 법적근거 마련 및 실태조사 등 실시 (전담체계)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전담체계 구축 및 역량 지원 (인식개선)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 및 정책홍보 활성화

\*자료: 여성가족부(2024),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 3) 관계부처 합동

-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2021년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03.31.)이 제정되었고, 2023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였음
  - 이 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목표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첫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2022년에는 39개 시군구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024년 7월부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로 이 사업을 확대되어 고독사 예방 활동 추진
- 고독사가 이슈화되면서 노인층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여러 연구 결과 아동·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이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한다는 것이 알려짐
- 관계부처에서는 2023년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심층조사를 통해 관계 부처가 함께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음
  - 이는 보건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협력한 정책임
  -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년(19~34세) 대상 온라인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가

시작되고, 학령기 및 구직 과정에서 겪는 대인관계, 구직단념 문제로 인한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이 강화됨

-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하고, 시범사업 실시,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법적근거 마련 등의 세부 과제를 수립하였음

〈표 2-4〉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 추진 전략

구분	핵심과제
전략1.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정도 판단	1.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2.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3. 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
전략2.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1. 지역주민 간 연결을 촉진하는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2.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 3.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연결 및 안부 확인
전략3.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1. 청년 위험군을 위한 정서 및 취업 지원 2. 중·장년 위험군의 일상생활 문제 관리·지원 3.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4. 사망자·유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
전략4.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1. 고독사 예방·관리 수행체계 구축 2. 지역 주도형 서비스 신설 지원 3. 고독사 예방 법·제도 개선 및 인식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제1차 고독사 예방 기획계획(‘23~’27)

#### 4) 지방자치단체

-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대응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
  - 지방자치단체에 ‘고립’을 명시한 조례는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총 220개가 제정되어 있음
  - 사회적 고립 관련한 국내 최초 조례는, 2018년 제정된 서울특별시의「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임
- 고립 관련 조례 내용으로는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등이 있음
  - 자치구에 따라서 2개 이상의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음

- ‘고립 청년’에 관한 관심도 많아지면서 2020년 서울시 양천구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까지 전국 38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 중임
- 서울시는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실행 중임
  -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은 4대 분야 ① 건강안심(건강·돌봄) ② 범죄안심(범죄) ③ 고립안심(경제적 불안감과 외로움) ④ 주거안심(주거) 및 8개 핵심과제로 추진
  - 5년간 약 5조 5,789억 원을 투자하여 1인 가구의 경제적 자립, 주거 안정, 건강과 안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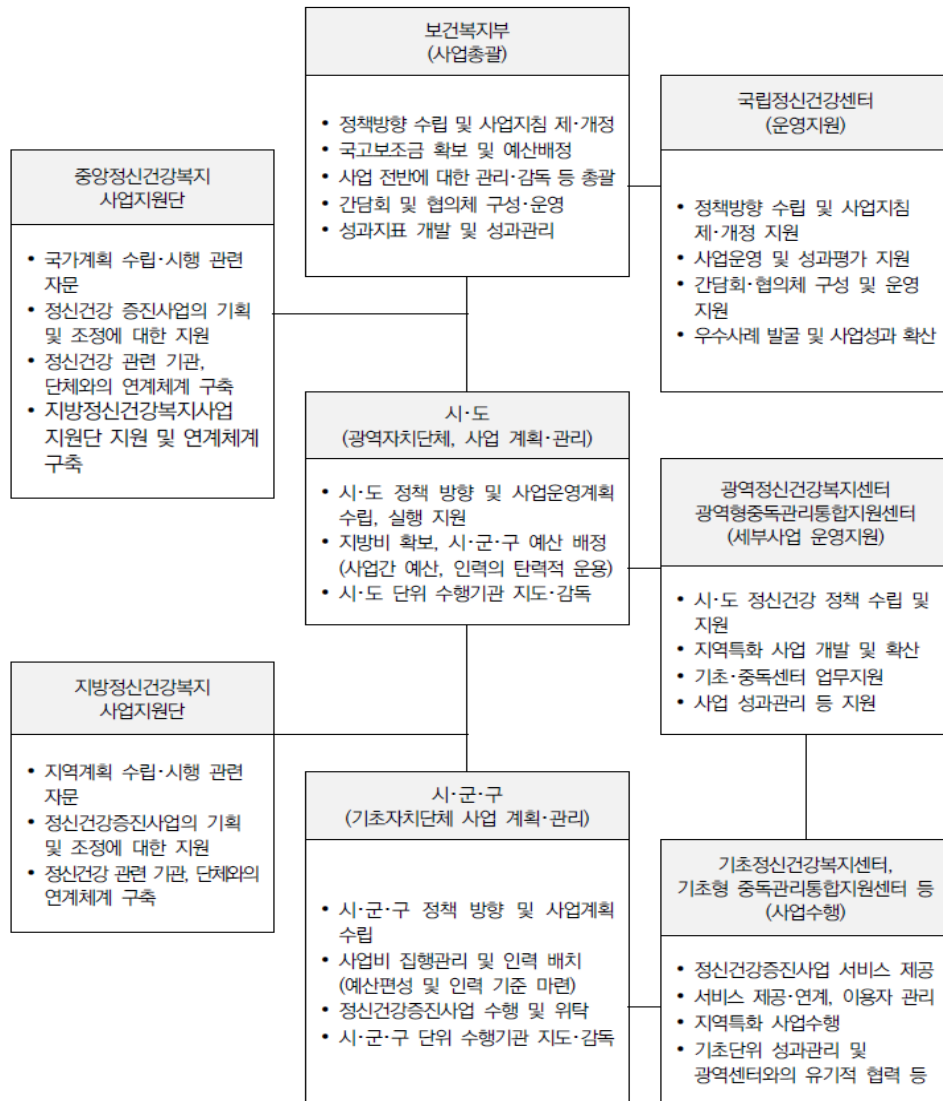
## 2. 사회적 고립 대응 체계

### 1) 사회적 고립 관련 기관

#### (1)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 관련 정책의 대상이 고 위험군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정책의 주체는 범정부적 대응으로 확대됨
- 민간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증가하고 있음
  - 2024년 10월 기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7개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52개소, 자살예방센터 54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0개소가 설치·운영 중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을 근거로 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정신건강 관리 체계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중독관리, 재활, 그리고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함
  -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을 따르며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의 조례와 지침에 따라 시행됨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기초센터와 중독센터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위기대응 및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찾아가는 심리지원, 청소년과 청년 정신건강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수행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지역 위기 대응, 정신건강 증진 활동, 재난 심리지원, 재활 서비스, 그리고 정신건강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담당
  - 주요 업무로는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사례관리’, ‘주간재활(Day care)’, ‘교육·훈련’, ‘타 기관 연계 등 정신질환자 관리’, ‘재활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자살예방' 등이 있음



[그림 2-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체계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 정신건강사업안내

## (2)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

- 서울시에서 2022년 10월 고립가구 및 위기가구 시민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설립함
-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운영 지원 및 고립가구 위기대응총괄시스템 구축으로 24시간 스마트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복지관 등 민간현장 중심의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잇다+' 협력기관을 '22년 20개소에서 '23년 30개소로 확대했음



[그림 2-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조직

\*자료: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2024),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 (3) 자살예방센터

- 자살예방센터의 주요 정책 근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23.07.11.)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자살예방 기본계획으로, 최근 ‘제5차 기본계획(2023-2027)’이 수립됨
- 5차 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2021년 기준 26명이었던 자살률을 2027년까지 18.2명으로 30% 감소하는 것이 목표임
- 국내에 자살예방센터는 총 226개 운영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자살 관련 상담 제공, 자살위기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대응,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자살자의 유족 지원,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됨

## 2) 사회적 고립 관련 대응 사업

### (1) 중앙정부 차원

- 보건복지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시행기간: 2022년 5월부터 시행 중
  - 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지원내용: 사전·사후검사,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주1회(총8회), 종결상담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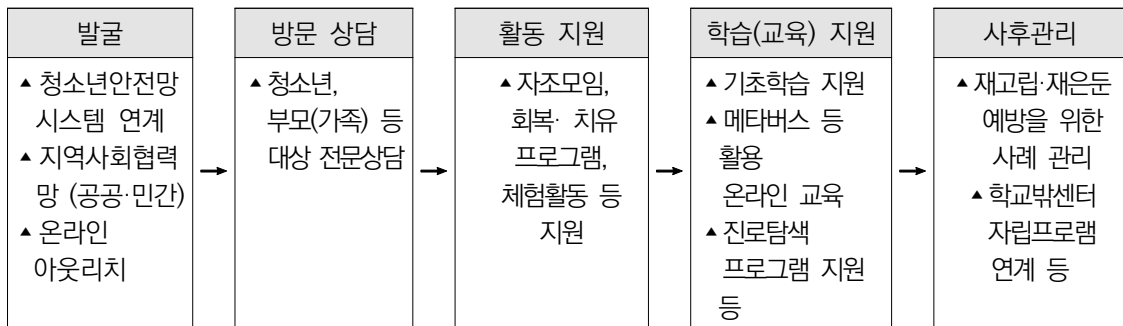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신청기간: 2024년 7월 부터 시행 중(12월 종결)
- 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정신의료기관,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sup>1)</sup>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여성가족부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sup>2)</sup>

- 고립·은둔 시범사업은 2024년 3월 부터 전국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고립·은둔 수준 진단(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
- 1:1 전담 사례 관리사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이 제공됨
- 고립·은둔 청소년들의 정서적 교류와 심신 회복을 위해 청소년 소모임, 멘토링, 회복·치유 프로그램, 일상 습관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및 고립·은둔 청소년의 가족을 위한 자녀이해교육, 부모상담, 자조모임 등도 운영
- 지원대상 청소년의 사회적응도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지원함

〈표 2-5〉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



\*자료: 여성가족부(2024),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 행정안전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을 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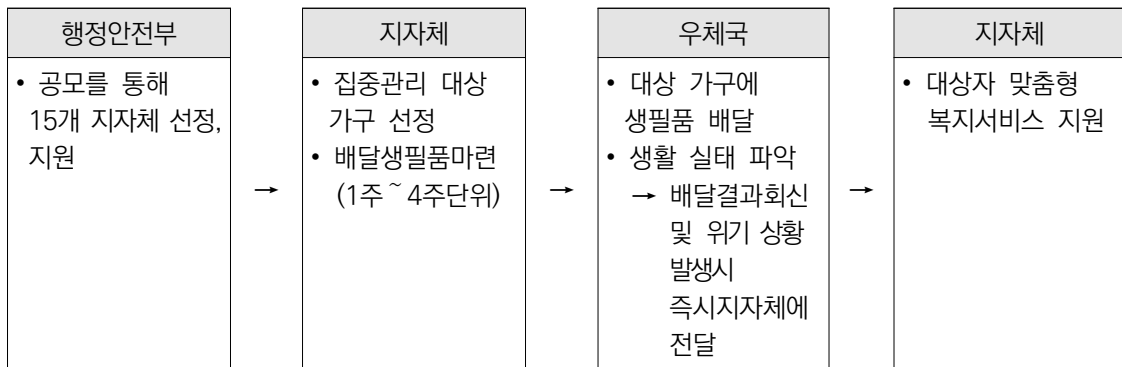
1)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2) 여성가족부에서는 고립을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없는 상태', 은둔을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위해 2024년 5월부터 시행되었음

- 전국 인프라망을 가진 우체국 인적네트워크(집배원)를 활용하여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기 위한 것임
-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함
- 행정안전부는 공모를 진행하여 15개 지자체를 시범 지자체로 선정하였고, 지자체는 중점 관리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1주~4주 단위로 배송

〈표 2-6〉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사업 추진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2024),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으로 고립가구 위험요인 사전 예방

## (2) 지방자치단체 차원

### ○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원스톱 서비스

-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
-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여,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 시범사업 4개 시·도 선정, 2년간 운영 후 전국 확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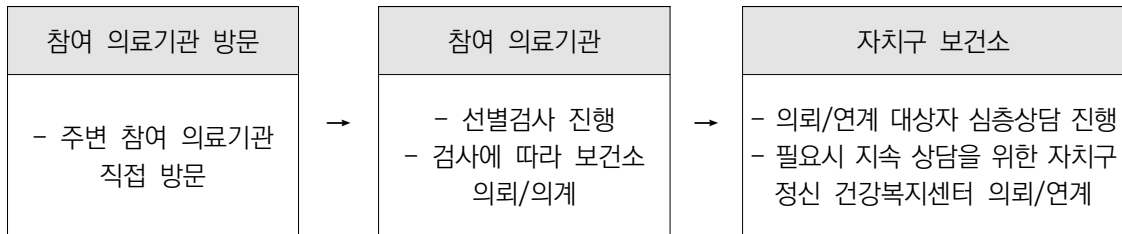
### ○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2007년 8월에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 서비스’가 200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형태임
-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는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공서비스를 통해 최초로 제공되는 집중형 사례관리이고, 사례관리자가 이용자를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특징임
- 바우처 방식의 정신보건서비스

○ 서울시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 서울시에서 자살예방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사업
- 동네 1차 의료기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건강 설문’과 ‘자살행동 척도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자치구 보건소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해 주는 형태
- 우울·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층 상담 및 전문 검진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관리와 발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임

〈표 2-7〉 자살예방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방법



\*자료: 블루터치 홈페이지(2024), 생명이음청진기사업

○ 서울시 ‘우리동네돌봄단’

-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우리동네돌봄단은 2017년 10개 자치구에서 시행된 이래, 2021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되었음
- 독거노인 등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돌봄 취약계층을 중점 관리해오다가 2022년부터는 주요 돌봄 대상을 고독사 위험가구로 명시하여 활동 중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 정기방문 및 안부 확인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모니터링과 위기가정을 발굴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 처방’

-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광주테크노파크와 (재)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 협업으로 2024년 ‘사회적 처방 지원을 통한 시민건강정책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사회적처방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가 개소하였고, 주민들은 신체기초기능 측정장비 9종, 보행·근골격 측정장비 5종, 두뇌인지 측정장비 2종과 데이터 수집장치 등 총 16종의 건강 측정장비가 구축돼 시민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 시민 건강 상태 진단 결과에 운동처방, 식단처방, 관계처방 등이 내려지고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음
- 건강활동가 20~25명과 소외된 이웃 100~120여명과 매칭하는 형태임
- 원주에서도 진행하고 있음 농촌지역 노인 대상 사회적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 처방에 참여한 노인들은 우울감이 감소하고 고독감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1. 사회적 고립 관련 문화 정책

### 1) 문화진흥기본계획

- ‘제2차 문화진흥기본 계획(2023~2027)’은 2023년 4월에 발표되었으며 “자유와 연대의 날개를 단 K-컬처, 그 새로운 5년”이라는 슬로건을 담고 있음
- ‘제1차 문화진흥 기본 계획(2015-2019)’은 생활 속의 문화향유를 강조하는데 반해 ‘제2차 문화진흥기본 계획’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 매력국가”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로 지역과 사회를 연결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하는 것에 강조점을 둠
- 자유와 연대를 강조하는 4가지의 추진 전략 중 “C-3. 문화로 연결하는 단단한 사회”는 지역별 거점을 통해 사회적 연결이 희미해져 있다고 느끼는 지역주민을 발굴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연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
  - 전 국민의 심리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연결 정도 측정’, 사회적 연결에 대한 ‘대국민 민감도 제고 및 인식 개선’, ‘사회적 처방’ 시행, ‘문화돌봄사’ 운영 등이 세부 과제임
  - “C-4. 인문·문화로 사회문제 해결과 회복탄력성 제고” 과제에서는 지역 현안 개선과 사회적 약자, 스트레스 고위험 직군, 장애인 노인 등 대상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음

〈표 2-8〉 제 2차 문화진흥기본 추진 전략

구분	과제	전략
자유	A. 매력 있는 문화자산으로 내일을 여는 K-컬처	A-1. K-전통 산업화와 일상화로 높이는 문화매력 A-2. 한글·한국어 기반 언어문화산업 육성
	B. 새로운 주역들과 함께 비상하는 K-컬처	B-1. 창작예술의 주인공이 되는 어르신 B-2. K-컬처에 특별함을 입히는 장애인 B-3. 우리 문화의 드리머스, 청년
연대	C. 지역과 사회를 품격있게 연결하는 K-컬처	C-1. 어디에 살든, 누구나, 같이 누리는 문화 C-2. 문화다양성 기반 연대 사회 구현 C-3. 문화로 연결하는 단단한 사회 C-4. 인문·문화로 사회문제 해결과 회복탄력성 제고

구분	과제	전략
	D. 세계시민과 연대하는 K-컬처	D-1. K-아트, 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D-2.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기여하는 K-컬처 D-3. K-컬처의 해외진출 중추기지 강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3),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

## 2) 인문정신문화 진흥계획

- 인문정신문화 진흥계획은 인문을 통한 치유라는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지만, 치유적 관점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 계획(2017~2021)’으로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독서치유를 아동에서 성인까지 확대하는 것을 발표하였음
-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은 2021년 12월 발표되었으며,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위해 “인문을 통한 위로와 공감, 활력 제공, 공동체 연대·화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위로와 공감을 위한 인문프로그램’ 확대를 선정하고, 지역기반시설 연계 확대 및 비대면 콘텐츠 보급을 통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대상 확대를 언급함
  - 추진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인문 강좌’(22년 300회, 600명), ‘여행길 인문학’(22년 30회, 600명), ‘치유순례길’ 조성(22년 10개소) 및 연간 외로움 실태조사, 한국형 외로움 측정 척도 개발 등을 진행함

## 2. 사회적 고립 관련 문화 분야 사업

###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2015년 개인의 심리·정서적 상처 치유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7개 각 부처(경찰청,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사행위, 여가부, 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예술치유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역량 있는 운영단체 및 참여인력(슈퍼바이저, 예술치료사 등)을 선정하여 대상 특수성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하고 있음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2021년 3,738명에서 2023년 9,390까지 증가함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추진 전략에 따라 현재는 부처협력형,

치매예방형 등 대상 특화형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함

-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사업은 현재 ‘마음치유, 봄처럼’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음

○ ‘마음치유, 봄처럼’ 사업은 각 지역의 문화예술 치유 운영 역량을 가진 운영단체와 관련 시설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예술치유 생태계를 조성하여, 치유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 이 프로그램은 ① 학교 부적응자 및 학교폭력 피·가해자, ② 정신건강 상담 수요자, ③ 경도인지장애자·치매위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치매안심센터 협력 사업은 일반공모로 진행되며, 2022년 사업 기준 32개 시설, 32개 프로그램에서 416명을 지원하였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 사업은 일반공모로 운영되며 2022년 사업 기준 26개 시설의 26개 프로그램에 507명을 지원하였음

- 교육부 협력은 지정 공모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사업 기준 1개 협력부처 및 기관, 60개 시설, 60개 프로그램을 통해 1,776명을 지원하였음

○ 최근에는 사회적·정서적 고립 및 우울감 등 사회적인 문제를 극복하고자 문화예술치유 활성화를 위한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23년 5월부터 조경정원 전문가, 예술가, 기획 전문가 등이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자연을 무대로 원형적 예술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치유를 경험한다는 주제를

〈표 2-9〉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현황

구분	대상 시설 / 프로그램명	지원 대상	참여시설 (개)	프로그램 (개)	참여인원 (명)	참여인력 (명)
마음치유, 봄처럼	치매안심센터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군	48	48	693	157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	42	42	784	133
	교육부 wee프로젝트	학교 폭력 피·가해자 등	90	90	1,962	247
소계			180	180	3,439	537
도시숲 예술치유	국립세종수목원	어린이, 가족, 청장년, 노년 등 일반 국민	-	9	5,451	25
어디서든 예술치유	힐링 씨어터	일반 국민	-	3	427	3
	치유도 예술로	일반 국민				
소계			-	17	5,951	38
합계			180	197	9,390	575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 2)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한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고립의 문제への 대응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 내용 및 성격상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연계됨
-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은 생활권 단위에서 문화예술활동을 매개로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문화·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지역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복권기금으로 운영된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를 모델로 하여 2009년 시작
  -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2022년부터는 ‘생활문화공동체활성화’로 명칭이 변경됨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다년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고, 이 기간 동안 사업은 주민활동가 발굴 및 자생적 지역 협력을 지향하며 운영
- 지원 단체 수는 2009년 18개에서 2022년 60개로 증가했으며,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8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됨
  - 연평균 예산은 약 12억 2천만 원으로, 선정 단체당 지원금은 초기에는 5천만 원 수준이었으나, 점차 지원 단체가 늘면서 단체당 평균 지원금은 2천만 원 선으로 조정되었음
  - 본 사업을 통해 총 39,865회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수혜자 수는 약 80만 4천 명에 달함

## 3) 지역문화진흥원 ‘문화로사회연대’

- 지역문화진흥원은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부터 관련 프로그램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한국심리학회와 협력으로 서울 동작구민 대상 ‘외로움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
  - 2023년 5개 기관 중심으로 ‘연결사회 지역거점’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24년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으로 명칭 변경 및 확대
- 지역거점센터는 광역거점형과 지역확산형으로 구분되며, 발굴-상담-처방 프로세스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됨
  - 광역거점형은 여러 기초지역에 지역거점센터를 두어 넓은 연결망을 형성하고, 지역 확산형은 주요 지역에 센터를 설치하여 인근으로 확산하는 방식임. 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거점센터를 지원하며 대국민 사회적 연결성 실태조사(2022년부터 단년 조사)와 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홍보를 진행함

#### 4) 문화예술기관

- 문화예술기관에서도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인지 자극을 넘어 참여자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활성화와도 연계됨
- 이 중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치매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참여자들의 기억을 자극하고 예술활동에의 집중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함
  -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구·강서구 등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와의 협력으로 ‘문화재 오감표현’을 2019년부터 운영
- 국립현대미술관은 대한치매학회와 협력으로 2015년부터 ‘일상 예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야외 작품 감상, 그림 그리기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 대구미술관은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억의 정원’ 프로그램 운영. 이 프로그램은 미술 작품 감상과 더불어 참가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기억을 회상하도록 돕는 활동으로 구성

## 1. 분석

### 1) 다수의 사회적 고립 관련 대응 정책 및 사업

- 사회적 고립 문제는 현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정부 정책의 중요한 우선 순위를 차지하여 왔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은 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됨. 두 부처 업무 영역 중심으로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등 이미 일정 수준의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음
- 부처별로 전개되어 오던 이와 같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은 점차 여러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

### 2) 복지 중심, 개인 중심 접근

-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은 주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경제, 주거, 일자리, 정신 건강, 안부 살핌 등의 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우리동네돌봄단과 같이 일부 공동체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마을 구성원이 고립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짐
  - 사회적 고립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접근할 경우, 고립 극복 문제가 당사자의 책임으로 귀결되고 이에 대한 지원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문제 발생
-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대상자들의 ‘발굴’과 발굴된 대상에 대한 지원과 같은 활동은 다양한 생활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적 고립과 이와 연계된 외로움은 특성상 단순한 복지와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나, 현 단계에서는 개인적, 복지적 차원의 접근이 중심이 됨

### 3) 특정 계층, 사후 처방 중심

- 현재 복지체계에서 접근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는 1인 가구, 고립/은둔 청소년, 치매 및 정신건강 치유 대상자, 우울/자살 고위험군 등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 및 사업이 마련되고 있음
- 이미 처방이나 처치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수립, 시행됨으로써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정책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나타남
-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은 특정 계층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음. 현재 사회적 고립 정책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음

### 4) 문화 분야의 사회적 고립 대응 노력 증가

- 이전까지 사회적 고립이 주로 복지 차원의 접근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최근 문화분야에서도 사회적 고립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모습을 보임
- 지역문화진흥원은 2009년부터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5년부터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지역 내에 생활문화활동을 통해 공동체 관계를 구축,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 지역 내 여러 문제들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
- 이에 비해,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짐
- 두 사업 모두 명시적으로 사회적 고립 대응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고립과 이에 따르는 외로움, 정서적 불안 등의 문제를 문화예술을 통하여 접근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와 연관된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비해 2022년부터 시작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적으로 표명하며 시작됨으로써 사회적 고립 문제가 문화정책의 중요 대상으로 부각됨

## 2. 시사점

### 1) 사회적 고립의 규정

- 사회적 고립의 이유나 원인은 다양함. 이에 기반하여 기존 정책들은 복지적 차원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를 다루어 옴
-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사회적 고립에서 ‘고립이 주는 개인적 차원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방안이 마련된다면 개인적 차원의 고립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극복하는 차원에서 관련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음
- 사회적 고립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고립을 집단 곧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사회적 고립의 대응이 개인적 차원의 치료나 처방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특히 처방 효과의 지속성 차원에서 본다면, 개인적 접근과 동시에 공동체적 접근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더욱 안정적일 수 있음

### 2) 문화 분야의 사회적 고립 문제 접근 방식

- 사회적 고립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 분야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기존 접근이 주로 복지적 차원에서 고립된 개인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재정적, 사회복지적 차원의 지원이나 정신 건강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한다면, 문화정책 영역에서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됨
  - 이 문제는 정책 방향과 사업 내용, 사업 대상 및 연계 프로그램 등 사회적 고립 대응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과 연계되어 있음
- 중요한 것은 문화분야가 사회적 고립과 관련하여 어떤 것을 해낼 수 있으며, 어떤 것을 해내기는 어려운지를 살피는 것임. 복지 시스템에서 발굴된 대상자들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던, 직접 발굴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던, 사회적 고립과 관련하여 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나 기존 문화분야 사업들과의 차별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 이런 점에서 문화분야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면서 사회적 고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 고립 정책들과의 연계성 및 독립성 등이 동시에 검토될 필요가 있음

### 3) 사회적 고립 대응 문화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성과 차별성

#### (1) 기존 복지정책 및 사업과의 차별성

- 복지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사업들은 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고립/은둔 계층들을 발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사업,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복지 체계에서는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관련 사업,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서비스’,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 다양한 제도 및 사업을 통하여 대상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음
- 사회적 고립과 이와 연계된 외로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그 정도에 따른 의료적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서부터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매우 폭넓은 편차를 보이며 나타남
- 문화 분야에서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와 같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영역의 사업들과 어떻게 연계되면서 동시에 차별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검토 지점이 됨
  - 기존 복지 체계와의 연계를 통하여 발굴에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둘 것인지, 대상자 발굴과 처방에 모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등의 검토가 필요함

#### (2) 기존 문화정책 및 사업과의 차별성

- 현재 문화정책 분야에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접근은 인문정신문화진흥계획이나 문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제도적 틀을 통해 구체화되며, 예술 치유 및 관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심리 치유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기존에 발굴되지 못한 다양한 계층, 개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외로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연계망 구축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음
- 문화 분야에서의 사회적 고립 문제 대응 정책 및 사업은 기존 문화 및 복지정책, 사업들에 대한 검토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함
  - 기존 문화향유 사업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이 가지는 본연의 치유적 힘을 중심으로 본다면, 문화향유 사업이 예술치유의 성격으로 가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과의 유사성이 나타남. 따라서 기존 대상 계층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과의 통합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이 경우와 같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구상할 경우, 기존에 복지 영역에서 발굴된 다양한 사회적 고립 계층들을 제외하고 별도의 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복지 체계를 통하여 발굴된 계층들을 중심 대상으로 하고 일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성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됨
- 다른 한편으로, 문화정책 분야에서의 사회적 고립 문제 대응이 개인적 차원의 심리 치유와 관계성 회복이라는 차원과 더불어, 연결망 구축과 관계성 회복을 통한 공동체적 차원의 접근을 두 축으로 한다면, 기존의 예술치유 프로그램과 다른 연결망 구축과 관계성 회복을 통한 사회적 고립 극복의 정책 및 사업 내용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이 이러한 성격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목적이 차이를 보이는 바,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특성이 부각되는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제 3 장

# 2024 문화로사회연대 사업과 성과지표

제1절 2024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개요

제2절 성과지표 사례

제3절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성과지표 체계



## 1. 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및 기간

-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 고취, 사회적 연결을 통한 사회통합기반 마련
  - 인문상담 지원 및 다양한 지역 문화 자원과의 연결을 통해 외로움을 예방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사업
  - 2024년에는 지역 단위 거점 플랫폼(지역거점센터) 운영 및 가장 보통의 외로움 캠페인 운영 등 외로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 연결을 지원
- 사업기간: 2024년 2월 ~ 12월

### 2) 사업 방향

- 문화를 통한 사회적 처방
  -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자원과 사회적 고립을 연계하여, 외로움을 겪고 있거나 그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이 관계망을 회복하고 외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지원
  - 임상적 치료가 아닌, ‘문화를 통한’ 처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으로 확장, 연결하는 데에 차별점이 있음
  - 문화, 예술, 체육, 상담 등의 프로그램에서부터 모임, 공간의 연결까지 다양한 해결책을 제공, 사람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시스템
- 문화로 사회관계망 형성
  -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적 감정이므로 예방적 사업추진을 통해 국민의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일상 회복 지원
  - 인문 활용 심리지원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관계망 연계로 참여 국민의 정서적 안전망 고취
  - 지역거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거점 형성 지원

○ 협력적 대응체계 구축

- 외로움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역 내 다양한 자원·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마련
- 복지, 의료, 교육 등 주요 관련분야 간 공동 대응적 차원의 협력체계 마련
- 참여자 발굴에서부터 인문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등 대응과정 전반에서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처방 통합 시스템 마련

○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확산

-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발 계기 마련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 문화를 통한 예방 효과성 및 우수사례 발굴로 사업 성과 확산 기반 마련

### 3) 사업 내용

○ 문화를 통한 사회적 처방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

- 준비, 추진, 관리라는 세 단계로 구분 가능

○ 준비 단계는 대상 발굴에 초점을 맞춤. 마중물 프로그램은 지역거점센터가 직접 운영하고 희망복지지원단과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참여 대상자를 민관협력 체계에 기반하여 발굴. 수시 접수를 기반으로 대상자 모집

○ 추진 단계는 진단과 맞춤형 처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진단은 <사회적 연결성 척도> 사전 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안내하고 맞춤형 처방 사업 참여 여부를 파악
- 맞춤형 처방은 지역 프로그램 연계, 지역 지원 서비스 연계, 지역거점센터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관리 단계는 변화 측정과 후속 조치로 구분할 수 있음

- 변화 측정은 <사회적 연결성 척도> 사후 조사를 진행
- 후속 조치는 개선 결과 안내, 추가 맞춤형 처방, 희망 복지 지원단 연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1〉 문화를 통한 사회적 처방 개요

준비	추진		관리	
대상 발굴	진단		변화 측정	후속 조치
직접 운영 모집 및 마중물 프로그램	직접 운영 사전 〈사회적 연결성 척도〉 조사 진행  외로움 요인 및 관계성 정도 파악	직접 운영 결과 안내 (맞춤형 처방 기호 여부 파악)	지역 프로그램 연계 (문화, 동아리, 체육, 강좌 등)	개선결과 안내
민관 협력 발굴 (희망복지재단, 협력네트워크)			지역 지원서비스 연계 (의료, 복지, 거주, 직업 등)	추가 맞춤형 처방
수시 접수			직접 운영 지역 거점센터 프로그램	희망 복지 지원단 연계

#### 4) 지원 규모

##### ○ 지역거점센터 개요

- 지역거점센터는 지역 주민의 외로움과 고립감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문화자원과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지역 차원의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점 플랫폼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정책에 있어, 지원이 필요한 대상과 지원기관 및 자원을 연결하는 매칭과정이 핵심.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와 공동체, 가족과 밀접하게 관계할 수 있는 지역 주체 및 거점을 요구
- 지역의 인구, 산업,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외로움의 유형과 내용 역시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과 지원기관 등도 지역별로 상이함. 해당 지역사회 특성 및 외로움 유형에 따라 맞춤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 운영주체의 역할이 중요
- 주민들의 외로움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참여자 발굴, 인문·문화상담, 맞춤형 처방 3가지를 중심으로 운영
-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연결 척도〉 측정을 통해 외로움 정도를 진단할 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 개선 정도를 파악해 사회적 처방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을 지원함

##### ○ 지역거점센터는 광역거점형과 거점확산형으로 구분

- 광역거점형: 4개 이상 협력 기초거점센터와 광역 단위의 연결망을 형성하여 운영하는 거점센터
- 거점확산형: 주요 사업지역(기초)에서 지역거점센터 운영 후, 광역권 내 인근지역으로 점진적 확산 운영할 거점센터

- 지역거점센터는 협력네트워크를 필수로 구성
  - 지역거점센터는 발굴 및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협력 운영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를 필수로 구성, 운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필수협력: 문화영역+인문상담영역+복지영역 관련 기관(단체)
  - 역량협력: 의료, 보육, 교육 등 기관(단체) 등
  - 커뮤니티: 소모임, 동호회, 공동체 등
- 추진 내용
  - 지역거점센터 운영: 대상 발굴, 대상 맞춤형 사회적 처방 제공
  - 사회적 처방 다양화: 지역자원 및 협력 네트워크 연계·협력
  - 사업 효과성 조사: 참여자 대상 사회적 연결척도 조사 실시 및 사업성과·변화 측정
  - 인식 제고: 외로움 예방 및 사회적 처방 확산 캠페인 공동 추진

〈표 3-2〉 지역거점센터 개요

구분	광역거점형	거점확산형
운영방식	여러 기초지역에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전사적인 연결망 형성	주요 사업지역에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인근 지역으로 확산
운영장소	4개 이상 기초지역	1개 이상 기초지역
지원예산	180백만원	110백만원 ~ 130백만원

- 총 7개 지역, 9개 기관 지정
  - 광역거점형 3개, 거점확산형 6개

〈표 3-3〉 지역거점센터 지역별 지정 현황

구분	지역거점센터	운영기관	사업지(기초)	관할지역	운영센터 (기초거점포함)
1	서울 지역거점센터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관악구, 도봉구, 동대문구, 양천구, 송파구	5개	6개
2	강원A 지역거점센터	춘천문화재단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속초시	4개	4개
3	강원B 지역거점센터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원주시	1개	3개
4	충남 지역거점센터	충남문화관광재단	공주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예산군	4개	4개
5	전북 지역거점센터	군산문화재단	군산시	1개	2개
6	전남 지역거점센터	영암문화관광재단	영암군	1개	1개

구분	지역거점센터	운영기관	사업지(기초)	관할지역	운영센터 (기초거점포함)
7	경북 지역거점센터	포항문화재단	포항시	1개	3개
8	경남A 지역거점센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창원시	1개	2개
9	경남B 지역거점센터	김해문화재단	김해시	1개	6개
총합				19개	31개

○ 각 거점의 제안서에 나타난 유형별 지역거점센터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4〉 광역거점형 주요 사업 대상 및 활동 내용(제안서)

조직명	사업 대상	활동 내용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구 특성에 따른 대상 발굴(서울시민, 1인가구, 아동·청소년, 중장년, 독거노인 등)	문화예술, 인문,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지역 내 마음 나눔 모임 ‘찬찬’ 진행 등
충남문화관광재단	충청남도민, 독거노인, 청년 등	인문상담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소 연계, 미술, 음악, 식문화 등의 프로그램 진행
춘천문화재단	강원도민, 운송업 종사자, 공공업무 종사자, 감정노동자, 소상공인(속초), 퇴역군인(인제), 고령자, 사회복지실무자(홍천)	‘문화로 안녕을 묻는 도시 마음 산책’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시민형과 대상특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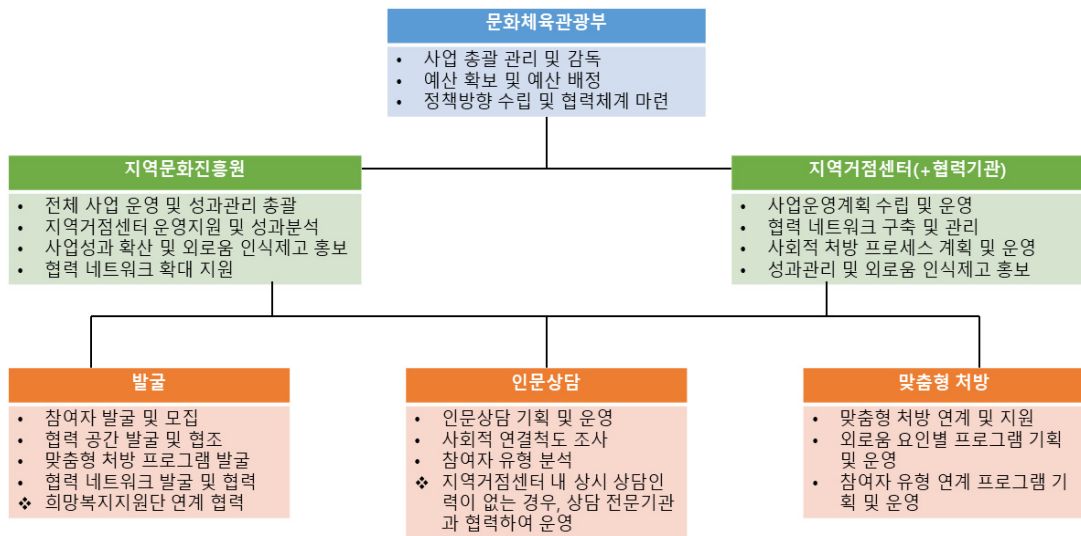
〈표 3-5〉 거점확산형 주요대상 및 주요내용(제안서)

조직명	주요 대상	주요 내용
연세대학교 원주 산학협력단	원주시민, 중장년, 노인	사회적 연결 척도를 통한 인문·문화 상담 진행, 상시 상담 및 특화 대상 상담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군산문화재단	군산시민, 중장년, 청년	인문·상담을 통해 목공, 무용 서점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대상특화형으로 청년들 대상의 팟캐스트, 영화 관련 프로그램 진행
영암문화관광재단	영암군민, 청소년, 청년, 고령자	‘마음·뜨개’ 공간 활용 및 프로그램 진행, 말벗 이웃, 말벗 산책, 편지나눔 교류 등 특화 프로그램 진행
포항문화재단	포항시민, 중장년, 취약계층, 청소년	문화와 복지 연계를 통한 대상 발굴, 예술을 매개로 복지와 결합한 지역사회 돌봄 관계 형성 프로젝트 ‘문화로 만드는 마니또’ 추진, ‘활동가’ 양성교육을 통한 참여자의 활동가로의 전환 등 진행

조직명	주요 대상	주요 내용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창원시민,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이주노동자	돌봄활동가 양성, 문화로 돌봄 활동 추진, 마중물 프로그램 운영 등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시민, 시니어, 이주 배경 청소년, 한센인, 고려인, 장애인, 청년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특화 대상 프로그램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문화를 통한 지역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지역주민 발굴 및 치유

#### ○ 관련 기관별 역할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총괄 관리 및 감독, 예산 확보 및 배정, 정책방향 수립 및 협력체계 마련을 담당
- 지역문화진흥원은 전체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총괄, 지역거점센터 운영지원 및 성과분석, 사업성과 확산 및 협력 네트워크 확대 지원 등을 담당
- 지역거점센터와 협력센터는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사회적 처방 프로세스 계획 및 운영, 성과관리 및 외로움 인식제고 홍보 등을 담당



[그림 3-1]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추진 체계

## 2. 운영 현황

### 1) 2024년 추진 현황

#### (1) 참여자 수

- 2024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에 참여한 전체 참여자 수는 18,289명
  - 프로그램별 참여자는 마중물 프로그램 5,563명, 맞춤형 프로그램 10,303명, 인문상담 2423명임

〈표 3-6〉 참여자 수

참여유형	서울	충남	강원A	강원B	전북	전남	경북	경남A	경남B	합계
마중물	161	1,920	1,430	120	232	83	292	397	928	5,563
맞춤형	1,300	1,456	1,730	897	367	1,283	405	1,722	1,143	10,303
인문상담	216	885	104	180	70	54	33	785	96	2,423
합계	1,677	4,261	3,314	1,197	669	1,420	730	2,904	2,167	18,289

#### (2) 프로그램

- 2024년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에서는 총 22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프로그램 운영 횟수는 1,057회임
  -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마중물 프로그램 수 53개, 운영횟수 123회, 맞춤형 프로그램 수 176개, 운영횟수 934회임

〈표 3-7〉 프로그램 수 및 운영 횟수

구분		서울	충남	강원A	강원B	전북	전남	경북	경남A	경남B	합계
마중물	프로그램 수	7	7	8	2	1	2	7	2	17	53
	운영 횟수	7	28	12	3	4	6	25	6	32	123
맞춤형	프로그램 수	25	26	55	5	10	8	5	24	18	176
	운영 횟수	100	160	307	78	30	38	20	138	63	934
계	프로그램 수	32	33	63	7	11	10	12	26	35	229
	운영 횟수	107	188	319	81	34	44	45	144	95	1,057

#### (3) 인문상담

- 인문상담의 경우, 전체 2,423명이 인문상담 프로그램에서 상담을 받았으며, 상담자로 참여한 인력은 68명으로 나타남
  - 기관별로 상담받은 사례를 분류해 보면 지역거점센터 1,243명, 운영거점센터 115명, 협력네트워크 1,065명임

〈표 3-8〉 인문상담 피상담자 수

구분	서울	충남	강원A	강원B	전북	전남	경북	경남A	경남B	합계
지역거점	0	621	0	20	0	2	0	600	0	1,243
운영거점	0	0	0	0	0	0	0	34	81	115
협력네트워크	216	264	104	160	70	52	33	151	15	1,065
합계	216	885	104	180	70	54	33	785	96	2,423

○ 상담전문인력은 지역거점센터나 운영거점센터에 위치한 경우와 협력네트워크에 위치한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남

- 지역거점 16명, 운영거점 19명, 협력네트워크 33명이 상담자로 참여함

〈표 3-9〉 인문상담 전문인력 수

구분	서울	충남	강원A	강원B	전북	전남	경북	경남A	경남B	합계
지역거점	8	3	0	3	0	0	0	2	0	16
운영거점	0	6	0	0	0	0	0	0	13	19
협력네트워크	10	8	5	1	2	2	3	52	2	33
합계	18	17	5	4	2	2	3	54	15	68

#### (4) 협력 네트워크

○ 2024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총 406개임

- 이 가운데 지역거점은 9개, 운영거점 11개, 협력네트워크 참여기관은 386개임
- 협력네트워크 참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기관, 의료보건 기관, 상담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매우 다양

〈표 3-10〉 협력네트워크 수

구분	지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합계
	지역 거점	운영 거점	자체	사회 복지	의료 보건	상담	교육	시민 단체	문화 예술	개인	기타	
서울	1	4	2	6	2	6	14	0	35	0	10	80
충남	1	3	40	20	5	2	0	7	21	3	0	102
강원A	1	3	5	1	1	2	1	6	0	35	1	56
강원B	1	0	1	2	1	1	0	0	1	0	0	7
전북	1	0	1	7	0	3	0	0	15	0	0	27
전남	1	0	8	3	4	1	2	1	9	0	2	31
경북	1	0	4	10	0	2	0	0	3	2	0	22
경남A	1	1	2	10	0	6	0	3	2	27	2	54
경남B	1	0	4	6	2	2	0	2	7	0	3	27
합계	9	11	67	65	15	25	17	19	93	67	18	406

○ 협력기관 간 회의는 총 457회 진행

〈표 3-11〉 협력회의 수

구분	서울	충남	강원A	강원B	전북	전남	경북	경남A	경남B	합계
사전회의	0	36	20	12	7	13	6	10	25	129
운영회의	134	3	4	46	7	0	82	36	16	328
합계	134	39	24	58	14	13	88	46	41	457

(5) 운영 인력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인원은 사업 운영 부문 57명, 인문상담 부문 68명, 프로그램 운영 부문 445명임

- 사업운영 부문 관련해서는 지역거점 40명, 운영거점 17명이 활동함

〈표 3-12〉 사업 운영 인력 수

구분	서울	충남	강원A	강원B	전북	전남	경북	경남A	경남B	합계
지역거점	8	3	6	4	2	5	4	3	5	40
운영거점	5	6	5	0	0	0	0	1	0	17
합계	13	119	11	4	2	5	4	4	5	57

- 프로그램 운영부문은 지역거점 35명, 운영거점 79명, 협력네트워크 331명 활동

〈표 3-13〉 프로그램 운영 인력 수

구분	서울	충남	강원A	강원B	전북	전남	경북	경남A	경남B	합계
지역거점	8	3	5	4	2	2	4	2	5	35
운영거점	5	6	5	0	0	0	6	0	57	79
협력네트워크	109	110	38	10	2	3	12	28	19	331
합계	122	119	48	14	4	5	22	30	81	445

2) 예산

○ 2024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예산은 총 1,718백만원으로 2023년 대비 33.7% 증가

〈표 3-14〉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예산	290	1,285	1,718

## 1. 성과지표

### 1) 성과지표의 의미

- 성과지표는 조직이나 개인의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도구
-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 2) 성과지표 개발의 목적

-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 성과지표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 감소, 사회적 관계 형성, 정신 건강 개선 등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증명
  -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제공
  - 프로그램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 성과지표를 분석하여,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은 개선하거나 중단 가능
  -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책 결정의 근거 제공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 관련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더 나은 정책 개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성과지표를 통해 다양한 정책 중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효과적 정책 추진 지원
- 기관의 투명성 확보
  - 성과지표를 통해 프로그램의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외부로부터의 신뢰와 지지 확보

- 정부 기관이나 후원 단체의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기여

#### ○ 직원 동기 부여

- 명확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목표 의식 고취와 동기 부여
- 자신의 노력이 프로그램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향상

### 3) 성과지표 모형

#### ○ 지표 개발 모형

- 성과지표 모형은 핵심성과지표 모형(Key Performance Indicator Model, KPI Model)을 기반으로 개발
- 핵심성과지표 모형은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별로 적용할 수 있는데, 예컨대 재무성과 KPI, 고객만족도 KPI, 운영효율 KPI 등과 같은 사례가 나타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성과 부문을 중심으로 KPI모형을 적용하여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측정해야 할 대표지표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지표 개발
- 이어 더불어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지표도 개발. 지역거점센터 운영실태를 위한 평가지표는 논리모형에 기반하여 개발. 논리모형이란 투입, 과정·활동, 산출, 결과, 파급효과 등 프로그램 요소 사이의 인과적 연계성을 분석하여 도식화한 것으로,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원이 활동을 거쳐 어떻게 의도된 결과로 전환되었는지를 시각화하는 것임.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제시되는 내용에 따라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구분함
- 이 연구에서 실태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는 투입, 과정, 산출 지표 중심으로 검토하고 성과지표는 핵심성과지표에 기반하여 개발

####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에 적용되는 핵심성과지표 모형(Key Performance Indicator Model, KPI Model)은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이 외로움·고립감을 느끼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 고취, 사회적 연결을 통한 사회통합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지 핵심 지표를 선정하여 사업 전체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임

- 핵심성과지표(KPI)는 조직이나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핵심적인 지표를 말함. KPI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사업의 비전 및 목표 설정

-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적인 목표를 명확히 설정
-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② 핵심성과요인(Critical Success Factors, CSF) 도출

-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요소들 파악

③ 핵심성과지표(KPI) 선정

- 각 CSF에 대한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되, 중요한 KPI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너무 많은 KPI를 설정하는 것은 피해야 함
- KPI는 SMART 원칙(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bound)에 부합해야 함

④ KPI 측정 방법 및 도구 선정

- 각 KPI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도구 선정

⑤ KPI 목표 설정

- 각 KPI에 대한 목표를 수치화하여 설정

〈표 3-15〉 지표 개발의 목적

지표개발의 목적	세부 내용
평가(Assessment)	사업성과의 계량화를 통해 지역거점센터의 추진 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한다
환류(Feedback)	사업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 결과가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의 기본계획의 성과목표나 전략목표를 재조정하는 기준이 된다
비교(Comparability)	향후 다른 국가들이나 국내 지역 간 사업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발전(Advancement)	지역거점센터의 장기적 지향점과 사업 전략을 개발하는 근거가 된다

○ 성과지표 설계 방향

- 이 연구에서 지역거점센터 성과분석은 거점센터 운영 실태 분석에 기반하여 KPI에 근거 사업 전체의 성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

## 2. 성과지표 사례

### 1) 성과지표 사례

- 건강과 복지, 과학기술, 문화/예술 분야 중 본 연구와 가장 유사성이 높은 형태의 사업 9편을 선정하여, 평가모형과 평가환류, 평가특성 고찰

〈표 3-16〉 성과평가 지표 사례

분야	기관명	연구명
건강/복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평가 매뉴얼
	대한정신건강재단	정신건강증진센터 평가체계 개선 및 지표 개발 연구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평가지표 및 운영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평가 편람
과학기술	한국과학창의재단	디지털 새싹 캠프 성과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문화/예술	대전연구원	민간위탁시설 운영평가지표 개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 분석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종합성과평가

〈표 3-17〉 성과평가 지표 사례

분야	기관명	연구명
건강/복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평가 매뉴얼
	대한정신건강재단	정신건강증진센터 평가체계 개선 및 지표 개발 연구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평가지표 및 운영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평가 편람
과학기술	한국과학창의재단	디지털 새싹 캠프 성과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문화/예술	대전연구원	민간위탁시설 운영평가지표 개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 분석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종합성과평가

〈표 3-18〉 국내 성과 평가 지표 사례

분야	연구명	평가목적	평가모형																		
건강	김기웅 외(2018), 치매안심센터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	치매안심센터 지표개발과 성과평가 체계 마련을 통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div>지표 총 242개</div> <table><tr><th>평가영역</th><th>평가항목</th></tr><tr><td rowspan="5">경영관리(38)</td><td>인적자원(20)</td></tr><tr><td>조직(4)</td></tr><tr><td>예산(2)</td></tr><tr><td>시설 및 환경(4)</td></tr><tr><td>시스템(6)</td></tr><tr><td rowspan="7">사업관리 (204)</td><td>서비스 품질(2)</td></tr><tr><td>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td></tr><tr><td>치매 조기진단</td></tr><tr><td>치매 예방관리</td></tr><tr><td>치매 치료 및 돌봄 지원</td></tr><tr><td>치매 가족지원</td></tr><tr><td>치매 인식개선</td></tr><tr><td colspan="2">지역사업 자원 연계</td></tr></table> <div><p>[평가특성]</p><p>평가대상기관(256개소)을 대상으로 매년 1월~6월 중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며, 실적평가와 현장평가로 실시</p><p>[평가체계]</p><p>(치매안심센터)성과보고서 작성하여 광역치매센터에 제출→(광역치매센터) 성과보고서 취합·검토 후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 제출→ (실태조사단) 현장 평가 및 컨설팅 시행, 현장평가 보고서 작성</p><p>*실태조사단 구성</p><p>·광역치매센터, 시도공무원, 유관전문가 또는 중앙치매센터(총2인 이상)</p></div>	평가영역	평가항목	경영관리(38)	인적자원(20)	조직(4)	예산(2)	시설 및 환경(4)	시스템(6)	사업관리 (204)	서비스 품질(2)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조기진단	치매 예방관리	치매 치료 및 돌봄 지원	치매 가족지원	치매 인식개선	지역사업 자원 연계	
평가영역	평가항목																				
경영관리(38)	인적자원(20)																				
	조직(4)																				
	예산(2)																				
	시설 및 환경(4)																				
	시스템(6)																				
사업관리 (204)	서비스 품질(2)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조기진단																				
	치매 예방관리																				
	치매 치료 및 돌봄 지원																				
	치매 가족지원																				
	치매 인식개선																				
지역사업 자원 연계																					

분야	연구명	평가목적	평가모형																
건강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6),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평가 매뉴얼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의 운영원리에 기반한 사업 운영 성과 파악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 독려	지표 총 9개 <table><tr><th>평가영역</th><th>평가항목</th></tr><tr><td rowspan="3">인프라</td><td>인력배치의 적절성</td></tr><tr><td>사업비 투입의 적절성</td></tr><tr><td>상근인력의 역량강화 노력</td></tr><tr><td>지역사회 현황 파악</td><td>지역사회 건강관련 문제 분석의 적절성</td></tr><tr><td>지역사회 협력자원 파악의 적절성</td></tr><tr><td>사업 수행 및 활성화</td><td>사업운영의 적절성</td></tr><tr><td>주민참여</td><td>참여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활동 사례</td></tr><tr><td>지역 자원 협력</td><td>지역자원과의 협력을 통한 우수 사업 사례</td></tr></table>	평가영역	평가항목	인프라	인력배치의 적절성	사업비 투입의 적절성	상근인력의 역량강화 노력	지역사회 현황 파악	지역사회 건강관련 문제 분석의 적절성	지역사회 협력자원 파악의 적절성	사업 수행 및 활성화	사업운영의 적절성	주민참여	참여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활동 사례	지역 자원 협력	지역자원과의 협력을 통한 우수 사업 사례	[평가특성] 평가대상기관의 운영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평가  [평가체계] (건강생활지원센터)성과보고서 작성하여 시·도 제출→(시·도) 성과보고서 취합·검토 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출→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 발원) 우수사례 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인프라	인력배치의 적절성																		
	사업비 투입의 적절성																		
	상근인력의 역량강화 노력																		
지역사회 현황 파악	지역사회 건강관련 문제 분석의 적절성																		
지역사회 협력자원 파악의 적절성																			
사업 수행 및 활성화	사업운영의 적절성																		
주민참여	참여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활동 사례																		
지역 자원 협력	지역자원과의 협력을 통한 우수 사업 사례																		
건강	보건복지부(2014), 정신건강증진센터 평가체계 개선 및 지표개발 연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 및 지표 개발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정신보건 성과목표 달성	지표 총 22개 <table><tr><th>평가영역</th><th>평가지표</th></tr><tr><td rowspan="3">행정영역(5)</td><td>인력관리(3)</td></tr><tr><td>운영위원회(1)</td></tr><tr><td>회계관리(1)</td></tr><tr><td>클라이언트 영역(3)</td><td>서비스 환경 및 시설(1)</td></tr><tr><td>이용자의 권리(2)</td></tr><tr><td rowspan="5">사업 영역(14)</td><td>중증정신질환(4)</td></tr><tr><td>자살예방(3)</td></tr><tr><td>정신건강증진(2)</td></tr><tr><td>아동청소년(2)</td></tr><tr><td>중독관리(3)</td></tr></table>	평가영역	평가지표	행정영역(5)	인력관리(3)	운영위원회(1)	회계관리(1)	클라이언트 영역(3)	서비스 환경 및 시설(1)	이용자의 권리(2)	사업 영역(14)	중증정신질환(4)	자살예방(3)	정신건강증진(2)	아동청소년(2)	중독관리(3)	[평가특성]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광역정 신건강증진센터로 구분하여 구성  [평가체계] 기본적 질 관리 영역과 지역적 특성화 영역으로 구분하여 방문평가 및 현장 컨설팅 진행
평가영역	평가지표																		
행정영역(5)	인력관리(3)																		
	운영위원회(1)																		
	회계관리(1)																		
클라이언트 영역(3)	서비스 환경 및 시설(1)																		
이용자의 권리(2)																			
사업 영역(14)	중증정신질환(4)																		
	자살예방(3)																		
	정신건강증진(2)																		
	아동청소년(2)																		
	중독관리(3)																		

분야	연구명	평가목적	평가모형													
복지	사회보장정보원(2018),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시설 및 환경을 점검 및 관리하고 직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여 질 높은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지표 총 30개 <table><tr><th>평가영역</th><th>평가항목</th></tr><tr><td>시설 및 환경</td><td>편의시설의 적절성, 안전관리 등(4)</td></tr><tr><td>재정 및 조직운영</td><td>회계의 투명성 등(3)</td></tr><tr><td>인적자원관리</td><td>직원의 근속률, 직원교육 등(8)</td></tr><tr><td>이용자의 권리</td><td>이용자의 비밀보장 등(2)</td></tr><tr><td>지역사회관계</td><td>외부자원 개발, 자원봉사자 관리 등(3)</td></tr></table>	평가영역	평가항목	시설 및 환경	편의시설의 적절성, 안전관리 등(4)	재정 및 조직운영	회계의 투명성 등(3)	인적자원관리	직원의 근속률, 직원교육 등(8)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의 비밀보장 등(2)	지역사회관계	외부자원 개발, 자원봉사자 관리 등(3)	<p>[평가특성]</p> <p>서울시, 광역시, 도로 구분하여 배점 달리하였으며 세부지표별 평가항목, 목표, 내용,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 주요지침을 상세히 작성</p> <p>[평가체계]</p> <p>총점 100점으로 평가지표와 서비스질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p>
평가영역	평가항목															
시설 및 환경	편의시설의 적절성, 안전관리 등(4)															
재정 및 조직운영	회계의 투명성 등(3)															
인적자원관리	직원의 근속률, 직원교육 등(8)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의 비밀보장 등(2)															
지역사회관계	외부자원 개발, 자원봉사자 관리 등(3)															
복지	서해정 외(2013),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평가지표 및 운영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기관운영실태 및 서비스의 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지표를 개발</li><li>활동지원기관이 급여 제공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는지 지 속적으로 관리 평가할 수 있는 방안 제시</li></ul>	지표 총 51개 <table><tr><th>대분류</th><th>중분류</th></tr><tr><td rowspan="3">기관운영 및 관리</td><td>기관운영</td></tr><tr><td>인력관리</td></tr><tr><td>재무관리</td></tr><tr><td rowspan="3">서비스 제공</td><td>서비스 개시</td></tr><tr><td>서비스 수행</td></tr><tr><td>서비스 제공 결과</td></tr><tr><td>평가팀 의견</td><td>현장평가</td></tr></table>	대분류	중분류	기관운영 및 관리	기관운영	인력관리	재무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시	서비스 수행	서비스 제공 결과	평가팀 의견	현장평가	<p>[평가체계]</p> <p>종합점수(총점 100점)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4개 평가등급</p>
대분류	중분류															
기관운영 및 관리	기관운영															
	인력관리															
	재무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시															
	서비스 수행															
	서비스 제공 결과															
평가팀 의견	현장평가															

분야	연구명	평가목적	평가모형												
복지	보건복지부(2017), 지역아동센터 평가 편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및 책무성 제고</li><li>지역아동센터 역할 및 기능에 맞는 서비스의 질적 관리 강화</li><li>지역아동센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li></ul>	<p>지표 총 15개</p> <table><tr><th>대분류</th><th>중분류</th></tr><tr><td>아동권리 영역</td><td>아동권리 보장 체계 중보자 교육</td></tr><tr><td>운영기반 영역</td><td>연간사업계획서 체계성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설환경 적절성 지역사회 연계</td></tr><tr><td>프로그램 영역</td><td>보호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정서지원프로그램</td></tr><tr><td>아동개발지원 영역</td><td>아동 기본 정보관리 아동 출결관리 및 관찰기록 아동 및 보호자 상담 아동 개별서비스 지원</td></tr><tr><td>종합평가 영역</td><td>평가위원 종합평가</td></tr></table> <p>[평가특성] 평가 대상시설에 따라 배점 및 가중치 달리 부여(진입평가, 심화평가, 운영비 지원 특례시설 평가) [평가체계] 절대평가로 평가 결과 및 등급을 산출하고 A,B,C,D,미통과로 분류하여 운영비 지급</p>	대분류	중분류	아동권리 영역	아동권리 보장 체계 중보자 교육	운영기반 영역	연간사업계획서 체계성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설환경 적절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영역	보호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정서지원프로그램	아동개발지원 영역	아동 기본 정보관리 아동 출결관리 및 관찰기록 아동 및 보호자 상담 아동 개별서비스 지원	종합평가 영역	평가위원 종합평가
대분류	중분류														
아동권리 영역	아동권리 보장 체계 중보자 교육														
운영기반 영역	연간사업계획서 체계성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설환경 적절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영역	보호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정서지원프로그램														
아동개발지원 영역	아동 기본 정보관리 아동 출결관리 및 관찰기록 아동 및 보호자 상담 아동 개별서비스 지원														
종합평가 영역	평가위원 종합평가														
과학 기술	정영식 외(2023), 디지털새싹 캠프 성과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디지털새싹 캠프의 발전 방안 마련 및 디지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 위해 성과 분석</li></ul>	<p>지표 총 30개</p> <table><tr><th>대분류</th><th>중분류</th></tr><tr><td>상황 요소(6)</td><td>교육환경(2) 교육목표(2) 요구조건(2)</td></tr><tr><td>투입 요소(7)</td><td>프로그램(2) 인적자원(3) 물적자원(2)</td></tr><tr><td>과정 요소(6)</td><td>교육과정(2) 운영방법(2) 자원관리(2)</td></tr><tr><td>산출 요소(11)</td><td>학생 반응(3) 역량 변화(4) 사업효과(4)</td></tr></table> <p>[평가특성] 캠프 운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디지털새싹 캠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초 근거 자료로 활용 [평가체계] 프에 참여한 주관기관 및 프로 그램에 대해 교사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온라인평가 실시</p>	대분류	중분류	상황 요소(6)	교육환경(2) 교육목표(2) 요구조건(2)	투입 요소(7)	프로그램(2) 인적자원(3) 물적자원(2)	과정 요소(6)	교육과정(2) 운영방법(2) 자원관리(2)	산출 요소(11)	학생 반응(3) 역량 변화(4) 사업효과(4)		
대분류	중분류														
상황 요소(6)	교육환경(2) 교육목표(2) 요구조건(2)														
투입 요소(7)	프로그램(2) 인적자원(3) 물적자원(2)														
과정 요소(6)	교육과정(2) 운영방법(2) 자원관리(2)														
산출 요소(11)	학생 반응(3) 역량 변화(4) 사업효과(4)														

분야	연구명	평가목적	평가모형										
문화	김용동(2011), 민간위탁시설 운영평가지표 개발	민간위탁시설의 운영에 평가에 대한 정의와 평가 현황 분석을 통해 민간 위탁시설 운영 평가의 방향을 정립하고 민간위탁시설의 서비스 향상 도모	지표 총 28개 <table><tr><th>평가영역</th><th>평가항목</th></tr><tr><td>효율성(10)</td><td>전후 총사업비 비율, 재정자립도, 사업수지비율, 목적 사업 프로그램수, 직원 1인당 이용자수, 방문자 (이용자) 비율, 전문인력 확보율, 교육훈련비 비율, 자금운용계획(년별, 분기별, 월별) 작성 여부, 전년도 회계검사(사업비정산)결과 및 결과의 반영여부</td></tr><tr><td>효과성(5)</td><td>이용자 만족도 조사, 사업수입 목표달성도, 예산의 목표달성도, 프로그램의 사업목적 부합도, 프로그램의 적정성</td></tr><tr><td>조직혁신(7)</td><td>전문인력 보수교육 여부, 외부관련 전문가 집단 활용 여부, 외부후원금 활용의 적정성 및 체계적 관리, 관련기관 네트워크 활용여부, 민원발생 추이 및 해결노력, 조직 내 공식 및 비공식모임 활성화 여부, 시설물 홍보활동</td></tr><tr><td>공공성(6)</td><td>자체 개보수비율, 환경정비 및 시설물의 청결도, 기초시설(조명, 환기, 방충 냉난방시설) 관리상태, 위험방지시설(안전펜스, 비상구, 소방시설) 관리상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소외계층 배려, 대외봉사활동 등), 근무자 복지 증대 노력, 노사 화합 노력</td></tr></table> <p>[평가특성] 대전광역시가 민간위탁한 시설(종합복지시설, 문화레저시설, 보육시설, 시립병원, 무료이용시설 등 27개처)에 대한 평가</p> <p>[평가체계] 시설별로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대전광역시에서 평가 실시</p>	평가영역	평가항목	효율성(10)	전후 총사업비 비율, 재정자립도, 사업수지비율, 목적 사업 프로그램수, 직원 1인당 이용자수, 방문자 (이용자) 비율, 전문인력 확보율, 교육훈련비 비율, 자금운용계획(년별, 분기별, 월별) 작성 여부, 전년도 회계검사(사업비정산)결과 및 결과의 반영여부	효과성(5)	이용자 만족도 조사, 사업수입 목표달성도, 예산의 목표달성도, 프로그램의 사업목적 부합도, 프로그램의 적정성	조직혁신(7)	전문인력 보수교육 여부, 외부관련 전문가 집단 활용 여부, 외부후원금 활용의 적정성 및 체계적 관리, 관련기관 네트워크 활용여부, 민원발생 추이 및 해결노력, 조직 내 공식 및 비공식모임 활성화 여부, 시설물 홍보활동	공공성(6)	자체 개보수비율, 환경정비 및 시설물의 청결도, 기초시설(조명, 환기, 방충 냉난방시설) 관리상태, 위험방지시설(안전펜스, 비상구, 소방시설) 관리상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소외계층 배려, 대외봉사활동 등), 근무자 복지 증대 노력, 노사 화합 노력
평가영역	평가항목												
효율성(10)	전후 총사업비 비율, 재정자립도, 사업수지비율, 목적 사업 프로그램수, 직원 1인당 이용자수, 방문자 (이용자) 비율, 전문인력 확보율, 교육훈련비 비율, 자금운용계획(년별, 분기별, 월별) 작성 여부, 전년도 회계검사(사업비정산)결과 및 결과의 반영여부												
효과성(5)	이용자 만족도 조사, 사업수입 목표달성도, 예산의 목표달성도, 프로그램의 사업목적 부합도, 프로그램의 적정성												
조직혁신(7)	전문인력 보수교육 여부, 외부관련 전문가 집단 활용 여부, 외부후원금 활용의 적정성 및 체계적 관리, 관련기관 네트워크 활용여부, 민원발생 추이 및 해결노력, 조직 내 공식 및 비공식모임 활성화 여부, 시설물 홍보활동												
공공성(6)	자체 개보수비율, 환경정비 및 시설물의 청결도, 기초시설(조명, 환기, 방충 냉난방시설) 관리상태, 위험방지시설(안전펜스, 비상구, 소방시설) 관리상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소외계층 배려, 대외봉사활동 등), 근무자 복지 증대 노력, 노사 화합 노력												

분야	연구명	평가목적	평가모형	
문화	양정무 외(201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지원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	<div> <div>평가영역</div> <div>평가항목</div> </div> <div>지표 총 11개</div> <div> <div>사업계획(3)</div> <div>사업추진(4)</div> <div>사업결과(4)</div> </div> <div> <div>사업추진계획(2)</div> <div>요구분석(사회적 요구, 시설의 요구)의 적절성 · 성과목표의 적절성</div> <div>프로그램 운영계획의 타당성(1)</div> <div>사업운영(2)</div> <div>사업운영의 체계성(추진체계 등) · 사업관리(모니터링)의 적절성</div> <div>프로그램 운영(2)</div> <div>프로그램 운영(내용, 방법, 예술치료사)의 타당성 · 운영단계 선정 및 관리의 적절성(전문성, 사업의지, 사업관리)</div> <div>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결과(4)</div> <div>만족도 조사 결과(사업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 임상심리검사 결과(사전/사후 분석결과) · 심층면접(FGI) 결과 · 참여 관찰 결과(사전/사후 분석 결과)</div> </div>	<p>[평가특성]</p> <p>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영역을 크게 계획, 추진, 결과로 구분하여 사업성과 분석</p> <p>[평가체계]</p> <p>사업성과 평가도구를 시설담당자용, 예술치료사용, 프로그램 참가자용으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p>

분야	연구명	평가목적	평가모형																												
문화	이상은 외(2023), 2023년 문화가 있는 날 기회사업 종합운영성과 평가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지원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	지표 총 25개																												
			<table><tr><th>평가영역</th><th>평가항목</th></tr><tr><td rowspan="5">투입(5)</td><td>기획의 적절성</td></tr><tr><td>투입 예산</td></tr><tr><td>예산 1억 원당 참여단체 수</td></tr><tr><td>사업 안내 및 홍보 계획의 충실성</td></tr><tr><td>사업별 경쟁률</td></tr><tr><td rowspan="5">활동/ 과정(5)</td><td>참여 단체 선정과정의 적정성, 합리성, 공정성</td></tr><tr><td>사업별 주관기관/운영단체의 적극성, 전문성</td></tr><tr><td>프로그램/행사 계획의 적절성</td></tr><tr><td>프로그램/행사 안내 및 홍보의 충실성</td></tr><tr><td>프로그램/행사 현장 운영의 원활성</td></tr><tr><td rowspan="3">산출 (3)</td><td>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프로그램(행사) 운영실적, 이용자 수 등)</td></tr><tr><td>프로그램/행사 내용의 우수성</td></tr><tr><td>정책 수혜자 만족도(이용자, 참여단체)</td></tr><tr><td rowspan="12">성과(12)</td><td>심리적 긍정 효과 제고</td></tr><tr><td>문화에 대한 이해/관심도 제고</td></tr><tr><td>문화기관/단체에 대한 관심 제고</td></tr><tr><td>지역문화활동 다양성/접근성 기여도</td></tr><tr><td>문화 향유 관심 제고</td></tr><tr><td>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 기여도</td></tr><tr><td>개별 사업 성과 기여도</td></tr><tr><td>문화사업 추진 역량 강화 기여도</td></tr><tr><td>문화활동 지속성 확보 기여도(인지적, 경제적, 네트워크 확보 등)</td></tr><tr><td>참여시설 활성화 제고 기여도</td></tr><tr><td>참여시설 이용자 확보 기여도</td></tr><tr><td>개별 사업 성과 기여도</td></tr></table>	평가영역	평가항목	투입(5)	기획의 적절성	투입 예산	예산 1억 원당 참여단체 수	사업 안내 및 홍보 계획의 충실성	사업별 경쟁률	활동/ 과정(5)	참여 단체 선정과정의 적정성, 합리성, 공정성	사업별 주관기관/운영단체의 적극성, 전문성	프로그램/행사 계획의 적절성	프로그램/행사 안내 및 홍보의 충실성	프로그램/행사 현장 운영의 원활성	산출 (3)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프로그램(행사) 운영실적, 이용자 수 등)	프로그램/행사 내용의 우수성	정책 수혜자 만족도(이용자, 참여단체)	성과(12)	심리적 긍정 효과 제고	문화에 대한 이해/관심도 제고	문화기관/단체에 대한 관심 제고	지역문화활동 다양성/접근성 기여도	문화 향유 관심 제고	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 기여도	개별 사업 성과 기여도	문화사업 추진 역량 강화 기여도	문화활동 지속성 확보 기여도(인지적, 경제적, 네트워크 확보 등)
평가영역	평가항목																														
투입(5)	기획의 적절성																														
	투입 예산																														
	예산 1억 원당 참여단체 수																														
	사업 안내 및 홍보 계획의 충실성																														
	사업별 경쟁률																														
활동/ 과정(5)	참여 단체 선정과정의 적정성, 합리성, 공정성																														
	사업별 주관기관/운영단체의 적극성, 전문성																														
	프로그램/행사 계획의 적절성																														
	프로그램/행사 안내 및 홍보의 충실성																														
	프로그램/행사 현장 운영의 원활성																														
산출 (3)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프로그램(행사) 운영실적, 이용자 수 등)																														
	프로그램/행사 내용의 우수성																														
	정책 수혜자 만족도(이용자, 참여단체)																														
성과(12)	심리적 긍정 효과 제고																														
	문화에 대한 이해/관심도 제고																														
	문화기관/단체에 대한 관심 제고																														
	지역문화활동 다양성/접근성 기여도																														
	문화 향유 관심 제고																														
	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 기여도																														
	개별 사업 성과 기여도																														
	문화사업 추진 역량 강화 기여도																														
	문화활동 지속성 확보 기여도(인지적, 경제적, 네트워크 확보 등)																														
	참여시설 활성화 제고 기여도																														
	참여시설 이용자 확보 기여도																														
	개별 사업 성과 기여도																														
			<div>[평가특성]</div> <div>투입-활동/과정-산출-성과-성과 등 논리모형에 근거하여 사업추진단계별 성과를 파악 [평가체계]</div> <div>수혜자의 경우 설문평가, 전문가의 경우 서면/현장평가를 각각 실시한 후하여 데이터 분석 및 종합 평가</div>																												

## 2) 시사점

### (1) 논리 모형 적용 가능성

- 대부분 현재 우리나라 정부업무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성과측정모형으로 Logic Model(논리모형, 투입-과정/활동-성과)을 적용하고 있음
- 특히 건강복지 분야 관련 기관(시설) 및 문화분야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평가는 대개 시설의 존립 근거인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조직, 교육훈련, 예산, 시설 및 환경, 시스템, 서비스 품질 등 경영관리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 ‘문화로사회연대 지역거점센터’ 사업은 2022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올해가 3년차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명 변경이나 사업추진체계 마련 등이 올해 이루어져 사실상 초기 사업의 단계를 뚫
- 지역거점센터에 지급되는 보조금도 시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업비에만 투입이 가능하므로 기존 건강복지 분야 관련 기관·시설 및 문화기반시설과 같이 인적자원, 조직, 교육훈련, 시설 및 환경, 시스템 등에 예산 투입이 불가한 측면이 있음
- 일반적으로 사업 초기에는 사업 참여단체가 투입 인력이나 시설, 예산 등 투입 지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대체로 미비한 경우가 많고, 사업 성과나 결과에 대한 성취 수준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성과지표 체계를 구상함에 있어 투입 및 성과 지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움

### (2) 성과지표 개발 방식의 차이

- 성과지표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은 지표체계 구성에서 논리모형을 따라 투입-과정-산출-성과 단계를 구분하고 성과를 최종 영역에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핵심성과지표(KPI) 중심으로 성과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한 성과 지표를 구성하는 경우도 나타남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같은 실태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사업 전체 성과는 그 영역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기보다 핵심성과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런 점에서 거점센터의 경우 사업 전체 성과지표와는 구분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이와 별도로 사업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함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논리모형에 따라 성과분석을 실시

하기보다는,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이에 기반하여 사업운영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임

- 사업성과지표는 이 사업이 목적하고 있는 바를 중심으로 한 대표 지표 중심으로 핵심지표를 설정하여 분석

### (3) 운영실태 평가 지표와 성과지표 분리

-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한편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거점운영센터를 대상으로는 운영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사업 성과는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방향이 적절함
- 거점운영센터 실태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는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투입, 과정, 산출 영역을 평가하고, 사업 운영성과는 사업 목적과 운영 과정에서의 강조점 등을 분석, 핵심성과지표 모형을 적용하여 지표 개발

## 1. 고려 사항

### 1) 성과 측정 단위

- 공모사업의 경우, 성과는 사업 전체의 성과를 측정하는 경우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연구는 거점센터 운영성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거점센터의 운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다만, 지역거점센터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보다는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 전체 운영성과와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이 시범사업을 제외하고 2년차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사업 전체의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사업 방향성과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전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지역거점센터 운영실태를 측정하는 지표는 사업 초기단계인 만큼 개별 거점센터들의 운영 결과에 대한 측정과 더불어 사회적 처방과 관련된 인식 제고나 환경 구축에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표 개발
- 다른 한편으로 사업 전체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는 별도로 개발하여 측정

### 2) 측정 성과 성격

- 운영 실태분석은 크게 운영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운영 결과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논리모형에 기반하여 개발된 지표에 기반하여 측정
-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단계에서의 제 측면들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마련, 운영되어야 하므로, 논리모형에서는 이처럼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을 지표에 반영
- 사업 전체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같이 제반 운영 차원과 관련된 지표를 포함하여 측정, 분석하기보다는 사업 목적과 관련하여 이 사업이 얼마만큼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논리모형보다는 사업 목적에 기반하여 성과지점들을 구체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발

- 사업 성과지표는 사업목적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그러한 목적이 얼마나 사업을 통하여 구현되었는지에 초점을 두어 개발

### 3) 사업 단계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2022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래, 2023년 5개소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24년 명칭을 변경하여 9개 지역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
- 해외를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처방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건강, 고립 등과 관련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지역거점센터에 대한 성과측정은 기존에 안정된 기관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한 성과지표나 지속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수행해 왔던 성과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이런 맥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거점센터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이를 추진하는 과정, 절차 등을 숙지하고 이를 활동에 반영시키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바, 거점센터 운영성과는 실태 분석을 위한 평가 지표에서 개발하여 사업 운영의 성과 그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울인 노력(환경 조성 및 인식제고 등 포함) 등을 반영하는 지표를 포함하여 개발, 측정

## 2. 2024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성과지표 체계

### 1) 지역거점센터 운영평가 지표

- 지역거점센터 운영평가 지표 체계는 논리모형에 기반하여 투입-과정-산출 3영역으로 구성
  - 투입 영역은 사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성과, 투입된 인력 규모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측정
  - 과정 영역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인문상담과 상담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집행율, 홍보 차원을 중심으로 구성
  - 산출 영역은 대상자 발굴, 이용자 참여(참여자 수, 만족도), 네트워킹 활동 건수 등을 중심으로 개발
- 투입/과정과 산출의 비중을 동일하게 부과하여 산출뿐만 아니라 투입 및 과정에 대한 부분도 상세히 평가. 다만, 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투입보다는 과정에 비중을 두어

평가(투입 10%: 과정 40%). 산출은 투입+과정 평가 비중과 동일하게 50% 비중 부여

- 지역거점센터 운영이 정량지표에 의해서만 측정되지 않고, 주어진 지역 여건과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성지표 보완
  - 정성지표는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부분과 실태조사단의 정성평가에 기반해서만 평가하는 부분으로 구성
- 운영실태 평가지표 측정은 실태조사지, 설문조사, 실태조사단 현장 평가 방식 등으로 진행
  - 사업 종료 시점에 실태를 종합한 자료(실태조사지)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 운영과 관련한 최종 기초 자료 및 정보 수집
  - 수집된 자료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질적으로 사업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단 운영. 실태조사단은 개발된 성과지표 가운데 실태조사단이 점수를 부여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되, 이외에 지표에 반영되지 못하는 성과들을 질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사업 전체 성과 분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 진행
  - 설문조사는 프로그램 참여자, 협력기관, 지역거점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행. 사회연결망 조사도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일반 설문조사와 달리 심층적 답변이 필요하므로 조사원을 활용하여 측정

〈표 3-19〉 지역거점센터 운영실태 지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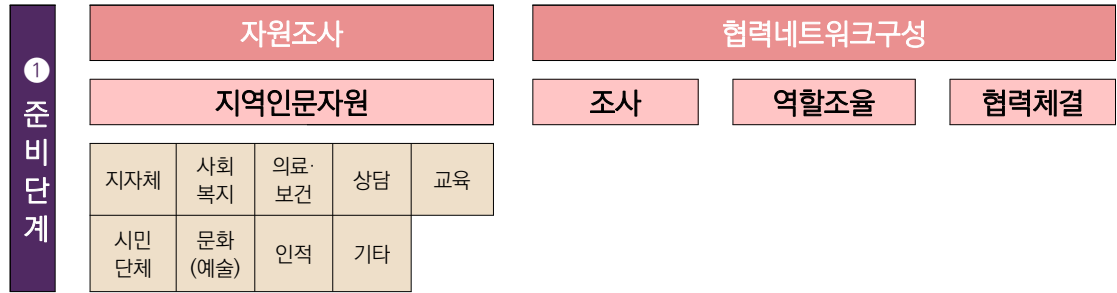
영역	평가부문	평가내용	세부 평가 지표	선정이유
투입 (10점)	인식 (5점)	사업 이해 (5점)	사업 이해 정도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기관/단체 관계자의 사업 이해 제고 노력 및 정도 파악
	인력 (5점)	인력 및 전문성 (5점)	상담 전문인력 수 (2점)	센터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상담 및 처방에 핵심 역할 수행
			투입 운영 인력 수 (3점)	사업에 참여하는 운영 인력 확보 노력 확인
과정 (40점)	협력네트워크 (15점)	협력기관 수 (8점)	협력기관 발굴 건수	다양한 자원 활용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
		협력 활동 정도 (7점)	기관 간 협력 활동 정도(정기적 활동/협력 수준 등)	서비스 질 향상, 효율성 강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요
	인문상담 (10점)	상담 건수 (5점)	상담 건수	센터 이용률 측정,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성과 측정에 필요
		상담 전문성 (5점)	상담자 전문성(3점)	이용자와의 관계 형성, 문제 해결, 이용자의 회복과 성장에 있어 상담전문성 필요
			인문상담 특성화 여부(2점)	이용자의 삶과 사회·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연결을 촉진
	프로그램 (10점)	운영 전문성 (6점)	대상 유형과 프로그램 부합도	이용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문제해결 기대 가능
		계획 대비 실행 (4점)	계획 대비 실행률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시간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신뢰도 향상
	홍보 (5점)	사업 인지도 (5점)	사업 차별성 인식 정도 (협력기관)	일반 문화향수 또는 참여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인식 중요
산출 (50점)	대상자 발굴 (10점)	대상자 발굴 노력 (10점)	마중물 프로그램 참여자 수	사업의 성공 여부, 사업의 확장가능성, 네트워크 형성, 사회적 영향력 증대를 위해 필요
	이용자 참여 (20점)	이용자 참여 결과 (20점)	프로그램 참여자 수 (사후 대상자 중 참여자 수) (10점)	센터의 필요성 및, 프로그램 효과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증명, 지속적인 지원 확보, 정책 결정에 대한 근거 제공, 센터의 성장 가능성 제시 등에 필요
			프로그램 만족도 (10점)	프로그램 개선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효과적인 운영, 프로그램의 신뢰도, 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향상에 필요
	문화 안전망 (20점)	네트워킹 정도 (20점)	협력 네트워크 연계 활동 건수(10점)	센터가 지역사회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사회 관계망 변화 정도 (협력기관)(10점)	협력기관 간 관계망이 얼마나 구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

〈표 3-20〉 지역거점센터 운영실태 지표 측정 방식

영역	평가부문	평가내용	세부 평가 지표	유형	배점	측정방식
투입 (10점)	인식	사업 이해	사업 이해 정도	정성	5	실태조사(서면)
	인력	인력 및 전문성	상담 전문인력 수	정량	2	실태조사 (서면, 현장)
			투입 운영 인력 수	정량	3	실태조사 (서면, 현장)
과정 (40점)	협력네트 워크	협력기관 수	협력기관 발굴 건수	정량	7	실태조사 (서면, 현장)
		협력 활동 정도	기관 간 협력 활동 정도 (정기적 활동/협력 수준 등)	정성	8	실태조사 (서면, 현장)
	인문 상담	상담 건수	상담 건수	정량	5	실태조사(서면)
		상담 전문성	상담자 전문성	정성	3	실태조사 (서면, 현장)
			인문상담 특성화 여부	정성	2	실태조사(현장)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대상 유형과 프로그램 부합도	정성	6	실태조사(현장)
		계획 대비 실행	계획 대비 실행률	정량	4	실태조사(서면)
	홍보	사업 인지도	사업 차별성 인식 정도 (협력기관)	정량	5	설문조사
산출 (50점)	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 노력	마중물 프로그램 참여자 수	정량	10	실태조사(서면)
	이용자 참여	이용자 참여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 수 (사후 대상자 중 참여자 수)	정량	10	실태조사(서면)
			프로그램 만족도	정량	10	설문조사
	문화 안전망	네트워킹 정도	협력 네트워크 연계 활동 건수	정량	10	실태조사 (서면, 현장)
			사회 관계망 변화 정도 (협력기관)	정량	10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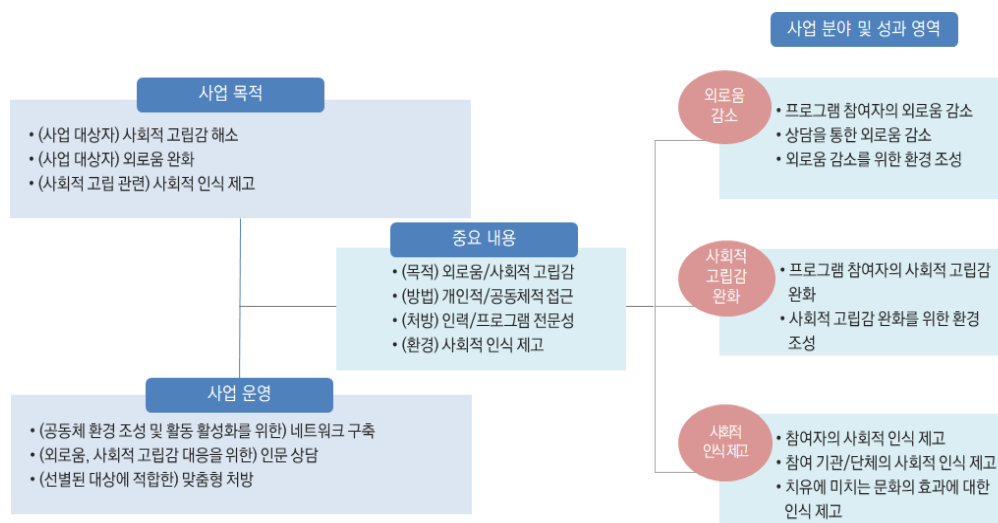
## 2) 사업 성과지표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전체의 성과는 사업 목적 및 운영 과정 분석을 통해 설정, 분석할 수 있음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목적은 동 사업을 시작한 배경 및 취지, 이 사업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기에 사업 성과 분석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검토됨
  - 운영 과정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검토된 부분들이 사업에서 강조되어 운영되어야 하므로 전체 성과 분석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함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목적은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 고취, 사회적 연결을 통한 사회통합기반 마련”임
  - 사업 목적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이 사업의 관심이 한편으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완화에 두어져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연결을 통해 사회통합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는 점임
  -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과 사회적 연결의 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두 영역을 연계하여 분석하면 사회적 연결을 통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사업을 설명하는 문구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 소개 자료에는 이 사업이 ‘문화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 ‘협력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확산’에 초점을 둔 사업임을 밝히고 있음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의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음



주요내용
<b>1</b> 지역자원 아카이빙, 협력 네트워크 구축·관리 - 참여자 협력 발굴,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주관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 구성 필수 <b>2</b> 대상발굴 - (참여자발굴) 복지, 의료, 문화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하여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참여자 발굴 - (마중물 프로그램) 참여자 발굴 및 외로움 인식제고를 위한 마중물 프로그램 기획, 운영 <b>3</b> 대상분석 및 효과측정 - (사회적연결성척도조사) 참여자 대상 <사회적 연결> 조사(지원원제공), 사업성과 및 변화 측정(사전-사후 조사) - (인문상담) 상시 상담을 위한 거점센터 전담인력 배치 또는 협력 네트워크 연계하여 필수 운영 <b>4</b> 맞춤형 사회적처방 및 매개 - (사회적처방 연계)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의 사회적 요인,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및 사회 활동, 관련 시설 연계 및 추천 <b>5</b> 외로움 예방 관련 공동 캠페인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운영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은 사업 대상자 발굴,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인문상담, 맞춤형 처방 등임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특성상 사업 대상자는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으로 특정됨. 따라서 기존 사업과 달리 이러한 사람들을 발굴하는 과제가 사업에 첫 단계에 개입됨
- 다른 한편으로 기존 사업과 달리 지역거점센터가 직접 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타 기관/단체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되게 함으로써 지역거점센터는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강조. 따라서 지역거점센터 매개 역할과 이와 관련한 협력기관 개발 및 네트워킹 활동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특성화되면서 개인의 정서, 감성 영역에 대한 관심이 기울여지면서 상담 영역 또한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 이에 따라 동 사업에 인문상담 과정을 포함시키고, 인문상담인력을 필수 배치토록 함
- 사업 대상을 선별하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조사에 참여토록 함. 특히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참여 대상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처방'을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이 다른 사업들과 관련하여 가지는 차별성으로 부각됨
  - 다른 문화사업의 경우, 사업참여 대상 선별과정 없이 특정 계층 또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됨. 따라서 이 사업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사업대상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처방'을 제공한다는 데 있음



[그림 3-2]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목적과 성과 영역

- 사업 목적과 사업 운영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업 성과는 다음과 같은 네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음
  - 문화안전망 구축: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문화안전망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지 여부
  - 고립감/외로움 완화: 사업을 통해 고립감과 외로움이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여부
  - 사회적 관계 확대/활성화: 개인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확장되었는지 여부
  - 사회적 인식 제고: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 인식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 정도
- 문화안전망 구축: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내 문화안전망 구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 문화안전망은 개인차원의 연계망보다는 위 목적과 관련한 지역내 기관/단체간 협력, 연계활동에 기반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단체간 교류나 협력활동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음
- 고립감/외로움 완화: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이 주목하는 외로움은 개인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외로움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외로움의 이유나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접근하고자 하는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과 연관된 ‘사회적 외로움’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이런 점에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이 예술치유 사업과 가지는 차별성이 부각되어 드러날 수 있음.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성과에서 고립감이나 외로움 완화는 문화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개인차원의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사회적 관계 확대/활성화: 기존에 문화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던 사업들이 주로 개인 중심, 치유 중심으로 이루어졌던데 비해 이 사업은 공동체를 통한 사회적 치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를 얼마나 활성화하였는지를 성과로 측정
- 사회적 인식 제고: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관련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업 목적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참여자들에 의도하지 않은 낙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또한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이 특정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함. 곧, 이 사업 참여기관, 단체가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프로그램 참여자가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에 대해 문화영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는지 등의 방식을 통하여 검토할 수 있음
- 사업 목적과 사업 운영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성과 영역을 구분하고 관련된 성과지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3-21〉 사업 성과지표 체계

성과 영역	지표명	선정 이유
문화안전망 구축	단체간 교류/협력 증가율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 해소와 관련한 지역 문화안전망의 핵심 기반
	단체간 교류/협력 정도	교류/협력 증가율과 함께 교류/협력의 강도 파악
고립감/외로움 완화	고립, 외로움 관련 참여자 변화 정도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고립감/외로움 변화에 미친 영향
	행복감 변화 정도	생활의 즐거움/재미 변화를 통해 고립감, 외로움 변화 간접 파악
사회적 관계 활성화	사회적 관계 확장/활성화 정도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이 미친 참여자 일상의 실제적 변화 정도 파악
사회적 인식 제고	고립, 외로움 관련 단체 인식 변화 정도	문화로사회연대 프로그램이 참여 기관/단체의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 대응 필요성 인식에 미친 영향 파악
	문화프로그램의 고립감 완화 기여 인식 정도	사업 참여 후 사회적 고립, 외로움에 미치는 문화활동 역할에 대한 인식 파악을 통해 인식 제고 효과 간접 파악

- 문화안전망 구축은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에서 구축하려고 노력한 협력네트워크의 규모와 네트워킹 활성화 정도 차원에서 분석
- 고립감/외로움 완화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고립감/외로움 변화 정도와 삶의 만족(행복감) 변화 정도를 통하여 측정. 외로움/고립감 완화는 외로움/고립감과 같은 다소 부정적인 감정의 완화뿐만 아니라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의 강화를 통하여 강화됨
- 사회적 관계 활성화는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후,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를 통하여 측정
- 사회적 인식 제고는 사업 참여 전후, 사업 참여단체의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에 대한 대응 필요성 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와 참여자가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 문제에 문화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통하여 측정

〈표 3-22〉 사업 성과지표 측정방식

성과 영역	지표명	측정	조사방식
문화안전망 구축	교류/협력 단체수 증가율	(신규 교류단체 수/기존 교류단체 수)×100	설문조사
	단체간 교류/협력 정도	사업 참여 후 참여단체간 밀도, 평균 거리 / 사업 참여 전 참여단체간 밀도, 평균 거리	연결망 조사
고립감/외로 움 완화	고립, 외로움 관련 참여자 변화 정도	사업 참여 후 고립, 외로움 인식 / 사업 참여 전 고립, 외로움 인식	설문조사
	행복감 변화 정도	사업 참여 후 삶의 즐거움 인식 / 사업 참여 전 삶의 즐거움 인식	설문조사
사회적 관계 활성화	사회적 관계 확장/활성화 정도	사업 참여 후 참여자간 밀도, 평균 거리 / 사업 참여 전 참여자간 밀도, 평균 거리	연결망 조사
사회적 인식 제고	고립, 외로움 관련 단체 인식 변화 정도	(참여단체) 사업참여 전후 사회적 고립에 대한 단체의 인식 변화 정도	설문조사
	문화프로그램의 고립감 완화 기여 인식 정도	(참여자/참여단체) 사회적 고립 대응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중요성 인식 정도	설문조사



## 제 4 장

# 2024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현황 및 운영 실태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운영 실태

제3절 거점별 운영 실태

제4절 분석



## 1. 조사의 구성

- 사업의 주요 구성원들인 지역거점센터, 협력기관, 참여자를 대상으로, 현황을 양적으로 진단하는 실태 파악 조사와, 현황의 원인과 미래를 질적으로 탐색하는 조사로 구성
  - 다만 참여자의 경우, 사업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사회적 관계 형성의 변화를 측정하는 관계망 조사를 추가로 실시

〈표 4-1〉 조사 개요

구분	지역거점센터		협력기관		참여자		
구성	양적 현황 파악 조사	질적 심층 분석 조사	양적 현황 파악 조사	질적 심층 분석 조사	양적 현황 파악 조사	사회 관계 변화 조사	질적 심층 분석 조사
방법	실태조사 설문조사	실태조사단 운영	설문조사	집단 심층인터뷰 (FGI)	설문조사		집단 심층인터뷰 (FGI)
주요 결과	운영 실태의 양적인 현황	운영 실태의 이슈 심층 분석	협력 실태의 양적인 현황	협력 실태의 이슈 심층 분석	참여 실태 파악	사업 참여 전후의 사회적 관계 변화	참여 관련 태도, 행동 심층 분석

## 2. 조사 설계

### 1) 지역거점센터

- 지역거점센터 조사는 9개 거점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센터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양적 현황 파악 조사 및 질적 심층 분석 조사를 양분화하여 실시
  - 양적 현황 파악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을 토대로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
  - 질적 심층 분석 조사는 정성/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9개 지역거점센터를 현장 방문하는 전문가 실태조사단이 거점센터의 제반 현황을 관찰, 기록, 평가하는 과정에 지역거점센터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 양적 현황 조사는 각 지역거점센터별 환경, 여건의 특성과 사업에 대한 거점센터의

주관기관 입장으로서는 평가, 사업 장애요인 등 현재의 상황을 양적으로 확정하여 그 정도를 평가하는 주안점이 있고, 질적 심층 조사는 현재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 심층적 원인의 탐색과 향후 사업의 적절한 전개 방향을 예상하는데 있음

〈표 4-2〉 지역거점센터 조사 개요

구 분	양적 현황 파악 조사	질적 심층 분석 조사
조사 대상	지역거점센터의 문화로사회연대 지원사업 지정 담당자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응답자의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	실태조사단을 통한 조사
조사 규모	9개 지역거점센터 전수 조사	
주요 조사 내용	1. 지역거점센터 특성 2. 지역 여건 3. 지원사업 만족도 재 참여 의사 4. 지원사업 측면별 난이도 5. 사업의 성과 등	1. 거점 센터의 사업 준비 환경 2. 추진 과정 및 관련 이슈 3. 사업에 대한 인식 4.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

## 2) 협력기관

- 협력기관 조사는 9개 지역거점센터와 함께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각 지역의 협력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양적 현황 파악 조사 및 질적 심층 분석 조사를 양분화하여 실시
  - 양적 현황 파악 조사는 9개 지역거점센터별 각 5개 협력기관의 담당자, 총 4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토대로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
  - 질적 심층 분석 조사는 집단 심층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하며, 협력기관의 유형을 고려하여 그룹당 4~5명씩, 총 2개 그룹(총 9명)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협력기관의 유형은, 9개 지역거점센터의 각 협력기관 유형 분포를 고려하여, 문화예술 분야, 복지/의료 분야, 상담/교육 및 시민단체로 그룹을 구성
  - 조사의 내용은 거점센터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을 확정하여 진단하는 측면의 정량적 내용과 현황의 원인을 심층 탐색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진행

〈표 4-3〉 협력센터 조사개요

구 분	양적 현황 파악 조사	질적 심층 분석 조사
조사 대상	협력기관의 문화로사회연대 지원사업 지정 담당자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응답자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집단 심층 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조사 규모	거점센터 당 5개 협력기관의 담당자 1명씩, 9개 거점센터에서 총 44명	협력기관의 유형을 고려하여 4개 유형별로 2명씩(문화예술은 3명), 총 9명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 * 협력기관 유형 사회복지/의료보건, 상담/교육, 시민단체, 문화예술

구 분	양적 현황 파악 조사	질적 심층 분석 조사
주요 조사 내용	1. 협력기관 특성 2. 지원사업 만족도 재 참여 의사 3. 지원사업 측면별 난이도 4. 사업의 성과 등	1. 사업에 대한 인식(차별성, 특징) 2. 사업 추진 현황/관련 이슈 3. 사업 추진과정 중 어려움점, 문제점 4. 사업 추진의 성과 5. 사업 발전 방향

### 3) 참여자

- 참여자 조사는 9개 거점센터별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의 양적 현황 파악 조사와 질적 심층 분석 조사를 양분화하여 실시
  - 양적 현황 파악 조사 중 개별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 관련 행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종이설문) 방식 조사 수행
  - 9개 거점센터별 각 20명씩, 총 180명을 대상으로 사업의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측정을 위한 또 다른 양적 조사는 오프라인(종이설문)의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
  - 질적 심층 분석 조사는 집단 심층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하며 온라인/오프라인 조사 병행

### 4) 연결망 조사

- 연결망 조사는 프로그램 참여자와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
- 사회연결망 분석은 공동체 연구의 주된 방법론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공동체 관련 사업의 성과 분석 등에 유용하게 활용됨
  -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은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계망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결망의 구조나 연결의 강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
  - 사회연결망 분석은 공식적이지 않은 관계망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조직 내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이점이 있음
- 연결망 분석은 참여자와 협력단체를 각각 표본 추출하여 시행

## 1.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운영 실태(협력기관)

### 1) 조사 개요

#### (1) 조사 설계

- 조사 대상 : 지역문화진흥원의 2024년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의 프로그램 참여자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지 조사
- 표본 크기 : 총 44개 기관
- 조사 기간 : 2024년 11월 25일 ~ 2024년 12월 6일

#### (2) 응답자 특성

- 조사에 참여한 협력기관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단체성격은 문화예술분야단체 36.4%, 복지분야 22.7%, 의료/상담분야 15.9%, 기타 22.7%임

〈표 4-4〉 협력기관 응답자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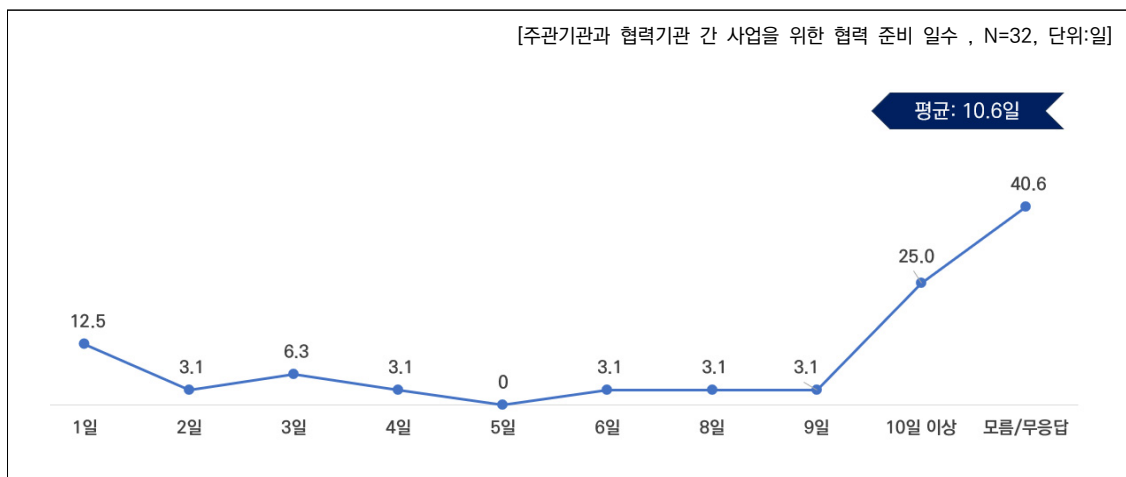
		사례수	%
전 체		(44)	100.0
거점명	강원A 지역거점센터	(10)	22.7
	강원B 지역거점센터	(8)	18.2
	전북 지역거점센터	(10)	22.7
	전남 지역거점센터	(2)	4.5
	경북 지역거점센터	(5)	11.4
	경남B 지역거점센터	(9)	20.5
지역성격	대도시 지역	(2)	4.5
	중소도시 지역	(21)	47.7
	도농 복합지역	(18)	40.9
	농산어촌 지역	(3)	6.8
단체성격	문화·예술 분야 단체	(16)	36.4
	복지 분야 단체	(10)	22.7

		사례수	%
	의료·상담분야 단체	(7)	15.9
	기타	(10)	22.7
	무응답	(1)	2.3
운영인력규모	5명 미만	(26)	59.1
	5~29명	(14)	31.8
	50~99명	(3)	6.8
	100명 이상	(1)	2.3

## 2) 조사 결과

### (1) 사업 준비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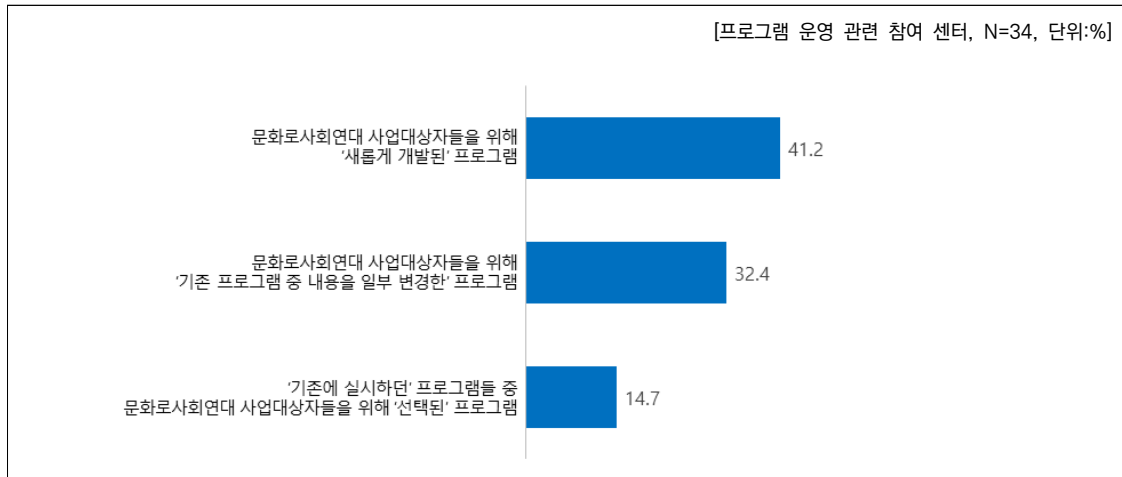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기관들은 주관기관과 사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준비과정을 평균 10.6일, 횟수로는 평균 8회 정도 가진 것으로 조사됨



[그림 4-1] 사업 준비 상호 협력 - 협력 준비 일수

## (2)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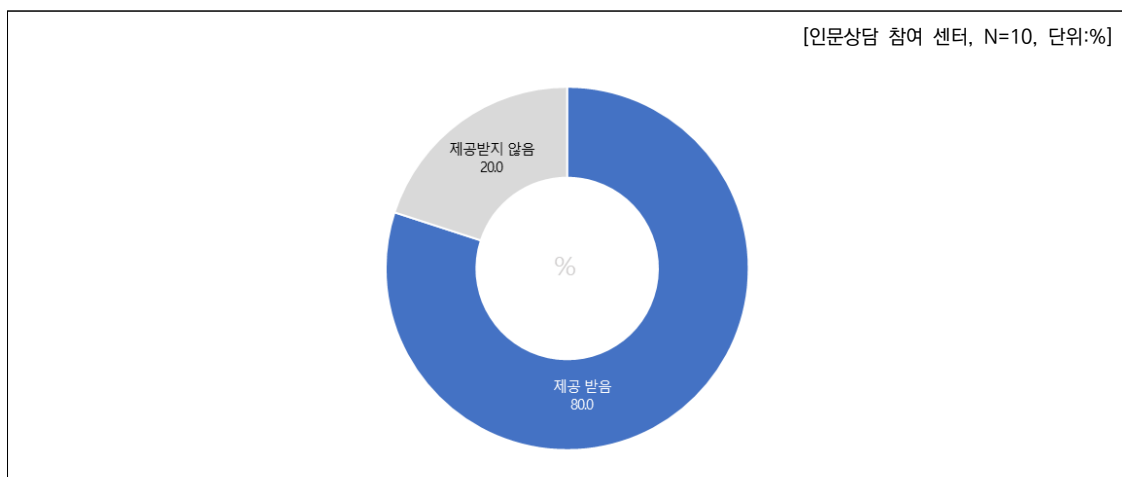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에 참여한 협력기관들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기존에 해오던 프로그램을 단순히 연계시키는 정도로 사업을 운영하기보다는 이 사업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기존 프로그램 중 이 사업을 위해 내용 일부를 변경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제공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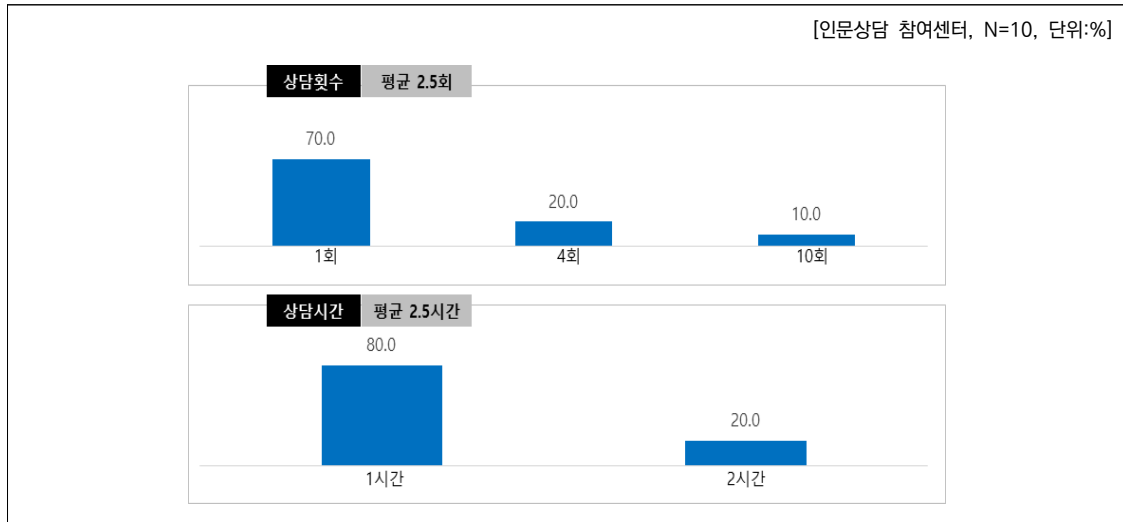
## (3) 인문상담

- 인문상담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경우, 피상담자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사업 운영기관으로부터 전달받고 상담에 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3] 인문상담 - 설문조사 결과 제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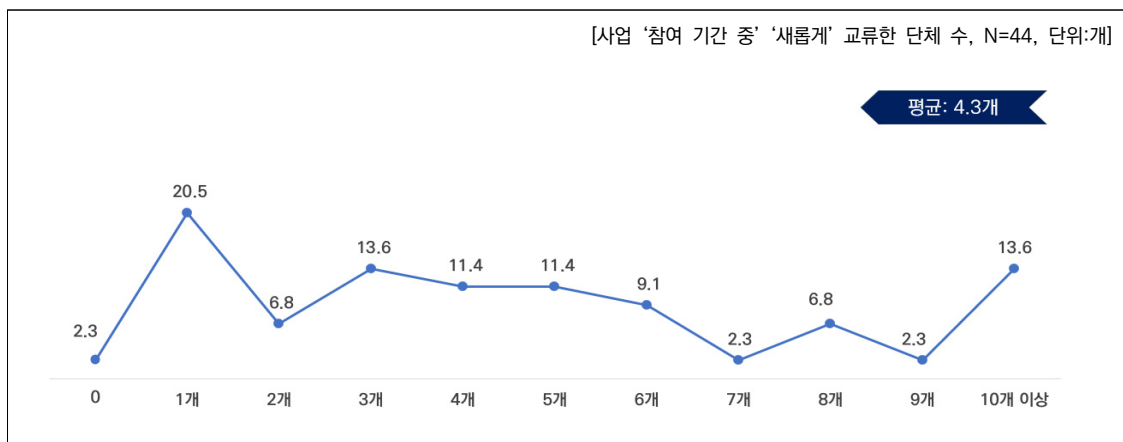
- 상담은 피상담자 1인당 평균적으로 2.5회 정도 이루어졌으며, 한 명당 평균 상담시간은 1.2시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상담 시간 및 횟수는 상담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미흡(73.3점)한 것으로 응답함



[그림 4-4] 인문상담 - 1인 당 횟수 및 상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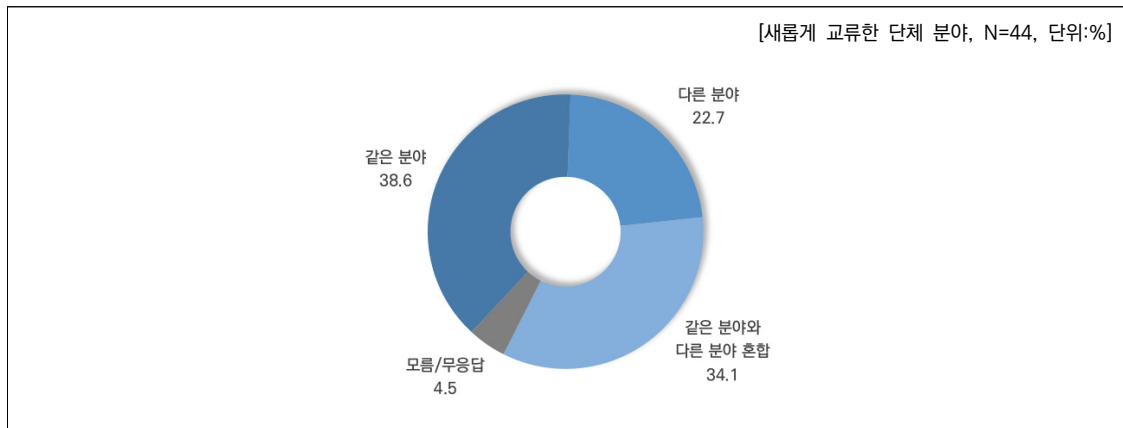
#### (4) 기관 간 교류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참여기관 간 교류에 있어 일정한 증가를 가져옴
- 사업 전 참여기관들은 평균 1기관당 13개 기관과 교류해 왔는데, 이 사업을 통하여 추가로 평균 4.3개 기관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4-5] 기관 간 교류 - 새롭게 교류한 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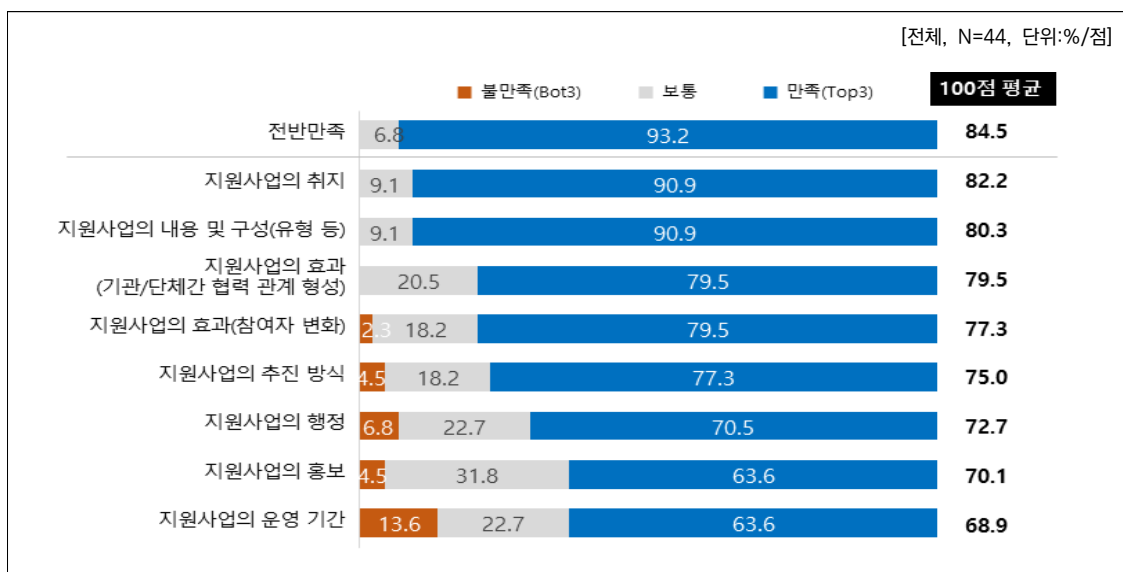
- 이렇게 새롭게 교류관계를 맺은 기관들은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관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분야와 교류한 경우도 적지 않음
- 교류한 단체가 기존에 활동하던 영역과 다른 분야인 경우(22.7%)와, 기존에 활동하던 영역과 같은 분야 단체도 있고 다른 분야 단체도 있는 경우(34.1%)를 합하면 이 사업을 통하여 56.8%의 단체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과 교류 경험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4-6] 기관 간 교류 - 새로운 교류 기관 유형

#### (5)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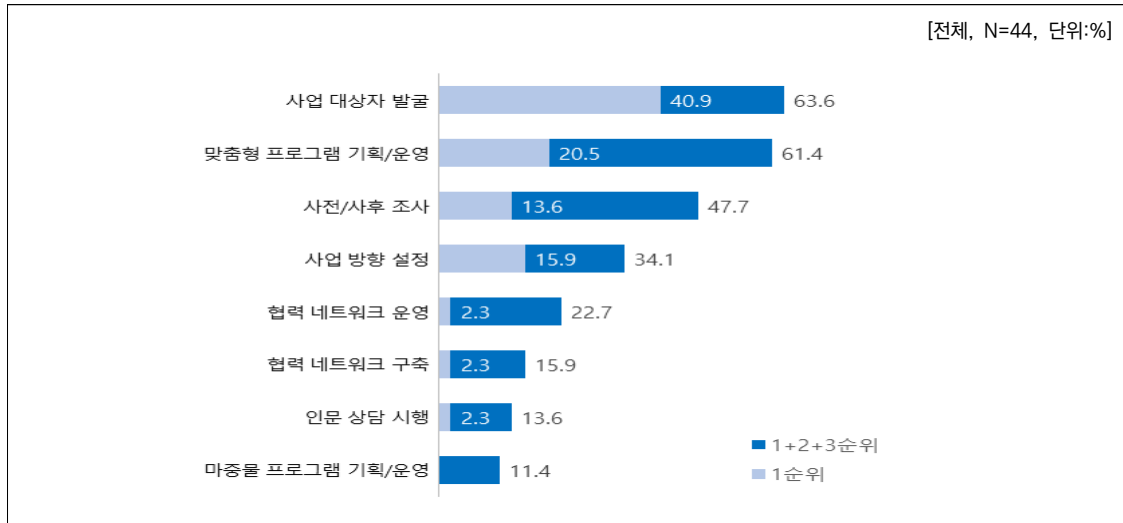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에 참여한 협력기관들의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84.5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
- 영역별로는 사업 취지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았으며, 사업내용 및 구성에 대한 만족이 그 다음을 차지함
- 이외에 기관 간 협력관계를 형성시켜 준 부분도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그림 4-7] 사업 만족도

#### (6) 사업 운영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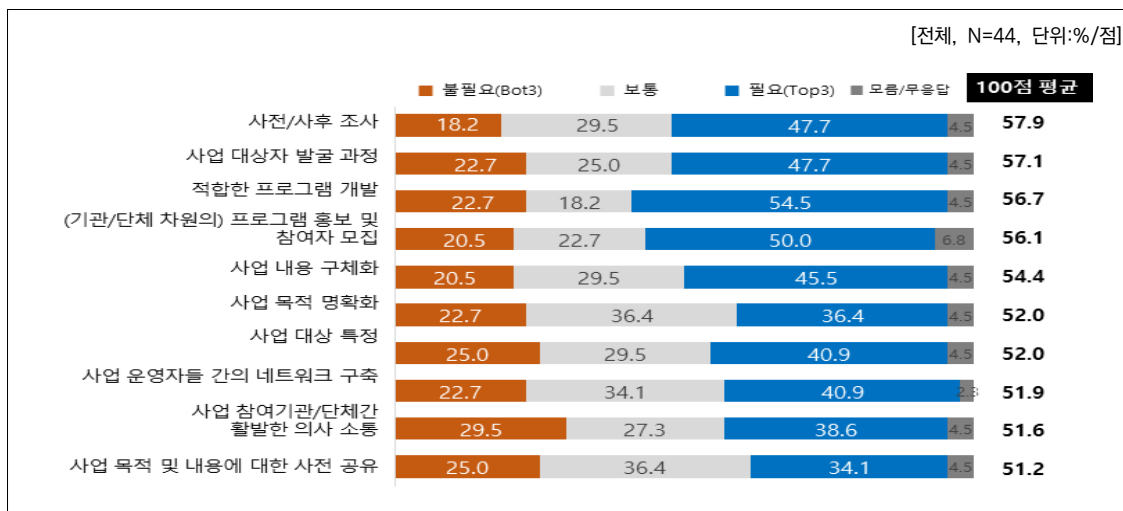
- 사업에 참여한 협력기관들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상자 발굴에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20.5%)과 사업방향 설정(15.9%), 사전/사후조사(15.9%) 순으로 파악됨(1순위 기준)



[그림 4-8] 사업운영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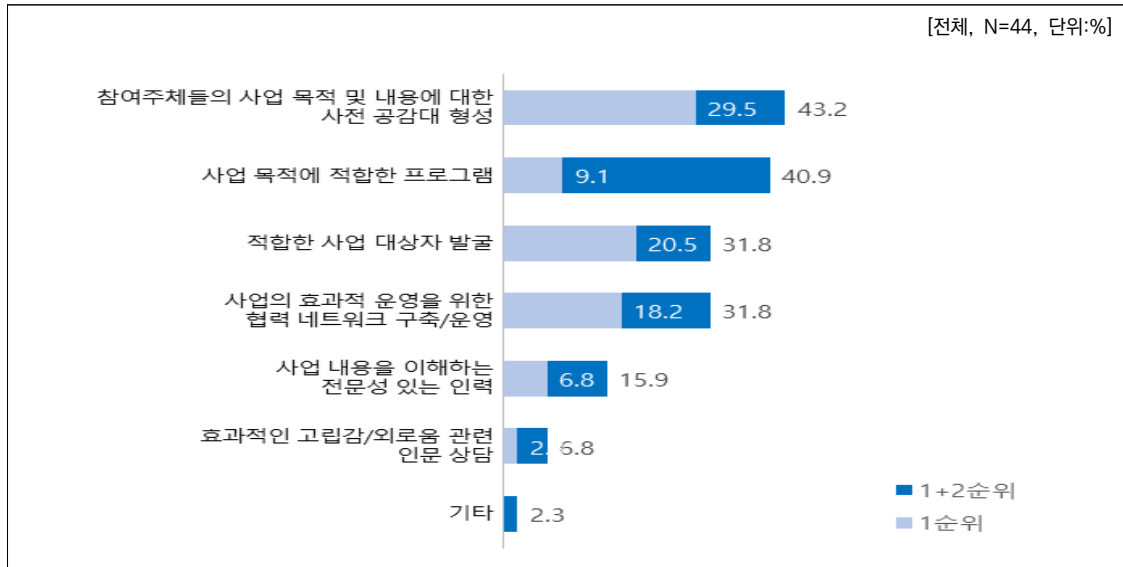
#### (7) 사업 개선 필요 사항

- 이 사업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100점 만점 기준) 사전/사후조사(57.9점) 가장 크게 지적됨
- 그 다음으로는 대상자 발굴 과정(57.1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56.7점),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56.1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4-9] 사업 개선 필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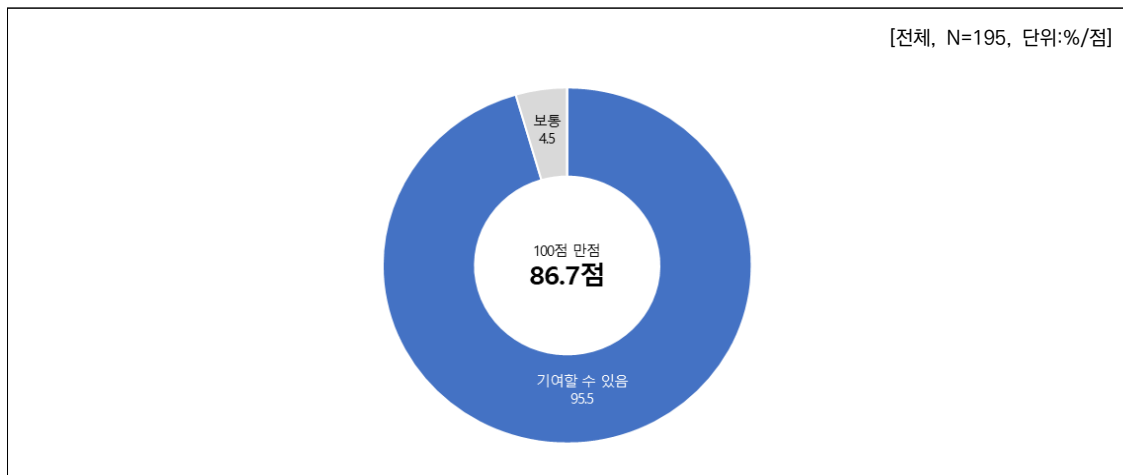
- 또한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과 관련한 문화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주체들간의 사업목적 및 내용에 대한 사전 공감대 형성(29.5%)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적합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20.5%)과 효과적 사업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18.2%)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함(1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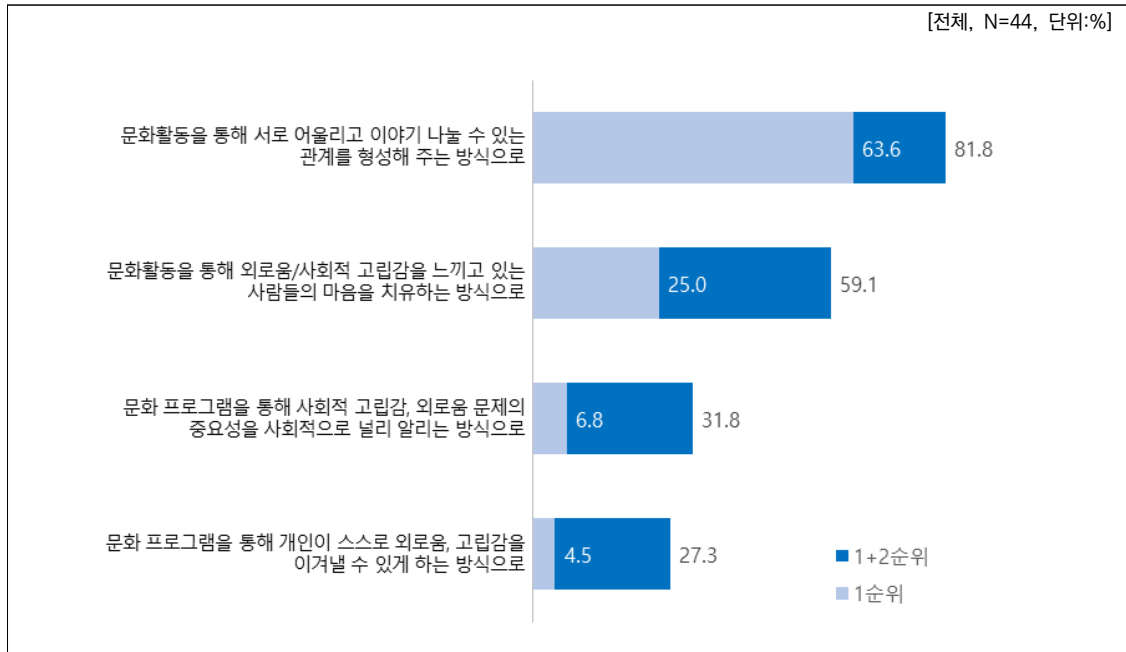
[그림 4-10]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1순위, 1+2 순위)

#### (8) 사회적 고립관련 문화의 역할에 대한 인식

- 사업에 참여한 협력기관들은 문화활동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인식이 86.7점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11] 우리 사회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관련 문화활동 기여도



[그림 4-12] 사회적 고립관련 문화적 접근방식에 대한 인식(협력기관)

## 2.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실태(참여자)

### 1) 조사 개요

#### (1) 조사 설계

- 조사 대상 : 지역문화진흥원의 2024년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의 프로그램 참여자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지 조사
- 표본 크기 : 총 195명
- 조사 기간 : 2024년 11월 25일 ~ 2024년 12월 6일

#### (2) 응답자 특성

-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4-5〉 참여자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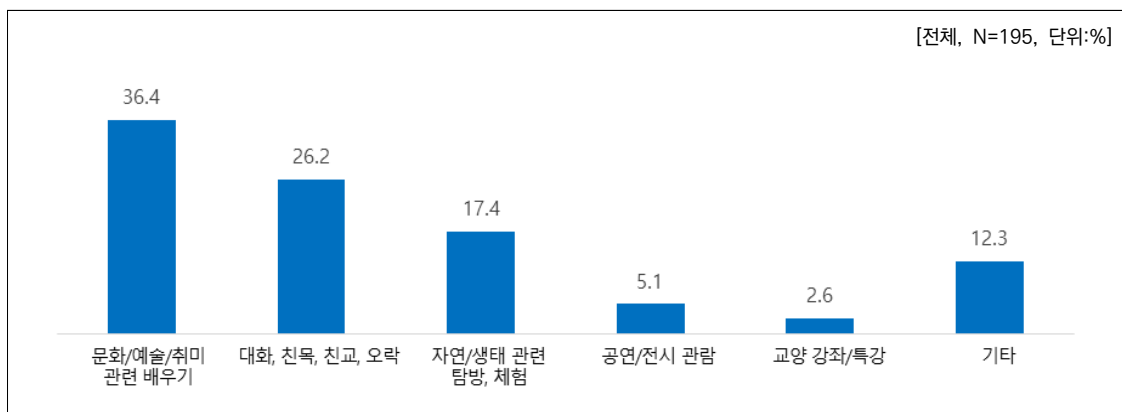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195)	100.0
성별	남자	(52)	26.7
	여자	(143)	73.3
연령	10대	(31)	15.9
	20대	(24)	12.3
	30대	(27)	13.8
	40대	(35)	17.9
	50대	(19)	9.7
	60대	(22)	11.3
	70대 이상	(37)	19.0

## 2) 조사 결과

### (1) 참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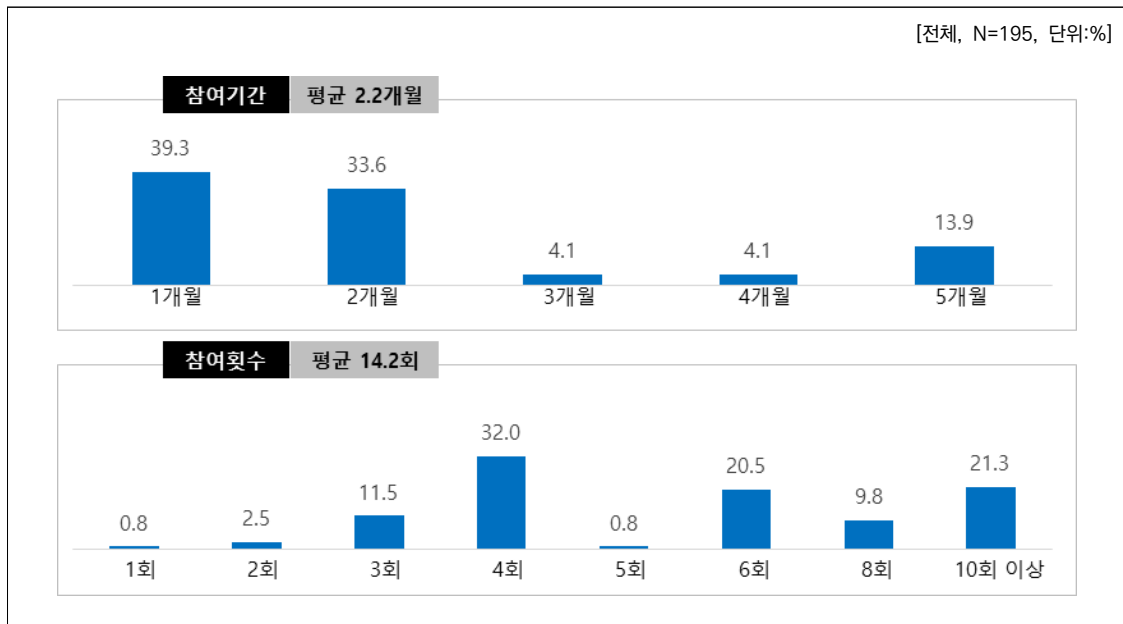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문화예술분야나 취미 관련 배우기 활동(36.4%)이었지만, 친목/오락/친교 프로그램(26.2%)이나 자연/생태 탐방(17.4%) 등도 적지 않은 비중 차지
  - 이는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 해소를 위해 운영 단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였음을 보여줌. 동시에 ‘문화’를 통한 고립감 해소를 지향하는 사업으로 ‘문화’ 개념이 매우 폭넓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13] 참여 프로그램 유형(참여자)

- 참여자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1회성 프로그램’(37.4%)보다 ‘일정 기간 진행된 프로그램’(62.6%)이 많았으며, 참여 기간은 1개월(39.3%) 또는 2개월(33.6%)이 70% 이상을 차지하였고, 참여횟수는 4회(32%)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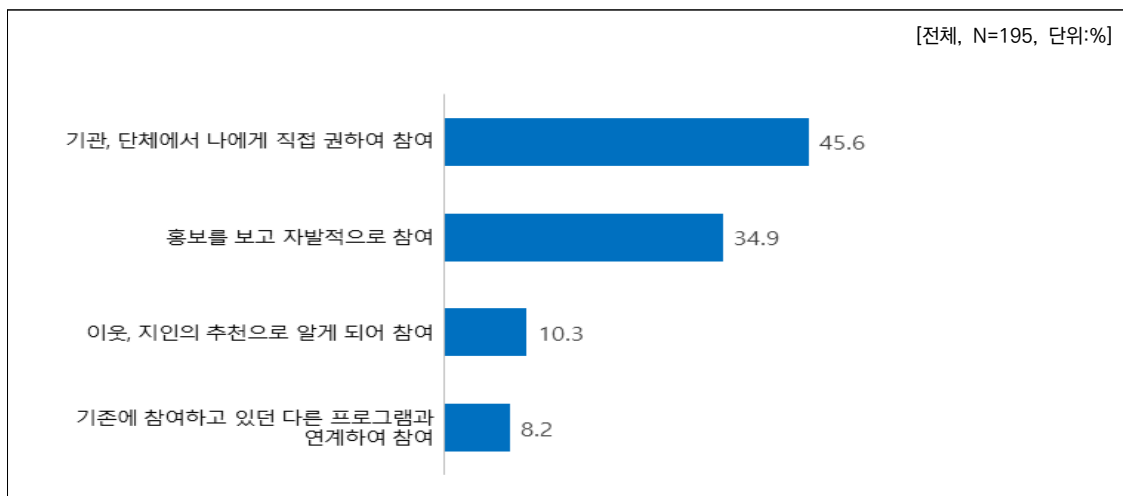
- 비록 일정 기간 진행된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였지만, 1회성 프로그램 비율도 적지 않은데, 이는 고립감과 외로움 해소를 위한 이 사업에서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를 제기함



[그림 4-14] 참여기간 및 참여 횟수(참여자)

## (2) 참여 경로 및 목적

-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기관, 단체에서 나에게 직접 권하여 참여’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기관에 의한 직접 발굴과 함께 복지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도 많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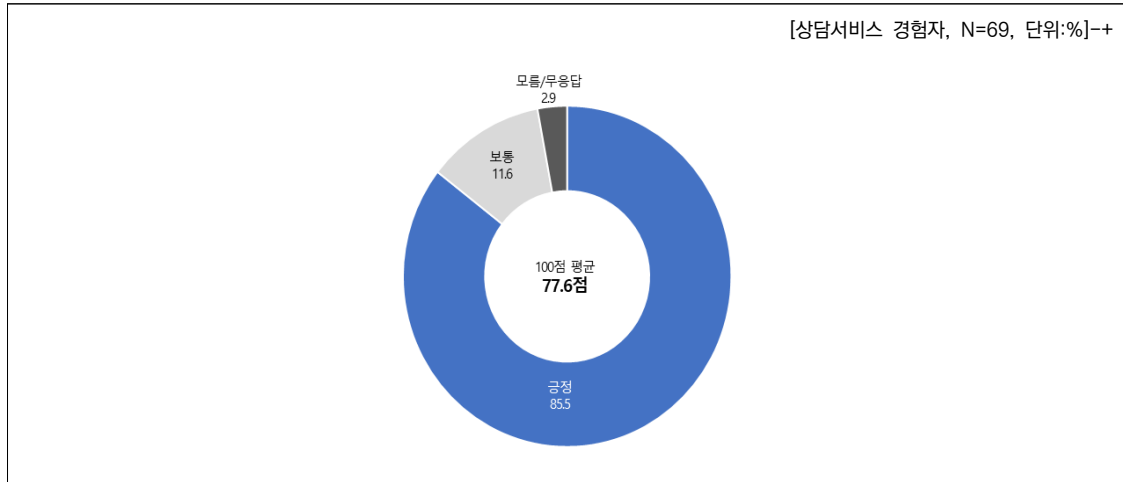


[그림 4-15] 참여 경로(참여자)

- 프로그램에 참여한 목적은 ‘문화 활동을 해 보고 싶어서’가 30.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을 알거나 어울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26.2%)’, ‘여가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19.5%)’,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싶어서(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 인문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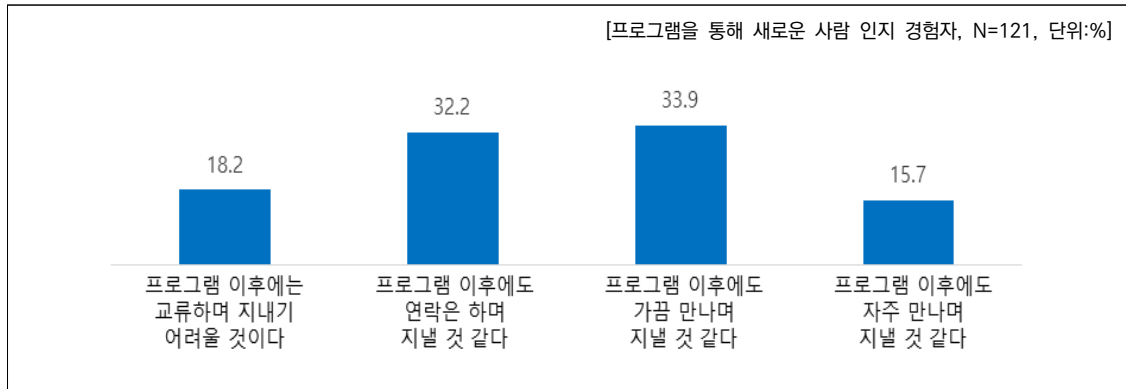
- 인문상담서비스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5.4%였으며, 이러한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5.5%로 나타나 참여자들은 상담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확인됨



[그림 4-16] 인문상담 도움 정도(참여자)

### (4) 관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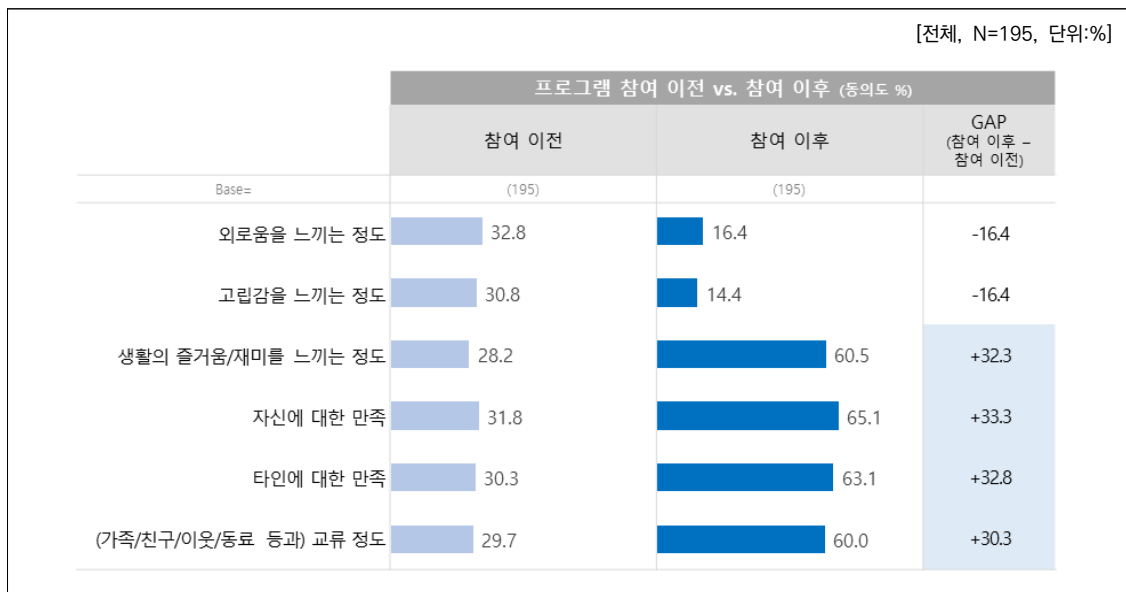
- 이 사업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된 경우가 62.1%였으며, 새로 알게 된 사람 수는 평균 3.7명으로 나타남
- 새롭게 알게 된 사람과의 친분 정도는 ‘다소 친하다’ 이상이 67.8%이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 같다’는 응답이 81.8%로 나타나,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사회관계를 맺게 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됨
  -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주 만나며 지낼 것 같다’는 응답이 15.7%이며, 여기에 ‘가끔이라도 만나며 지낼 것 같다’는 응답 33.9%를 추가하면 거의 과반(49.6%)이 지속적으로 대면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응답



[그림 4-17] 새로 알게 된 사람과 사업 종료 후 교류 예상(참여자)

#### (5) 프로그램 효과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이전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 32.8%, ‘고립감을 느끼는 정도’ 30.8%에서 프로그램 이후 각각 16.4%, 14.4%로 크게 하락하고, 가족/친지/이웃/동료 등과의 교류도 프로그램 이전 29.7%에서 프로그램 이후 60.0%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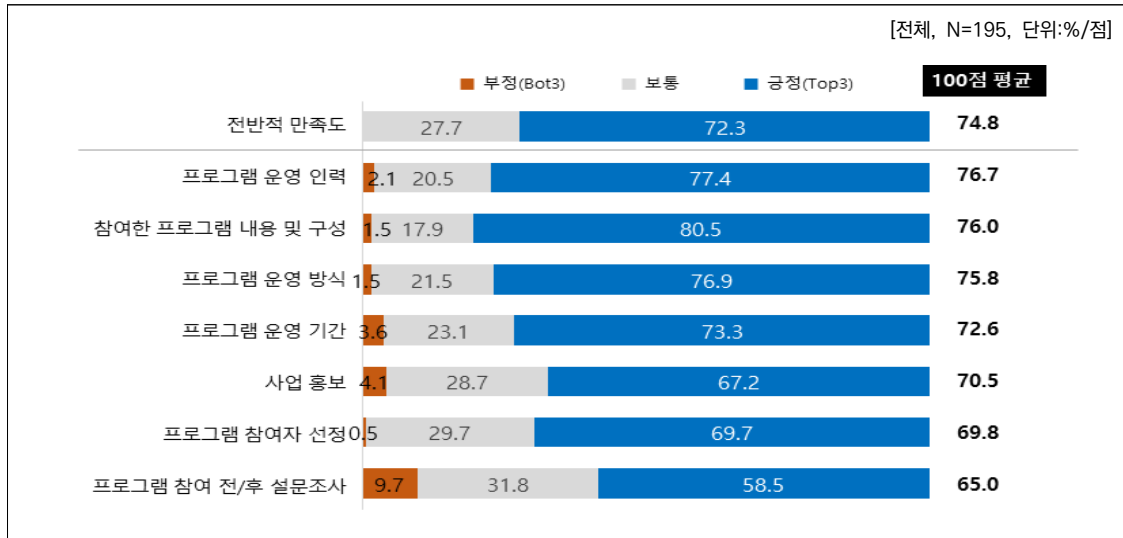
[그림 4-18]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참여자)

#### (6) 만족도 및 이유

- 사업 참여자들의 동 사업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72.3%로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나지만 재참여 의향은 92.3%로 매우 높음. 이는 현재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여러 이유로 낮지만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다면 참여율과 만족도는 이전 대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줌
- 만족도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프로그램 사전/사후 설문조사에 대한 만족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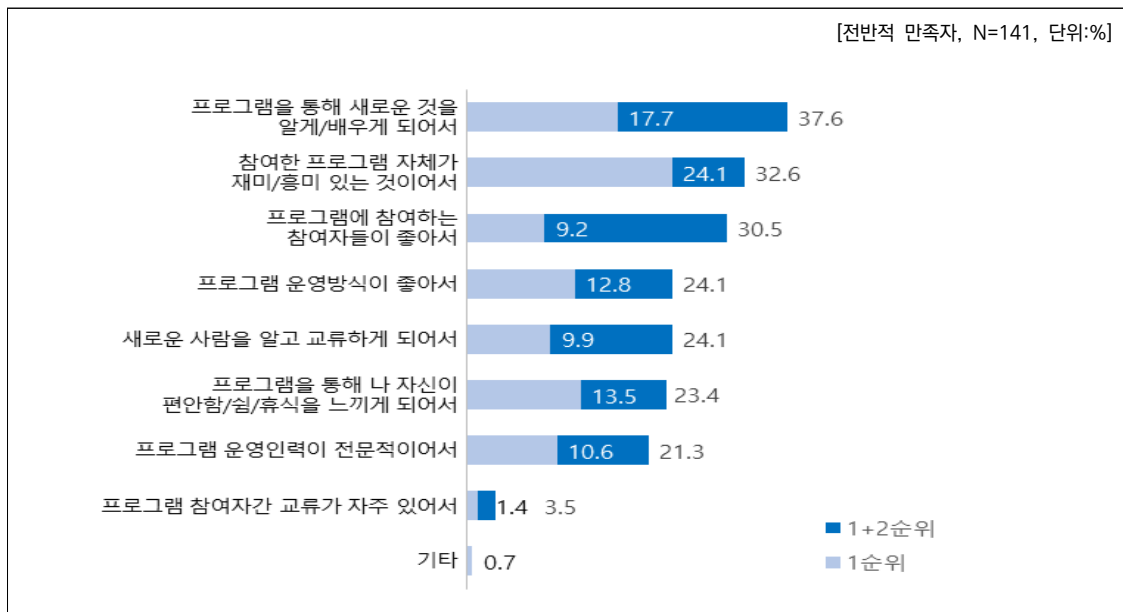
가장 낮으며, 사업홍보나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도 낮은 만족도를 보임

- 항목별 만족도에서 나타나듯이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에서 실시한 사전/사후조사나 대상자 발굴(참여자 차원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과정은 참여자로 하여금 사업에의 만족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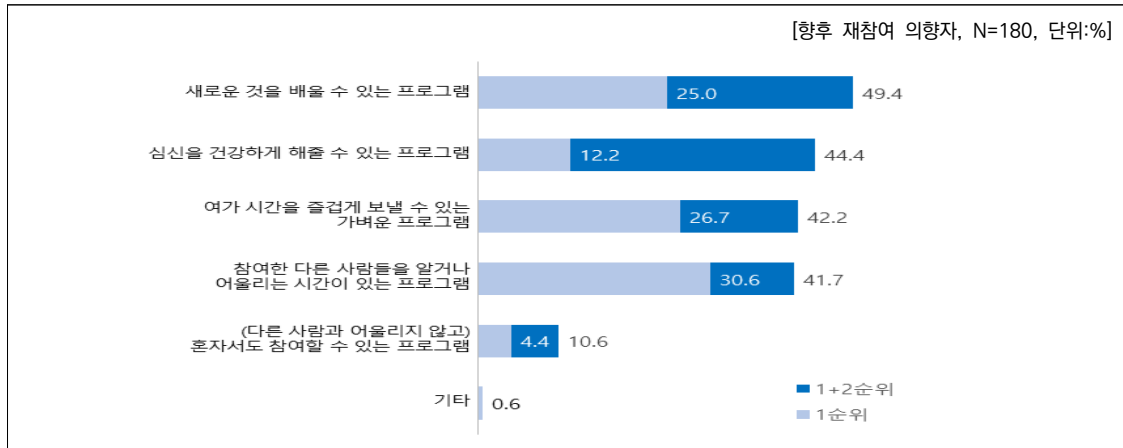
[그림 4-19] 부문별 만족도(참여자)

- 만족 이유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프로그램 참여자간 교류가 자주 있어서(1.4%)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임. 유사하게 참여자간 교류나 참여자들이 좋아서와 같은 항목이 만족 이유에서 낮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프로그램 만족 이유에 이와 같은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줌. 이보다는 프로그램 자체의 내용과 특성이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중요한 이유를 차지함



[그림 4-20] 만족 이유(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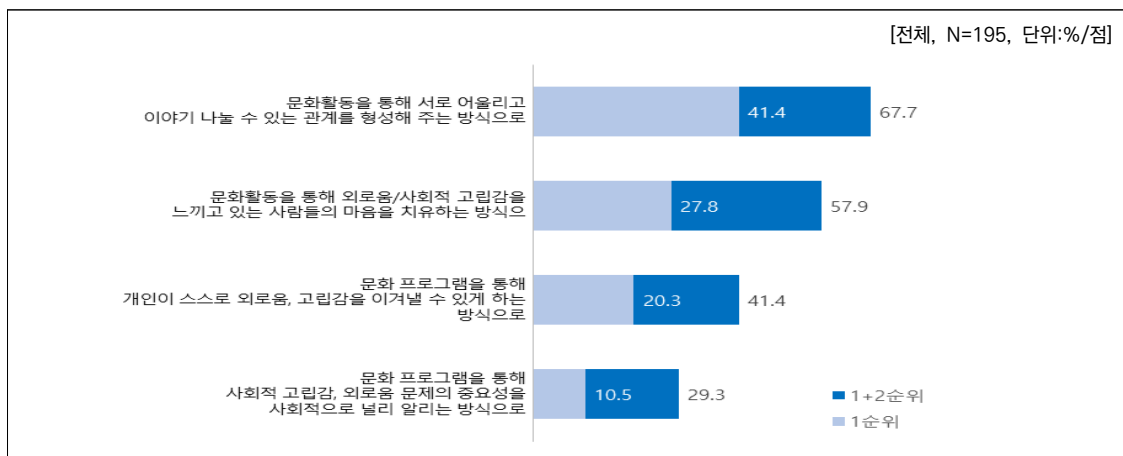
- 다만, 프로그램 만족 이유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프로그램 참여자간 어울림/교류 등은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작용할 수 있음이 나타남
- 향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유형을 보면, 참여한 사람을 알거나 어울리는 시간이 있는 프로그램(30.6%)이 가장 높고, 혼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4.4%)이 가장 낮게 나타나 참여자들은 참여자간 어울림이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함을 보여줌



[그림 4-21] 선호하는 프로그램(참여자)

#### (7) 문화프로그램 역할에 대한 인식

-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문화활동이 우리 사회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68.2%)는 부분에 강한 긍정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 같은 문제가 문화적 차원보다는 구조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문화활동이 기여할 수 있다면 그 방식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주는 방식’(41.4%)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예술 치유 접근 방식(27.8%)은 두 번째로 나타남



[그림 4-22] 사회적 고립관련 문화적 접근방식에 대한 인식(참여자)

## 1. 광역거점형 지역거점센터

## 1) 서울 지역거점센터

- 운영지역 : 관악구, 도봉구, 동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 운영기관 :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담당인력 8명)
  - 운영거점센터 : 5개 기관
    - 동대문구문화재단, 도봉문화재단, 양천문화재단, 관악문화재단, 송파문화재단

〈표 4-6〉 서울 지역거점 운영센터 현황

권역구분	운영거점센터	운영지역
1권역	동대문문화재단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2권역	도봉문화재단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권역	양천문화재단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4권역	관악문화재단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5권역	송파문화재단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

- 협력네트워크 : 총 75개 기관

〈표 4-7〉 서울 지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지자체	사회복지	의료보건	상담	교육	시민단체	문화예술	개인	기타	계
2	3	-	2	2	-	56	-	10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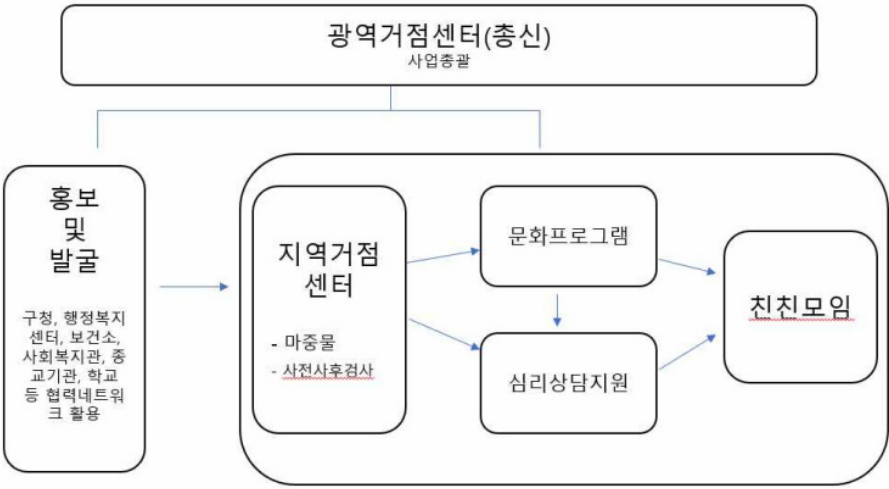
3) 거점센터 운영 현황은 각 센터가 제출한 월별실적과 최종적으로 제출한 실태조사지에 근거하여 작성

○ 사업비 : 180백만원

〈표 4-8〉 서울 지역거점 센터 발굴-인문상담-맞춤형 처방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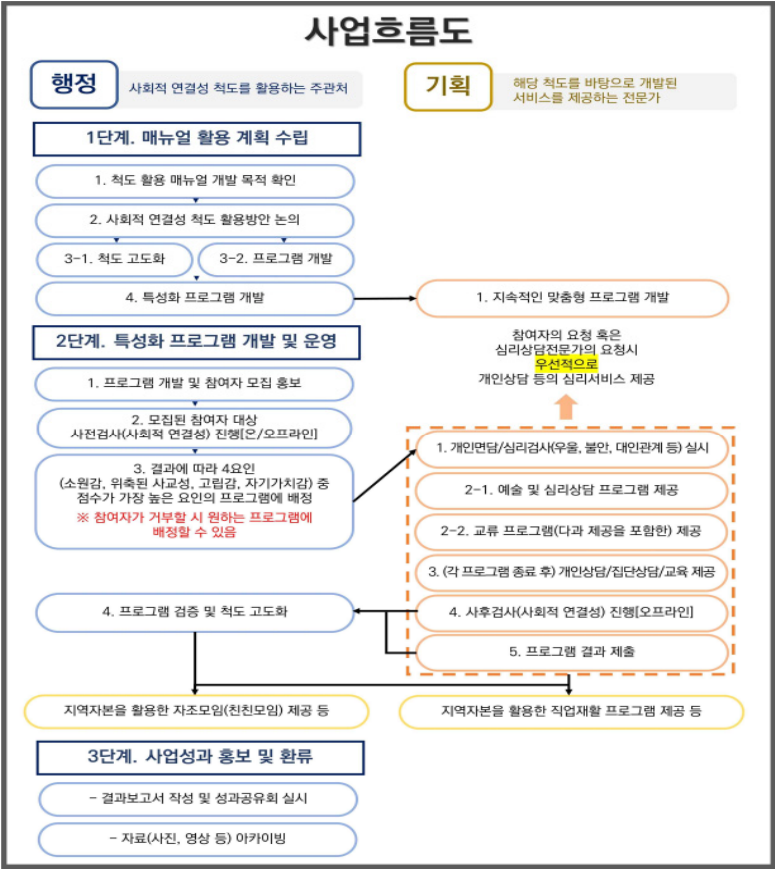
발굴	인문상담	맞춤형 처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참여자 발굴/모집</li><li>▶ 협력 공간 발굴 및 협조</li><li>▶ 맞춤형 처방 및 프로그램 발굴</li><li>▶ 협력네트워크 발굴 및 협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문상담 기획 및 운영</li><li>▶ 〈사회적연결성척도〉 조사</li><li>▶ 참여자 유형분석</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맞춤형 처방 연계 및 지원</li><li>▶ 외로움 요인별 프로그램 기획운영</li><li>▶ 참여자 유형별 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5개 지역거점센터(문화재단)</li><li>▶ 희망복지지원단</li><li>▶ 25개 구청 및 보건소, 지역TV방송, 신문, 홍보사 등 사회복지시설, 약국, 종교재단, 대학교, 학부모 단체, 지역사회내 미용실, 지역사회 마을활동가 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5개 지역거점센터(문화재단)</li><li>▶ 서울심리지원센터(송파구, 도봉구, 양천구, 동대문구)</li><li>▶ 권역별 대학 내 심리상담센터</li><li>▶ 건강가정지원센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화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내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지역문화예술인을 연계</li><li>▶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li><li>▶ 필요한 경우 발굴대상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li></ul>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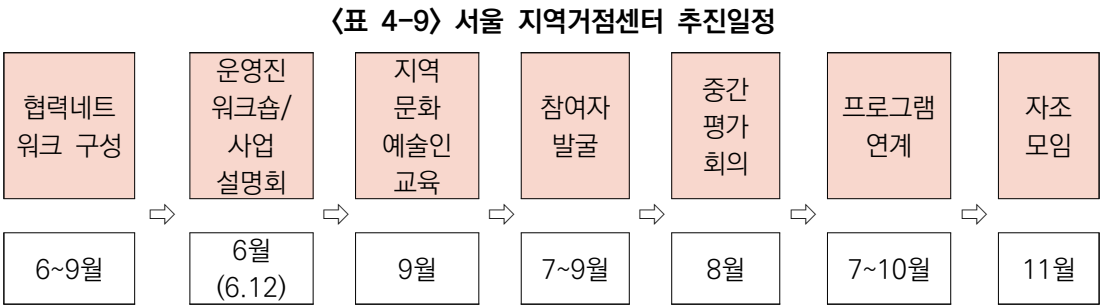
[그림 4-23] 서울 지역거점센터 추진체계

○ 사업 흐름도



[그림 4-24] 서울 지역거점센터 사업 추진 체계

○ 추진일정



○ 참여자 발굴 및 모집

- 주요대상 : ① 지역구 특성에 따른 대상 발굴, ② 외로움을 느끼는 지역주민
- 1인 가구, 양육자(관악), 아동, 청소년(도봉), 중장년(동대문), 지역주민(양천),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층, 독거노인(송파구)
- 대상발굴 : 협력기관 연계형, 열린시민참여형

(협력기관) 지역 예술인 사전 교육 후 대상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대상특화) 전문강사 특강을 통한 대상 발굴

○ 〈사회적 연결 척도〉 측정 및 인문·문화 상담

- 참여자 : 사전 465명 / 사후 240명

〈표 4-10〉 서울 지역거점센터 사전/사후 사업 참여자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참여자계	사업대상 계 (2~4단계)
사전	46	34	63	145	177	465	242
사후	14	19	27	68	112	240	114

- 인문·문화 상담

• 운영장소

상시 : 서울 심리지원센터(동남, 동북, 서남, 중부), 특화 : 총신대학교

• 운영인원 : 5명 \*총신대학교 내 상담은 참여 인력이 운영

• 운영실적

〈표 4-11〉 서울 지역거점센터 인문상담 운영실적

구 분	인문상담 전문인력 수	인문상담 총 건수	인문상담 전문인력 중 학위 또는 자격증 보유 현황	
			보유자 수	학위 / 자격증 보유 내역
지역거점센터	8명	152건	8명	심리학 박사, 상담학 박사, 교육학 박사, 임상심리전문가 등
운영거점센터 (문화재단)	0명	0건	0명	해당 없음
협력네트워크	10명	270건	10명	상담심리전문가/임상심리전문가
계	18명	422건	18명	

○ 사업대상자 사후관리

- (개선) 마음 나눔 모임 '친친' 운영, 구직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연계

- (부동) 지역 프로그램 추천 및 연계 지원

- (악화) 정신건강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 친친 운영 개요

- ▷ 운영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자 중 일부, 동작구 구민 누구나
- ▷ 운영 기간: 9/30~ 11/15(매주 화요일)
- ▷ 운영시간: 오후 5시~7시
- ▷ 세부 프로그램: 플라워공방의 원예치료프로그램, 가야금연주 감상, 토탈공예공방의프로그램(만들기, 그리기, 꾸미기 등), 책이야기 나누기, 색으로 이뤄진 카드 해석하며 ‘마음 읽는 법’ 이야기하기
- ▷ 기획 의도
  - . 매회 공예수업이나 신진 예술가들의 연주를 매개로 대화의 소재를 확장하고, 예술을 통한 마음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 . 다과를 나누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느낌을 공유하며 내가 홀로 있다는 생각보다, 나와 연결된 누군가로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받는 마음을 경험한다.

○ 특징

- 서울시 전체를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위해 대학과 문화재단, 복지관, 공공기관 및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해당 구 거주 강사 활용 등으로 각 지역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 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
- 사업 대상자 지원체계에서 최종목표를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설정하는 등 차별성 부각
- 지역거점센터는 2022년 사업 원년부터 참여한 단체이며 대학을 기반으로 한 조직임. 지역거점센터는 물론 협력네트워크 모두 전문 자격증 및 학위를 보유한 전문인력을 통해 인문상담이 이루어짐으로써 양질의 인문상담 제공

2) 충남 지역거점센터

- 운영지역 : 공주시(동남부권), 당진시(북부권), 서산시(서해안권), 홍성·예산군(내포권)



[그림 4-25] 충남 지역거점센터 관할 범위

○ 운영기관 : 충남문화관광재단(담당인력 3명)

- 운영거점센터 : 3개 기관

공주문화관광재단, 당진문화재단, 서산문화재단 \* 담당인력 각 2명

〈표 4-12〉 충남 지역거점센터 지역 기초 거점 기관

센터명		위치	유형	주요역할(기능)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산군 (내포권)	공공기관	지역거점센터 운영총괄
거점공간	내포혁신플랫폼	내포	공공	인문상담 운영
	홍성문화원	홍성	민간	다목적 문화공간
	예산문화원	예산	민간	다목적 문화공간
당진문화재단		당진시 (북부권)	공공기관	지역거점센터 운영지원
거점공간	당진문예의전당	당진	공공	인문상담 운영
	당진문예교육학교	당진	공공	다목적 문화공간
	당진문화원	당진	민간	다목적 문화공간
공주문화관광재단		공주시 (동남부권)	공공기관	지역거점센터 운영지원
거점공간	아트센터고마	공주	공공	인문상담 운영
	대통령작은미술관	공주	민간	다목적 문화공간
	마을예술창작소	공주	민간	다목적 문화공간
서산문화재단		서산시 (서해안권)	공공기관	지역거점센터 운영지원
거점공간	서산문예회관	서산	공공	인문상담 운영
	서산생활문화센터	서산	공공	다목적 문화공간
	성연생활문화센터	서산	공공	다목적 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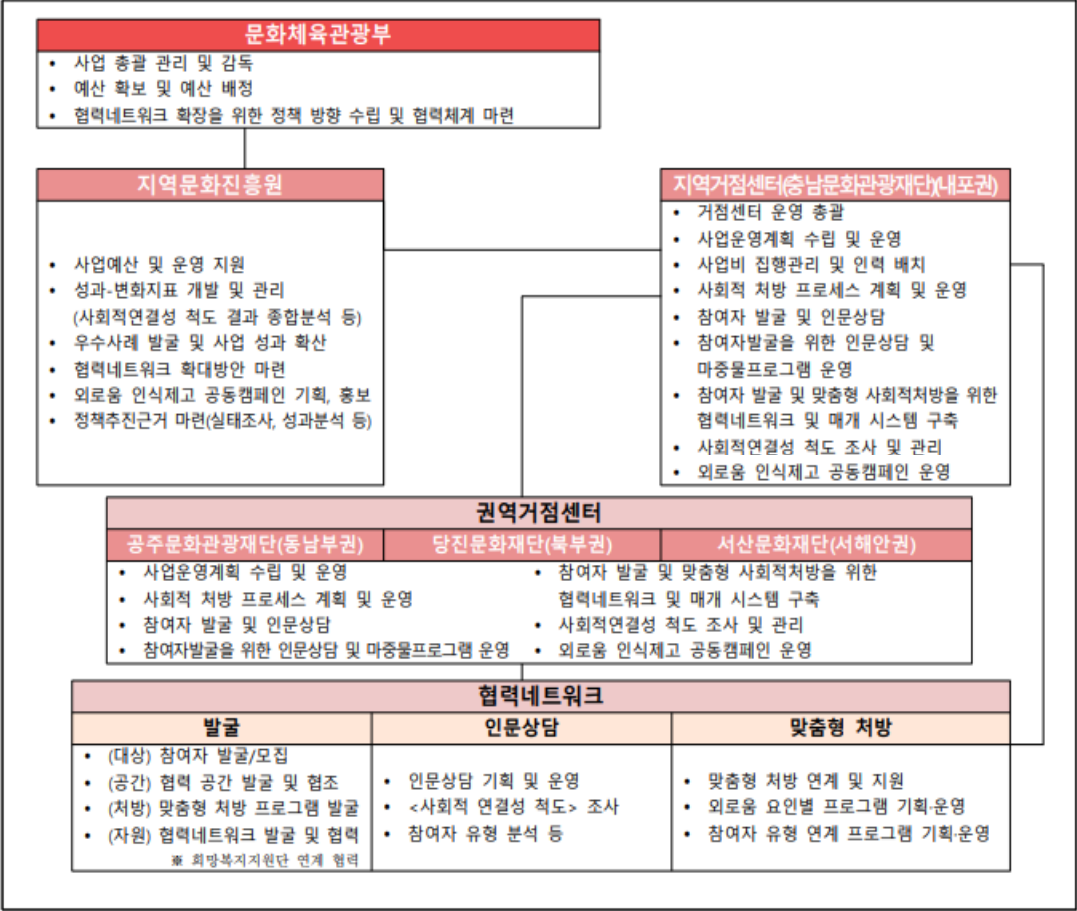
○ 협력네트워크 : 총 80개 기관

〈표 4-13〉 충남 지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지자체	사회복지	의료보건	상담	교육	시민단체	문화예술	개인	기타	계
25	20	4	2	-	7	20	2	-	80

○ 사업비 : 18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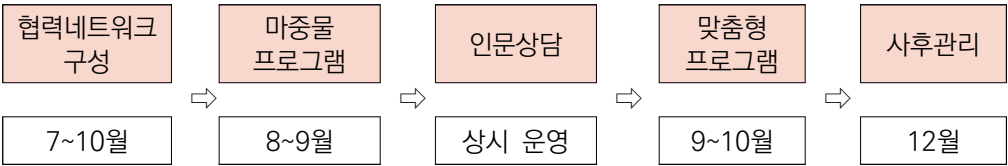
○ 추진체계



[그림 4-26] 충남 지역거점센터 사업 추진 체계

○ 추진 일정

〈표 4-14〉 충남 지역거점센터 추진 일정



- 인문상담 진행
  - ▷ 마중물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 발굴
  - ▷ 개별 유선/대면 인문상담을 통해 대상자 특성 파악
  - ▷ 사업대상자(2-4단계) 맞춤형 문화처방 프로그램 연계
  - ▷ 개별 요청에 따라 유선/대면 인문상담 상시 진행

○ 참여자 발굴 및 모집

- 주요 대상: 독거노인, 20대 은둔 청년, 외로움을 느끼는 지역 주민
- 대상 발굴: 협력기관 연계형, 대상특화형  
(협력기관) 서산경찰서, 대한노인회 서산지부, 서산시가족센터,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성연생활문화센터, 서산생활문화센터  
(대상특화) 마을 잔치 프로그램(노인), 대학교 도시락 나눔 행사(청년)

○ 〈사회적 연결 척도〉 측정 및 인문·문화 상담

- 참여자 : 사전 2,073명 / 사후 410명

〈표 4-15〉 충남 지역거점센터 사전/사후 사업 참여자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참여자계	사업대상계 (2~4단계)
사전	67	134	254	704	914	2,073	1,092
사후	1	9	40	194	166	410	243

- 인문·문화 상담

- 운영장소 : 충남내포혁신플랫폼
- 운영인원 : 3명 (상담전문 인력 및 협력기초거점 담당인력 채용 완료)
- 운영방식 : 인문상담은 대부분 유선으로 진행되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소 연계하여 미술·음악 치료 등 진행
- 운영실적

〈표 4-16〉 충남 지역거점센터 인문상담 운영실적

구 분	인문상담 전문인력 수	인문상담 총 건수	인문상담 전문인력 중 학위 또는 자격증 보유 현황	
			보유자 수	학위 / 자격증 보유 내역
지역거점센터	3명	1,088건	-	해당 없음
운영거점센터	6명	160건	2명	심리학, 사회복지학
협력네트워크	80명	202건	8명	심리학, 상담학
계	89명	1,450건	10명	

○ 사업대상자 사후관리

- (개선) 참여자 리더를 선정하여 사후 동아리 결성 유도, 문화원을 연계한 사업운영 지원
- (부동) 맞춤형 프로그램 연장 지원,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프로그램 구성

- (악화) 보건소 및 의료시설 연계 및 대상자 데이터 전달

● 맞춤형 처방의 3가지 차원

- ▷ 생활적 차원: 돌봄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유형(식문화, 차문화, 미술치료(상담))
- ▷ 경제적 차원: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유형 (식문화, 차문화, 미술치료(상담))
- ▷ 정서적 차원: 가족, 친구, 배우자 등에 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할 상대가 없고 고민이나 걱정을 말하고 싶을 때 들어줄 사람이 없는 유형(수필, 인문학콘서트, 도예, 미술, 공연, 산책 모래치료(상담) 등

생활적 요인(미술치료)	경제적 요인(차문화)	정서적 요인(문화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노인 대상</li> <li>- 프로그램: 집단 프로그램 형식으로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각 작품을 소개하며 자신의 이야기 공유, 심리상태 파악 및 타인과의 이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미술심리 치료프로그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식사를 챙기기 어려워 식사를 거르시는 노인 대상</li> <li>- 프로그램: 방문형 집단 프로그램 형식으로 지역에서 피어난 꽃을 오감을 통해 다함께 즐길 수 있도록 차문화(꽃차·다과 제공) 및 꽃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평소 우울감, 무기력함을 느끼는 노인 대상</li> <li>- 프로그램: 노인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타악기'를 통해 드럼, 스크래처 등 악기를 직접 연주해보고 합주도 해보며 신나는 박자와 함께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li> </ul>

○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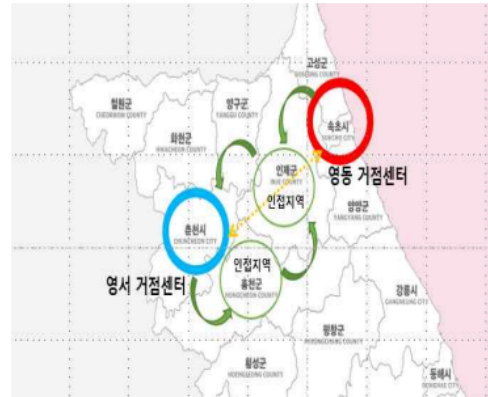
- 「충남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제4992호, 2021.07.20.)」제정에 따른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해결 실행력 강화를 위해 본 사업에 경찰서, 노인회,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150명) 등 공공 및 유관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짐
- 사업 착수 이전에 36회라는 다수의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지역거점센터와 운영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간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성 높은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임
- 사업 운영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 마중물 프로그램을 통한 공개모집 → 사회적 연결 척도 측정 → 인문상담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 충남의 경우 두 가지 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함. 즉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척도측정에 참여 또는 미참여와 관계없이 상담을 진행하였고, 도내 일반행사 또는 문화행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문화로 사회연대사업 참여자를 발굴하는 등 온라인 신청 서비스와 행사 방문을 통해 참여자 발굴 노력을 기울임
- 사업 참여자 발굴에 있어 지역거점센터와 운영거점센터 간 역할 분담. 지역거점센터는 노인층에 초점을 맞춰 행정복지센터와 노인회관 등에서 참여대상자를 발굴하고, 운영거점센터에서는 청소년, 1인 가족, 실업자, 일반시민 등에 상대적으로 집중하여 사업 참여자를 발굴함

### 3) 강원A 지역거점센터

- 운영지역 : 속초시, 인제군, 춘천시, 홍천군
- 운영기관 : 춘천문화재단 담당인력 5명
  - 운영거점센터 : 3개 기관
    - 속초문화관광재단, 인제군문화재단, 홍천군도시재생지원센터 \* 담당인력 3명

〈표 4-17〉 강원A 지역거점센터 운영현황

- 기초거점센터 위치도  
(위치선정) 생활권 단위 인접지역 홍천, 인제와 영서-영동지역을 잇는 속초 지역까지 확장하는 광역형 협력네트워크 구축  
(도시역할) 각 지역의 부족한 자원을 연계해주고 각 도시의 지역거점센터 역할 수행  
(연계지점)  
속초 : 속초문화관광재단 문화특화사업 연계  
- 속초문화도시지원센터(속초시 영랑동)  
인제 : 인제군 문화재단 문화활동 연계  
-인제 하늘내린센터(인제군 인제읍)  
홍천 : 홍천군 도시재생 선정지역  
-희망여행in플랫폼(홍천군 홍천읍)



구분	지역	대표기관	장소	사업연계
광역 (1)	춘천	(재)춘천문화재단	교통 커뮤니티 돌봄센터 (춘천시 옥천동)	문화도시사업 연계 맞춤형 사회적 처방 고도화
기초 (3)	홍천	홍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희망여행in플랫폼 (홍천군 홍천읍)	도시재생사업 공정여행 연계 맞춤형 처방 시범운영
	인제	(재)인제군문화재단	인제하늘내린센터 (인제군 인제읍)	'유쾌한 작당 문화커뮤니티' 연계 맞춤형 처방 시범운영
	속초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속초문화도시지원센터 (속초 영랑동)	'소상공인 OK활력소' 연계 맞춤형 처방 시범운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춘천형 사회적 처방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프로그램 공동기획</li> <li>• 인접 및 영동지역의 지역자원을 통해 외로움을 지역의 문제로 바라보는 공동대응</li> </ul>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로 사회연대 모델 프로세스 제공 및 프로그램 예산지원</li> <li>• 지역 여건에 따른 지역협력네트워크 구성 및 맞춤형 사회적 처방 운영</li> </ul>			



(춘천) 커뮤니티 돌봄센터



(홍천) 도시재생 공유공간



(인제) 하늘내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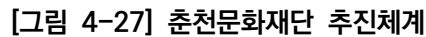
(속초) 문화도시지원센터

- 협력네트워크 : 총 41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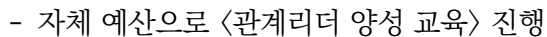
〈표 4-18〉 강원A 지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지자체	사회복지	의료보건	상담	교육	시민단체	문화예술	개인	기타	계
4	-	1	3	1	4	27	-	1	41

## ○ 추진체계



〈표 4-19〉 강원A 지역거점센터 추진일정



- 관계리더 양성과정 운영계획
  - ▶ 사업목적: 문화로 매개로 마음을 돌보는 커뮤니티 리더 역량강화 및 문화+심리 프로그램 기획, 개발
  - ▶ 참여대상 : 사회적 건강에 관심 있는 커뮤니티 공간 소유 또는 운영
  - ▶ 주요내용

유형	세부사업	주요내용	
사업 운영	관계리더 양성과정	기본교육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이해 및 정서지원을 위한 핵심감정 탐색</li> <li>• 관계리더가 되기 위한 감정, 반영, 수용, 공감, 피드백 핵심 5요소 배우기</li> </ul>
		프로그램 개발 특화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상담 영역 전문가로 구성된 슈퍼바이저(멘토)를 통한 문화+심리영역이 결합된 프로그램 설계 및 실습 과정</li> </ul>
결과 공유	성과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별 사업계획 공유 및 의견수렴</li> <li>• 총괄 피드백 후 소감나누기</li> </ul>	

○ 참여자 발굴 및 모집

- 주요대상 : ① 운송업 종사자 ② 공공업무 종사자 ③ 감정노동자 ④ 소상공인 (속초)  
⑤ 타향 이주민 (인제) ⑥ 사회복지실무자 (홍천)

- 대상발굴 : 연계형, 대상특화형, 열린시민참여형

(협력기관) 풀로 외 11개 민간단체, 춘천사회혁신센터

(대상특화) ‘안녕티켓\*’ 문화꾸러미(택시기사), 식물테라피(교사), 문화캠핑(배달라이더),  
미술치유(민원공무원)

※ 시간 할애가 어려움 운송업 종사자를 위해, 2인 1매 티켓 발행(짧은 교육 후  
DIY패키지를 수령

(열린시민참여형) 공지천팝업페스타, 닭갈비막국 축제, 춘천시청 ‘찾아가는 도시마음  
산책’, 공지천재즈페스타

※ 주요대상을 직업군으로 분류, 연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대상설정 및 대상  
특화 발굴 프로그램 진행

○ 〈사회적 연결 척도〉 측정 및 인문·문화 상담

- 참여자 : 사전 1,720명 / 사후 104명

〈표 4-20〉 강원A 지역거점센터 사전/사후 사업 참여자 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참여자계	사업대상 계 (2~4단계)
사전	55	84	184	512	885	1,720	780
사후	3	7	13	33	48	104	53

- 인문·문화 상담 ※ 예약제 상담운영

- 운영장소

상시 : 강원심리상담가협회, 특화 : 마인드플레이스상담코칭연구소

- 운영인원 : 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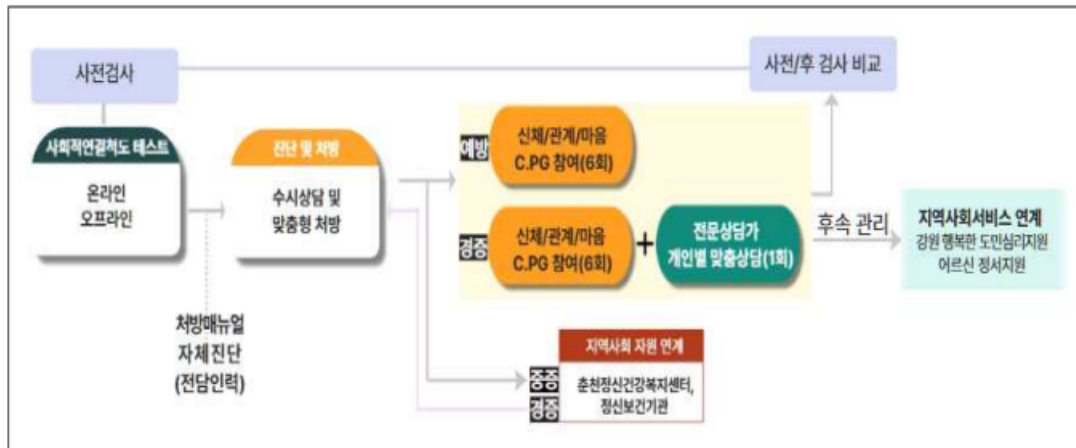
- 운영방식 : 협력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추진

- 운영실적

〈표 4-21〉 강원A 지역거점센터 인문상담 운영실적

구 분	인문상담 전문인력 수	인문상담 총 건수	인문상담 전문인력 중 학위 또는 자격증 보유 현황	
			보유자 수	학위 / 자격증 보유 내역 주)
지역거점센터	0명	0건	0명	해당 없음
운영거점센터	0명	0건	0명	해당 없음
협력네트워크	5명	104건	5명	사회복지학, 교육상담 박사 심리학, 학교상담 석사
계	5명	104건	5명	

- 진단 및 상담 과정



[그림 4-28] 강원A 지역거점센터 진단 및 상담 과정

○ 사업대상자 사후관리

- (개선)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청년도약 프로그램 연계, 노후준비지원센터 신중년 일자리 상담, 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 연계
- (부동) 춘천청년은둔외톨이·춘뿌리 모임 연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복지분야 활동 연결
- (악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 요청 및 이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긴급조기 구호 검토 요청 및 이송

○ 특징

- 춘천문화재단은 문화도시사업을 5년간 추진하면서 도시 곳곳에 마음 둘 곳을 만들었던 커뮤니티 심리방역 프로젝트 ‘도시가 살롱’을 운영하여 춘천시민의 사회적 건강을 챙기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본 사업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 이러한 연관 사업 경험이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에 투영됨. 문화와 심리 상담을 결합하여 일반 시민 및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대상자를 발굴, 각종 문화활동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운영
- 특히 커뮤니티 공간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관계리더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가와 관계리더가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4명의 관계리더를 양성하였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관계리더를 통해 공간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주체적인 커뮤니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치료(theraphy)라는 용어 때문에 자신이 환자 취급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기존의 문화예술 치료프로그램에 일반시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점을 감안,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문화를 통하여 대상자들을 만나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체적·정신적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
- 프로그램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진행하여 기초과정은 심리상담 이해교육을 진행하고, 심화과정은 커뮤니티 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이후 상담가와 관계리더를 그룹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함

## 2. 거점확산형(기초형) 지역거점센터

### 1) 강원B 지역거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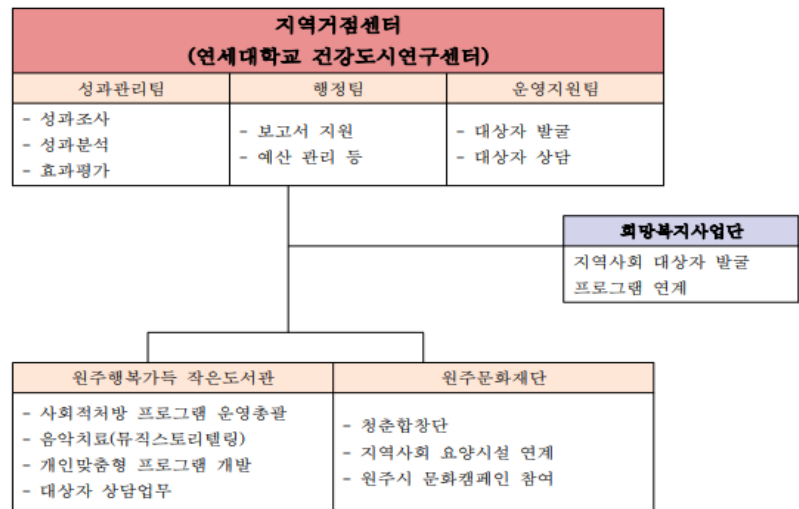
- 운영지역 : 원주시
- 운영기관 :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담당인력 4명)
- 협력네트워크 : 총 5개 기관

〈표 4-22〉 강원B 지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지자체	사회복지	의료보건	상담	교육	시민단체	문화예술	개인	기타	계
1	-	1	1	-	1	1	-	-	5

- 사업비 : 110백만원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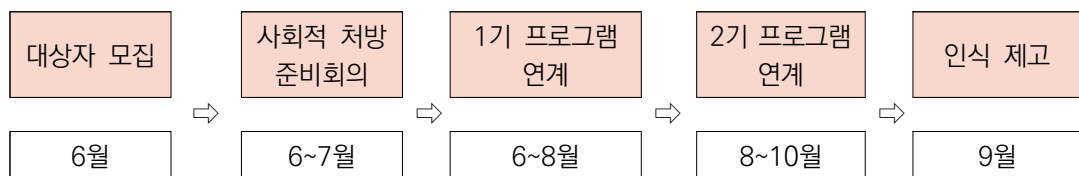
[그림 4-29] 강원B 지역거점센터 원주산학협력단 추진체계

〈표 4-23〉 강원B 지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현황

구분	참여기관		
지역거점센터	연세대학교 원주 산학협력단		
협력네트워크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흥업 행복작은도서관	
지자체	원주문화재단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사업단
공공의료시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민간문화단체	작은도서관	지역문화단체	NGO 기관
지역사회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 추진일정

〈표 4-24〉 강원B 지역거점센터 추진일정



○ 참여자 발굴 및 모집

- 주요대상 : 50대 이상 고령자

- 50~59세(중장년)군과 60세 이상(노년)군으로 분리하여 생애주기별로 대상자를 분류하여 추진

- 대상발굴 : 협력기관 연계형, 열린시민참여형
  - (협력기관)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행복작은가득도서관
  - (대상특화) 사회적 연결 척도 참여 설문조사

○ <사회적 연결 척도> 측정 및 인문·문화 상담

- 참여자 : 사전 126명 / 사후 85명

〈표 4-25〉 강원B 지역거점센터 사전/사후 사업 참여자 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참여자계	사업대상계 (2~4단계)
사전	10	14	14	40	48	126	68
사후	1	8	10	41	25	85	25

- 인문·문화 상담 4명

- 운영장소
- 상시 : 원주행복작은가득도서관
- 특화 : (주)헬스브릿지

※ (주)헬스브릿지는 ‘주치의’ 어플로 유선으로 전문상담사가 1인당 주 1회 5~10분 유선으로 원격상담 진행

- 운영인원 : 1명(어플 상담제외) \* 사회복지사 채용
- 운영방식 : 운영인력 및 어플리케이션 활용을 통한 운영
- 운영실적

〈표 4-26〉 강원B 지역거점센터 인문상담 운영실적

구 분	인문상담 전문인력 수	인문상담 총 건수	인문상담 전문인력 중 학위 또는 자격증 보유 현황	
			보유자 수	학위 / 자격증 보유 내역
지역거점센터	3명	720건	3명	사회복지사
협력네트워크	1명	160건	1명	미술심리상담사 인지행동심리상담사
계	4명	880건	4명	

○ 사업대상자 사후관리

- (개선) 프로그램 보조역할로 전환, 프로그램 참여 유지
- (부동) 새로운 프로그램 추천
- (악화)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 특징

- 원주시는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처방 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한국연구재단과 연세대학교 연구처의 지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고,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도 시범연구(2018-2021)를 통해 민·관·학 인프라를 구축 완료함에 따라 원주시청,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흥업면 소재 행복가득 작은도서관, 교회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대체로 잘 구축되어 있음
- 이러한 관련 사업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해도는 기존 심리학적 상담이나 복지 영역에서의 상담과 달리,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사회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해당 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원주시는 도시와 농촌 지역이 공존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도시와 달리 상담을 위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령자들의 경우 이동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원주시 사제보건진료소와 연계하여 격오지에 거주하는 노인들 중 외로움, 고독감 예방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원격상담 방식을 통해 의료인의 사회적처방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처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문화-복지-보건의료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부터 사회적처방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연계하는 지역사회 통합적 모델을 추진함
- 인문상담은 지역거점센터와 협력네트워크 모두 사회복지사, 미술심리상담사, 인지행동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을 통해 시행됨. 상담인력 모두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을 위해 별도로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기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으로 운영됨
- 육체적·정신적 건강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였지만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계층들이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 고취는 물론 사회적 연결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나타냄
- 프로그램 참여자들 가운데 프로그램 수료 이후에 해당 프로그램의 멘토로 활동하는 사례들이 나타남. 선배 기수로서 나중에 들어온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조언과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기수별 관계망이 구축되는 성과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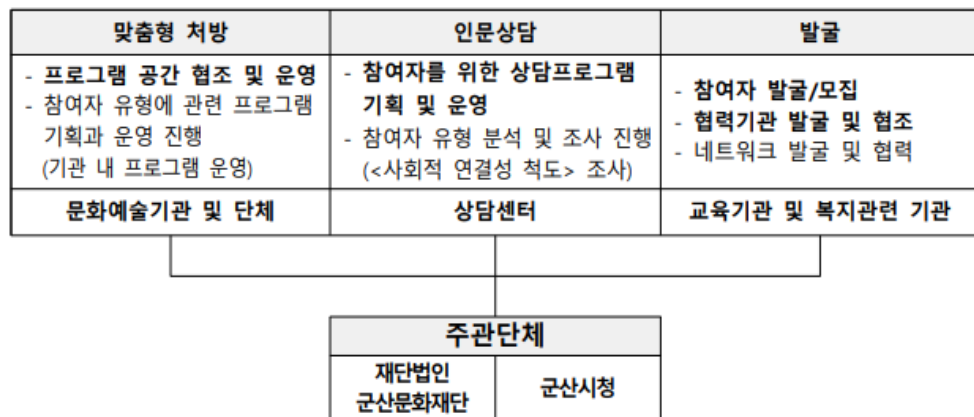
## 2) 전북 지역거점센터

- 운영지역 : 군산시
- 운영기관 : 군산문화재단(담당인력 3명)
- 협력네트워크 : 총 26개 기관

〈표 4-27〉 전북 지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지자체	사회 복지	의료 보건	상담	교육	시민 단체	문화 예술	개인	기타	계
3	5	-	2	-	1	14	1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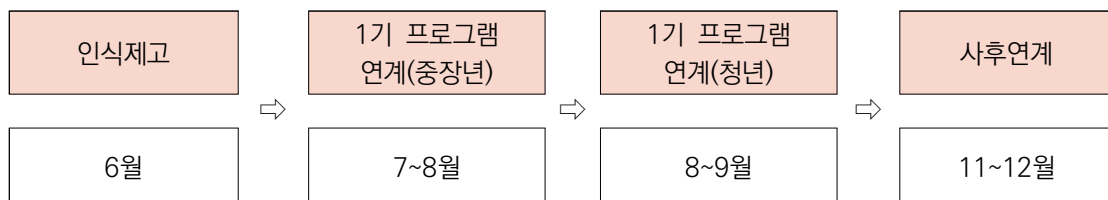
- 사업비 : 110백만원
- 추진체계



[그림 4-30] 전북 지역거점센터 추진체계

- 추진일정

〈표 4-28〉 전북 지역거점센터 추진체계 추진일정



- 참여자 발굴 및 모집
  - 주요대상 : ① 중장년, ② 청년

- 대상발굴 : 협력기관 연계형(중장년), 대상특화형(청년), 열린시민참여형
  - (협력기관) 군산시중독통합지원센터, 미래경로당-모자자립원
  - (대상특화) 팟캐스트(8~9월 4회 촬영 후 유튜브 송출/청년), 세대공감여행(10월/손자-조부모)
  - (열린시민참여형) 키포프데이, 찾아가는 지역거점센터 부스(군산시 3개 대학)

○ <사회적 연결 척도> 측정 및 인문·문화 상담

- 참여자 : 사전 178명 / 사후 67명

〈표 4-29〉 전북 지역거점센터 추진체계 사전/사후 사업 참여자 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참여자계	사업대상계 (2~4단계)
사전	27	24	19	49	59	178	92
사후	5	5	6	18	33	67	29

- 인문·문화 상담 ※ 예약제 상담운영

- 운영장소

상시 : 마음봄날심리상담센터·마음다락 심리상담센터, 특화 : 심야마음병원

※ 야간시간(~22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하여 대상자 발굴

- 운영인원 : 2명
- 운영방식 : 협력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한 운영
- 운영실적

〈표 4-30〉 전북 지역거점센터 인문상담 운영실적

구 분	인문상담 전문인력 수	인문상담 총 건수	인문상담 전문인력 중 학위 또는 자격증 보유 현황	
			보유자 수	학위 / 자격증 보유 내역 주)
지역거점센터	0명	0건	0명	해당 없음
운영거점센터	0명	0건	0명	해당 없음
협력네트워크	2명 (마음봄날 심리상담센터/ 마음다락 심리상담센터)	70건 (70회기)	2명	(마음봄날)심리상담학과 (마음다락)상담심리학 전공
계	2명	70건	2명	

○ 사업대상자 사후관리

- (개선) 문화재단 자체 프로그램 혹은 지역 내 문화예술, 상담 프로그램 소개
- (부동) 협력네트워크 운영 프로그램 연계 또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실시
- (악화) 협력네트워크(심리상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제시

○ 특징

- 운영기관인 군산문화재단이 신생 조직으로 사업 추진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지만, 책문화발전소(지역독립서점 연합), 군산시민예술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들, 군산시민영상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단체들 사이 협력을 이루고 있으며 청년뜰, 소통협력센터 군산, B문화공간 등 원도심과 군산 근교에 위치한 복합공간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함
- 특히 군산의 경우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부터 전입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들 계층과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거의 없어 계층과 연령대를 명확히 하고자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층을 핵심 타겟으로 설정함
-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기존 행정기관들이 복지 차원에서 반찬 지원, 1인 가구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수 추진되고 있었음
- 협력네트워크 구성 시 참여 강사와, 강사가 맺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력단체를 발굴함. 특히 참여 대상자인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청년들이 여행을 오거나 이주해 올 때 지역 독립서점과의 관계성이 끈끈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서점을 중심으로 맺어진 문화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협력네트워크를 발굴함
- 독립서점의 경우 군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북페어 등 주로 인문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들만의 협력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음. 이는 단지 지역서점이 자체만의 제한된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 지역에서는 문화활동의 거점으로 활성화 되어 있음. 지역서점 인력이 타 분야(행정, 복지분야, 책읽기 북토크, 음악과도 접목, 대학교와 접목, 인문과 접목 등 다양한 자원과의 연결)와 접목해서 활발하게 활동
- 대상자 발굴 시,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정신보건센터 등 정신건강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발굴하는 것보다는 인스타그램 등 일반적인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본 사업에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력네트워크의 경우 홍보물을 제작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시, 청년의 경우 서점, 인문관련 프로그램에 더불어 책을 활용한 아로마 프로그램 만들기, 각 서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중장년의 경우 몸을 움직이거나 공자 프로그램, 미술, 목공예, 유리공예 등 프로그램을 운영함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처방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 거부하는 참여자가 많이 나타남. 이와 반대로, 커뮤니티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라포(rapport 상호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태여서 사회적 연결척도 조사와 인문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 이는 대상자 발굴, 대상분석, 처방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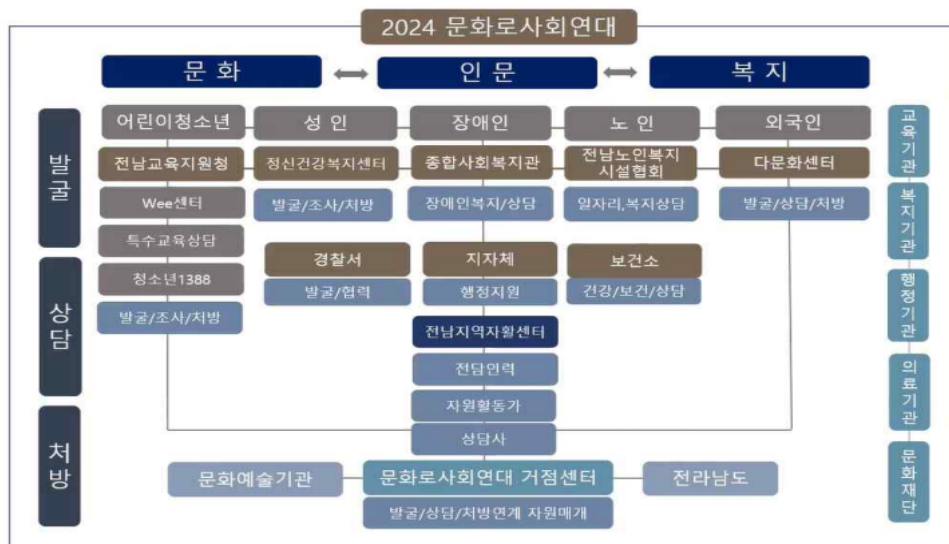
### 3) 전남 지역거점센터

- 운영지역 : 영암군
- 운영기관 : 영암문화관광재단(담당인력 4명)
- 협력네트워크 : 총 27개 기관

〈표 4-31〉 전남 지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지자체	사회복지	의료보건	상담	교육	시민단체	문화예술	개인	기타	계
6	5	3	2	2	2	6	-	1	27

- 사업비 : 110백만원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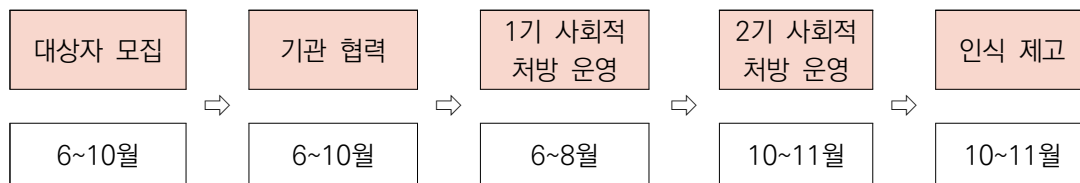
[그림 4-31] 전남 지역거점센터 추진체계

● 기관별 협력 관계 구축

-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전남정신건강복지센터 > 시군별 정신건강센터 협력
- ▶ 지자체 : 전라남도청, 시군구 행정운영 협력
- ▶ 의료기관 : 원광대 장흥통합의료병원, 조선대 정신의학병원등
- ▶ 복지기관 : 전남사회서비스원,
- ▶ 보건기관 : 전남지역 보건소 (영암, 장흥, 진도, 신안, 고흥)
- ▶ 사회단체 : 사회봉사단체, 생활 돌보미등
- ▶ 문화예술기관 : 전남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전남문화지소(5개소)
- ▶ 교육기관 : 전남교육청, wee센터
- ▶ 도서관 : 전남도서관 찾아가는 서비스 <책책빵>
- ▶ 행정기관 : 전남소방청, 전남경찰청, 전남우체국
- ▶ 희망복지지원단 : 통합사례관리 및 사례조사

○ 추진일정

〈표 4-32〉 전남 지역거점센터 추진일정



○ 참여자 발굴 및 모집

- 주요대상 : ① 청소년, ② 청년, ③ 고령자
- 대상발굴 : 협력기관 연계형(여성), 열린시민참여형  
(협력기관) 영암군 여성단체, 구립 공고wee센터(청소년),  
영암정신건강복지센터(청년), 세한대학교(외국인유학생) 영암희망복지팀(봉사자)  
(열린시민참여형) 유희공간 방문객

○ 〈사회적 연결 척도〉 측정 및 인문·문화 상담

- 참여자 : 사전 505명 / 사후 146명

〈표 4-33〉 전남 지역거점센터 사전/사후 사업 참여자 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참여자 계	사업대상 계 (2~4단계)
사전	19	46	62	177	201	505	285
사후	6	15	18	52	55	146	85

- 인문·문화 상담 ※ 예약제 상담운영
  - 운영장소 : 마음:뜨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장소에서 운영
  - 운영인원 : 상담전문인력 2명(상담요청 시)
- ※ 비상근 근무로 주 1회 또는 상담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시 비정기적으로 참여 예정
- 운영방식 : 협력네트워크(영암정신건강복지센터, 모은심리상담센터)와 협력을 통한 운영
- 운영실적

〈표 4-34〉 전남 지역거점센터 인문상담 운영실적

구 분	인문상담 전문인력 수	인문상담 총 건수	인문상담 전문인력 중 학위 또는 자격증 보유 현황	
			보유자 수	학위 / 자격증 보유 내역 주)
지역거점센터	2명	10건 이상	2명	가족상담사/아동보호사2급/ 도형심리상담사/청소년상담보호사 2급/사회복지사2급/보육교사2급
운영거점센터	0명	0건	0명	해당 없음
협력네트워크	0명	0건	0명	해당 없음
계	2명	10건 이상	2명	

○ 사업대상자 사후관리

- (개선) 마음 전인 활동가 육성을 통해 지속 안부 및 프로그램 참여 전인 역할
- (부동) 편지, zoom소통방, 지역문화예술 정보 추천
- (악화) 자원봉사단체 연계, 대상자 상담 후 전문기관 협력 요청(경찰서/소방서)

○ 특징

-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남 영암 지역도 고독사 문제(2023년 독거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조례 제정)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면서 고령화, 1인 가구, 지역소멸까지 이르는 지역사회에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보건, 의료, 복지영역과 더불어 개인의 일상을 환기시키고 문화적 방법을 결합한 통합적인 관리와 대처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이에 심리적·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외로움, 고독의 지역문제 해결법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고 개개인의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 영암문화관광재단 및 지역 사회가 연대하여 참여함
- 지역 소재 협력네트워크 중 하나인 전남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관리 각 지역에 있는

지역 소거점센터를 지원하는 거점으로서 운영체계를 갖고 지역거점센터별로 대상자 발굴, 상담,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협력단체 특히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기관들의 경험 및 노하우,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대상자 발굴뿐만 아니라 본 사업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음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을 통해 시행하는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기존 정신건강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해 문화로사회연대 사업과의 차별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남정신건강복지센터를 협력네트워크의 핵심 멤버로 참여시키는 효과를 거둠
-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기존 치유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사 분석하였는데, 대부분 상담 복지 서비스, 사례관리 프로그램 외에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고 프로그램 내용도 실내 테이블 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나타남
- 이에 이들 기존기관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실내 프로그램보다는 전남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여행프로그램으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프로그램을 특화함. 이들 여행프로그램은 지역과 만나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향유하는 커뮤니티형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참여자들에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 이들에게 결여되었던 사회적 연결망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
- 전남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가 우울증, 사회적 고립 자가진단 앱을 자가조사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변화 측정에 활용함

#### 4) 경북 지역거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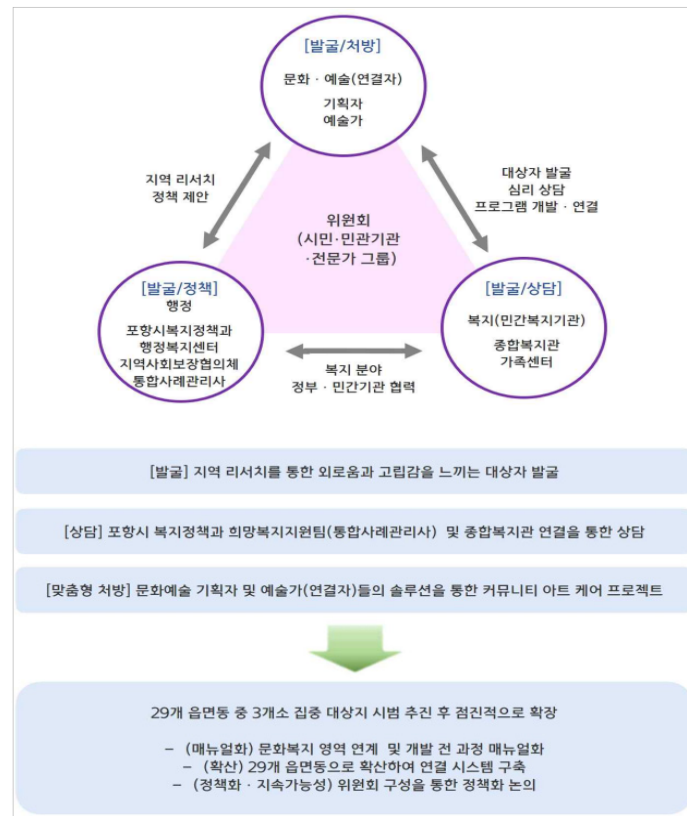
- 운영지역 : 포항시
- 운영기관 : 포항문화재단(담당인력 3명)
  - 운영센터 : 3개 기관  
송도동행정복지센터, 우창동행복복지센터, 오천행복복지센터 \* 담당인력 3명
- 협력네트워크 : 총 21개 기관

〈표 4-35〉 경북 지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지자체	사회 복지	의료 보건	상담	교육	시민 단체	문화 예술	개인	기타	계
4	6	-	3	4	1	3	-	-	21

- 사업비 : 13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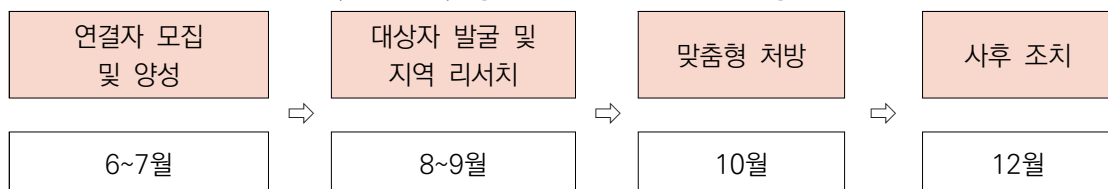
## ○ 추진체계



[그림 4-32] 경북 지역거점센터 추진체계

## ○ 추진일정

〈표 4-36〉 경북 지역거점센터 추진일정



## ○ 참여자 발굴 및 모집

- 주요대상 : ①중장년, ②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 ③청소년
  - 포항 전역(포항 시민), 송도(중장년), 우창/장량(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오천(청소년)
- 대상발굴 : 협력기관 연계형, 대상 특화형(중장년, 청소년), 열린시민 참여형
  - (협력기관) 포항시 복지정책과(20명 내외/11월 추진)
  - (열린시민참여형) 발굴 프로그램(송편 가족의 탄생) 추진(청소년)
    - \*문화예술기획자-복지기관-통합사례관리사, 복지기관, 거점 공간 및 활동가 연계를 통한 대상 발굴

\*‘연결자’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여 지역 자원을 연결할 활동가 양성

\*기존 계획 대비 축소하여 7명 양성(예술가 6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

● 연결자 교육 워크숍 운영계획

- ▶ 사업목적: 지역 3개소 거점별 연결자를 중심으로 동네별 협력체계 구축 및 리서치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 연결
- ▶ 참여대상: 연결자 및 거점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가
- ▶ 주요내용
  - ① 송도, 우창, 오천 3개소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탐방·조사를 통한 인적·물적 연결 자원 파악
  - ②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동네별 협력체계,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연결 활동  
⇒활동 거점 및 활동가 발굴, 거점 공간별로 예방형·처방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③ <문화로 만드는 마니또 워크숍>을 통한 연결자 역량 강화

○ <사회적 연결 척도> 측정 및 인문·문화 상담

- 참여자 : 사전 135명 / 사후 104명

〈표 4-37〉 경북 지역거점센터 사전/사후 사업 참여자 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참여자 계	사업대상 계 (2~4단계)
사전	12	15	12	43	53	135	70
사후	4	4	6	42	48	104	52

- 인문·문화 상담 ※ 예약제 상담운영

- 운영장소 :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이웃사촌복지센터, 포항시가족센터
- 운영인원 : 3명
- 운영방식: 협력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한 운영
- 운영실적

〈표 4-38〉 경북 지역거점센터 인문상담 운영실적

구 분	인문상담 전문인력 수	인문상담 총 건수	인문상담 전문인력 중 학위 또는 자격증 보유 현황	
			보유자 수	학위 / 자격증 보유 내역
지역거점센터	0명	0건	0명	해당 없음
운영거점센터	0명	0건	0명	해당 없음
협력네트워크	3명	33건	3명	상담대학원 석사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상담사 2급) 상담대학원 박사 : 사회복지학과 전공, 사회복지사 1급
계	3명	33건	3명	

○ 사업대상자 사후관리

- (개선) 연결자 양성교육 참여를 통한 활동가로서 역할 전환
- (부동) 지역사회 마니또 프로그램 참여로 지역과의 연결지점 마련
- (악화) 전문 상담기관 및 복지기관의 전문 상담프로그램 연결, 상담 후 공동체 프로그램 연계

○ 특징

- 경북 포항시는 지역의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복지 영역의 연계와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보편적 문화안전망 구축과 함께 지역의 사회적 환경에 의한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 포항문화재단은 문화도시사업에 선정돼 현재 5년차 사업을 진행 중임. 2023년 시행한 사업 중 솔루션 프로젝트가 문화로사회연대 사업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음. 시범 사업은 포항이 경북에서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많다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1인 가구의 외로움과 고립감에 관심을 갖고 시작됨
- 포항문화재단은 이전에 지역 내 사회적 고립 완화를 목적으로 솔루션 프로젝트 ‘문화로 연락하랴’ 프로젝트를 추진한 경험이 있음

● ‘문화로 연락하랴’ 프로젝트

. 문화·복지 기관 연계 및 사회복지사, 지역 예술가, 지역에서 이어 나갈 수 있는 자원 연결을 통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완화 프로젝트

- 지자체 및 복지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 체결
- 마중물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함에 있어 문화와 복지를 연계시키고 연결자를 선정하여 지역 자원 조사와 대상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사업 프로그램을 예방형 프로그램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
  - . 예방형 프로그램 : 마중물에 해당하며 일반인 등 대상자 제한 없이 시행
  - . 맞춤형 프로그램 :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한 분들을 대상으로 특화 시행
- 기초생활수급자,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 어르신들, 돌봄이 필요한 엄마들 등 대상자를 세분하고 대상자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당초 3개 프로그램 기획했으나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당초 계획 대비 4배 증가

## 5) 경남A 지역거점센터

○ 운영지역 : 창원시

○ 운영기관 : 경남문화예술진흥원(담당인력 1명)

- 운영센터 : 2개 공간 (동남아트센터, 문화대장간 풀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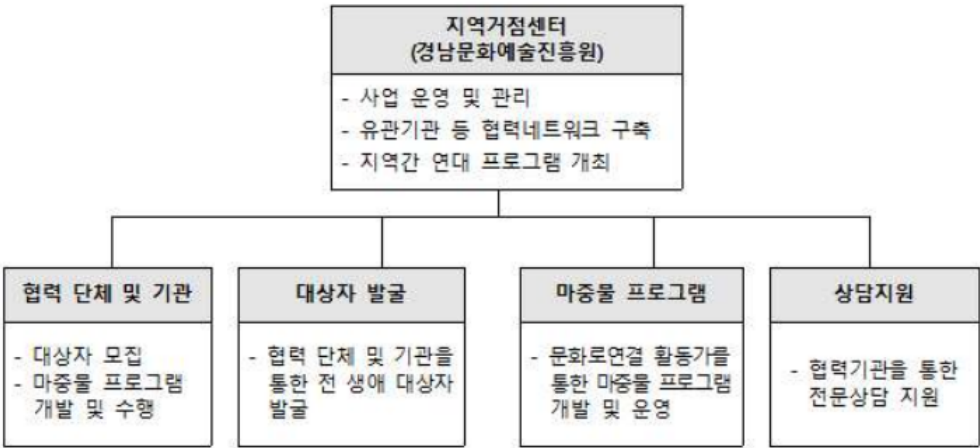
○ 협력네트워크 : 총 12개 기관

〈표 4-39〉 경남A 지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지자체	사회 복지	의료 보건	상담	교육	시민 단체	문화 예술	개인	기타	계
-	2	-	2	-	3	2	1	2	12

○ 사업비 : 13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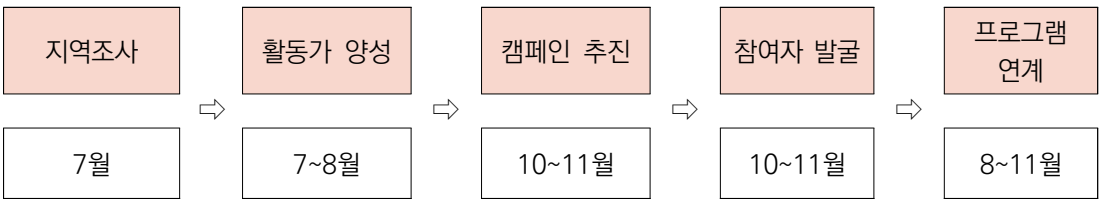
○ 추진체계



〔그림 4-33〕 경남A 지역거점센터 추진체계

○ 추진일정

〈표 4-40〉 경남A 지역거점센터 추진일정



○ 참여자 발굴 및 모집

- 주요대상 : ① 청소년, ② 청년, ③ 중장년, ④ 노년, ⑤ 이주노동자

- 대상발굴 : 협력기관 연계형, 대상특화형, 열린시민참여형

(협력기관) 경남청소년지원재단(청소년), 창원청년비전센터(청년), 창원복지재단,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주민자치회, 활동가

※ 활동가 : 마중물 프로그램을 운영할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연결 척도〉 측정 및 인문·문화 상담

- 참여자 : 사전 266명, 사후 59명

〈표 4-41〉 경남A 지역거점센터 사전/사후 사업 참여자 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참여자 계	사업대상 계 (2~4단계)
사전	17	18	32	90	109	266	140
사후	3	3	5	21	27	59	21

- 인문·문화 상담

- 운영장소: 경남청년마음건강센터 청년마음단디, 문화대장간 풀무 등 협력 공간으로 연계하여 진행
- 운영인원 : 직접운영 및 협력네트워크와의 협력 운영
- 운영방식 : 문화예술치유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예술인을 돌봄 활동가로 양성하여 문화로 돌봄 활동 추진

●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 ▷ 사업목적: 마중물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고립·은둔 대상자에 대한 이해
- ▷ 참여대상: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마을 활동가, 문화예술가 등
- ▷ 주요내용: 특강을 통한 고립·은둔 대상자에 대한 이해 및 사례 탐구

• 운영실적

〈표 4-42〉 경남A 지역거점센터 인문상담 운영실적

구 분	인문상담 전문인력 수	인문상담 총 건수	인문상담 전문인력 중 학위 또는 자격증 보유 현황	
			보유자 수	학위 / 자격증 보유 내역
지역거점센터	2명	0건	0명	해당 없음
운영거점센터	0명	0건	0명	해당 없음
협력네트워크	0명	0건	0명	해당 없음
계	2명	0건	0명	

○ 사업대상자 사후관리

- (개선) 동호회, 소모임 활동 제안
- (악화) 청년마음단디·경남청년마음센터·창원청년플랫폼(청년), 창원복지재단·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전 생애) 연계 지원

## ○ 특징

-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10년간 ‘문화우물’ 사업, 지역 공동체 기반 생애전환기 대상 특화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쓸만한교’ 사업 등을 추진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 · 복지기관 · 지역문화재단 · 협력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
- 민간전문가인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PM)가 시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전체 연결망의 매개자로 역할
- 사업 준비단계에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사, 생애전환학교 쓸만한교 출신 활동가, 예술인 등 26명으로 구성된 ‘문화로연결활동가’들이 모여 특강, 소모임 토론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사전 학습 진행. 이 활동가들이 사업 전반에 매개자로서 역할을 담당함
- 민간전문가 PM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협력하여 기관 협력 네트워크(여성가족재단, 청소년지원센터, 창원청년비전센터, 창원복지재단, 청년마을 단디 등) 구성. 킥오프 워크숍에서 각 기관 고유의 역할을 발표해 기관 간 이해를 도모하고, 본 사업에서 기관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설계
- 마을 기반 사업을 위해 ① 다양한 마을 당사자들(예술인 공간, 사회적협동조합, 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봉림사회연대’를 만들고, 행정복지센터(복지팀장), 주민자치회, LH행복주거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참여자 발굴 및 마을형 프로그램(5개, LH행복주거지원센터 연계) 진행 ② ‘푸른내서주민회’와는 마을형 프로그램(4개, 주민회 연계)과 더불어 ‘어떻게 고립에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마을토론회 개최
- 경남자립 지원 전담기관인 한살림 경남과 ‘사업비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홍보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기자단’(5명)을 두어 사업 진행과정 정리와 홍보 진행
- 협력기관들과 운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 자립준비청년 : 4개 프로그램(경남자립지원전담기관+문화통장)
  - . 은둔 및 고립청년 : 2개 프로그램(창원청년비전센터+문화공간 만개, 창원청년비전센터 +굿데이남성중창단)
  - . 학교밖 청소년 : 1개 프로그램(경남청소년지원재단+사회적협동조합 놀지)
  - . 중장년 : 9개 프로그램(푸른내서주민회, 사회적협동조합 한들산들, 복합문화공간 어뮤즈, 문화공간 만개+문화로연결활동가)
  - . 중장년 지지자+대상자 1+1프로그램 : 4개 프로그램(창원시 봉곡평생학습센터, 문화공간 만개+문화로 연결활동가, LH주거행복지원센터)
  - . 노년 : 4개 프로그램(LH주거행복지원센터)
  - . 다문화 : 2개 프로그램(창원시 봉곡평생학습센터)
  - . 남성 : 1개 프로그램(문화공간 만개+한살림경남)
  - . 모든 연령 : 1개 프로그램, 문화공간 만개+문화로 연결활동가)

## 6) 경남B 지역거점센터

○ 운영지역 : 김해시

○ 운영기관 : 김해문화관광재단(담당인력 5명)

- 운영거점센터: 6개 기관(담당 인력 12명)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김해청년다움센터, 수로문화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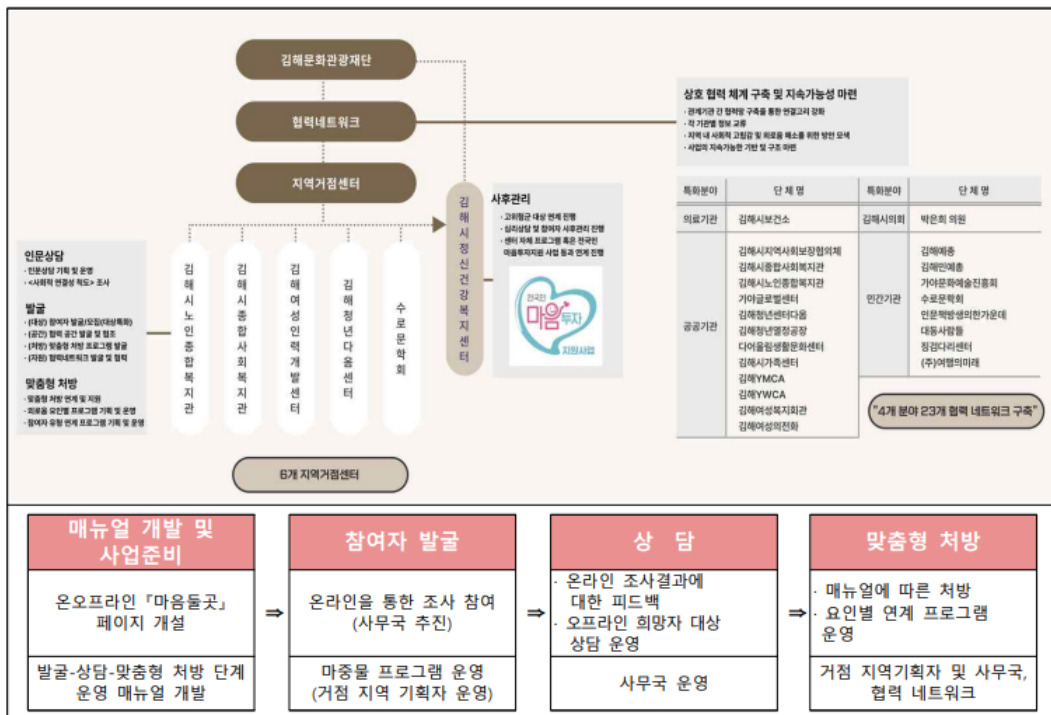
○ 협력네트워크 : 총 20개 기관

〈표 4-43〉 경남B 지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지자체	사회복지	의료보건	상담	교육	시민단체	문화예술	개인	기타	계
2	4	1	2	-	1	6	2	2	20

○ 사업비 : 13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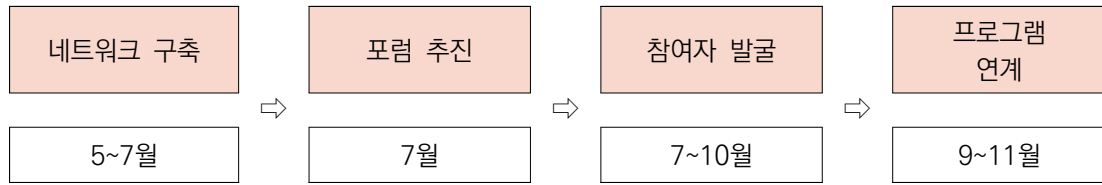
○ 추진체계



[그림 4-34] 경남B 지역거점센터 추진체계

○ 추진일정

〈표 4-44〉 경남B 지역거점센터 추진일정



○ 참여자 발굴 및 모집

- 주요대상 : ① 시니어, ② 이주배경청소년, ③ 한센인, ④ 사할린동포, ⑤ 청년, ⑥ 경력단절여성
- 대상발굴 : 협력기관 연계형, 대상특화형, 열린시민참여형
  - (협력기관/대상특화형) 시니어(김해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김해종합사회복지관), 한센인, 시니어(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할린동포(수로문화회), 청년(김해청년다움센터), 경력단절 여성(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 (열린시민참여형) (열린시민참여) 김해형 행복마을 만들기(김해피/9~10월 추진), 마음 둘 곳(10월~11월 추진), 시민주도축제와야G(11월), 김해분청사기축제(11월)

○ 〈사회적 연결 척도〉 측정 및 인문·문화 상담

- 참여자 : 사전 620명 / 사후 228명

〈표 4-45〉 경남B 지역거점센터 사전/사후 사업 참여자 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참여자 계	사업대상 계 (2~4단계)
사전	39	56	87	200	238	620	343
사후	8	22	37	64	97	228	124

- 인문·문화 상담

- 운영장소: 김해보건소,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인문책방 생의한가운데(예정)
-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는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진행 중
- 운영인원 : 직접운영 및 협력네트워크와의 협력 운영
- 운영실적

〈표 4-46〉 경남B 지역거점센터 인문상담 운영실적

구 분	인문상담 전문인력 수	인문상담 총 건수	인문상담 전문인력 중 학위 또는 자격증 보유 현황	
			보유자 수	학위 / 자격증 보유 내역 주)
지역거점센터	0명	0건	0명	-
운영거점센터	13명	81건	13명	상담심리치료,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언어청각치료학과, 간호학과 / 자살예방지도사, 원예상담사, 사회복지사, 교류분석상담사, 도형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심리분석사, 국제아토피상담사, 진로적성상담사, 지역아동교육지도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가족상담사, 가족심리상담사, 놀이심리상담사, 분노조절상담사, 아동청소년폭력예방상담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부모교육상담사, 심리상담사, 전문상담사
협력네트워크	2명	15건	2명	
계	15명	96건	15명	-

○ 사업대상자 사후관리

- (개선) 김해보건소(정신건강보건센터)와의 연계하여 지속 관리, 운영매뉴얼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문화예술 참여 정보 제공
- (부동) 김해보건소(정신건강보건센터)·복지기관 연계 지원
- (악화) 김해보건소(정신건강보건센터) 연계

● 김해보건소 협력 내용

- ▷ 각 지역거점별 고위험군 대상 연계 심리상담 진행
- ▷ 센터 자체 프로그램 혹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후관리 진행

○ 특징

- 김해는 베드타운 성격이 강한 지역으로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이주민 및 타 지역 출신 주민이 많음. 이들은 지역 내 정주성(定住性)은 낮고 사회적 연고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이런 맥락에서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이주민’(삶의 배경 때문에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집단 - 산업단지에 남편을 따라온 여성, 베드타운 지역 여성, 사할린/중국동포, 한센인 마을 등)에 집중했으며, 노인·청년의 경우 농촌지역 노인이나 일자리가 없어서 이주를 많이 하는 20대 청년 등 보편적인 대상을

구체화하고, 온라인·길거리 등에서 무작위 모집하는 방식 지양

- 협력네트워크인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경우, 기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책적으로 사각지대(농촌지역의 차상위계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보완 등)을 찾아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답습하지 않도록 공동 논의 진행
- 인문상담은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 운영거점센터나 협력네트워크에 있는 상담 관련 자격증이나 학위(상담심리치료,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언어청각치료학과, 간호학과, 자살예방지도사, 원예상담사, 사회복지사, 교류분석상담사, 도형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심리분석사, 국제아토피상담사, 진로적성상담사, 지역아동교육지도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가족상담사, 가족심리상담사, 놀이심리상담사, 분노조절상담사, 아동청소년폭력예방상담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등)를 보유한 15명의 전문인력을 통해 실시
- 인문상담의 경우 '정신건강'이라는 단어가 낙인을 찍는 듯한 느낌을 주어 참여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발생하자 프로그램 내부에 자연스럽게 상담 요소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환 추진함(예 : 원예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화초를 심거나 관리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끌어내는 방식)
- 사회적 연결척도 조사 진행 시, 6~8개국의 이주민 대상으로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등 인구 비례를 반영해 조사지를 번역하여 제공. 다만, 다양한 언어권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것과 통역자가 함께 배석해야 하는 어려움 발생
- 이주민, 노인, 청년, 사할린동포, 한센인 등 지역 특성과 필요를 기반으로 각 기관·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참여자별 동기와 욕구와 기관·단체의 전문성을 맥락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 민간단체의 문화적 역량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함

.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김해청년다움: 세대 교류 노래 프로그램

.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여행의 미래: 여행 프로그램

- 외로움 운영 매뉴얼 제작하여 사업 운영 및 홍보에 활용

● 외로움 운영 매뉴얼 제작

- ▶ 추진시기: 2024. 5월 ~ 8월
- ▶ 운영주체: (재)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 ▶ 주요내용
  - 심리, 복지, 문화, 정신보건 등 지역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결척도 조사를 분석하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시민들이 부담감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제작
  - 외로움 심리지수와 사회 관계 지수에 따른 경도 구분 및 약식 처방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별 운영 매뉴얼 수립
  - 사회적 처방에 반영될 수 있는 지역자원 프로그램 조사 및 운영지도 제작

-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협의회가 월 1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각 기관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 연계도를 높임. 특히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원사업 구조가 아닌 협력사업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됨

● GIM-HAE'PPY 연결 라인

▷ 운영시기: 2024. 5월 ~ 2024. 11월

▷ 구성방향: 약 15명 내외 구성

· 공공기관 : 김해복지재단, 김해시보건소, 김해종합사회복지관, 진영도시재생센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가야글로벌센터, 김해청년센터다움, 구산동종합복지관, 삼방동도시재생센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 민간기관 : 김해YMCA, 김해YWCA, 김해여성복지회관, 징검다리센터

· 문화단체 : 대동사람들, 수로문학회, 가야문화진흥회, 생의한가운데, 김해예총, 김해민예총

▷ 운영방향

· 참여자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각 운영 채널 등에 홍보 지원

· 매월 정례회의를 운영 사업에 대한 워크숍 및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 협력네트워크 포럼 개최 Don't worry GIM-HAE'PPY

▷ 행사명: Don't worry GIM-HAE'PPY

▷ 주요내용

· 지역 사회 내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지역 이슈 발굴

· 사업 운영 주요 사례 공유 및 거점 기획자들의 역량강화

· 포럼 형태로 운영 협력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마중물 행사

## 1. 영역별 분석

### 1) 사업에 대한 이해 노력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 고취, 사회적 연결을 통한 사회통합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이러한 유형의 사업은 이전에 문화영역에서 실시한 사업들과 그 성격이 많이 다르므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사업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함
- 협력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관기관과 협력기관들 사이에 사업목적 및 운영을 위한 일정한 준비 과정이 있었으며, 사업 이해를 위한 거점센터간 다양한 노력들이 기울여진 것으로 나타남
- 영역별 만족도에서 사업 취지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사업에 대해 그만큼 많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줌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으로 대상자 발굴(4.09%)외에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운영(20.5%), 사업방향 설정(15.9%)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사업이 큰 방향성은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개선, 보완의 여지가 적지 않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2024년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9개 참여 기관(거점센터) 가운데 서울지역거점센터(충신대 산학협력단)와 강원A 지역거점센터(춘천문화재단) 등 2개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모두 올해 처음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어서 불가피하게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사업 운영과정에서 기존 문화예술 참여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부족, 인문상담에 대한 이해 미흡, 대상이나 유형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한계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나타났으나, 이러한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음
- 대상별로 사업 유형이 세분화되고, 다양한 유형에 대응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활동가 등이 협력하여 차별적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 등은 전반적으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이 거점별로 사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2)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과제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9개 지역거점센터별로 지자체, 사회복지, 의료보건, 상담, 교육, 시민단체, 문화예술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남
  - 비록 활용도 차원에서 광역거점형 기관에 비해 거점확산형 기관들이 의료보건, 상담, 교육, 시민단체 등 자원들을 다소 미흡하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음
- 협력기관 대상 설문조사에서 협력기관들은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을 통해 평균 4.3개의 새로운 기관들과 교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0% 이상이 이러한 기관들이 자신들이 기존에 활동하던 영역 이외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관들과의 교류였던 것으로 파악됨
- 사업에 참여한 협력기관들은 사업취지(82.2점), 사업 내용(80.3점)에 이어 기관 간 협력 관계 형성(79.5점)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이 사업을 특징짓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분석됨
- 그러나 일부 거점센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네트워크 모임이 정기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운영과정 중에 긴밀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사업진행 과정에서, 구축된 네트워크가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3) 대상자 발굴 과정의 어려움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운영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가 대상자 발굴 영역으로 나타남
- 9개 지역거점센터가 대상자 직접 발굴을 위한 마중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는 않고, 대신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대상자 간접 발굴 방법이 더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경향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
  - 서울과 춘천 등 2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지역의 거점센터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하였고, 또 사업 추진기간이 짧아 직접 발굴을 위한 마중물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기획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 직접 발굴은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는 반면,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대상자 발굴 가능
  -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쉽게 드러내지 않음
  -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는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이 잦은 다양한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어, 직접 발굴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잠재적인 대상자 발견 가능

-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 협력기관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사업 운영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으로 사업대상자 발굴(40.9%)을 꼽았으며, 개선 필요 사항에서도 사전/사후 조사(57.9점)에 이어 두 번째(57.1점)로 높게 지적됨
- 그러나 동시에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도 ‘적합한 대상자 발굴’(20.5%)이 ‘참여주체들간 사전공감대 형성’(29.5%)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나 대상자 발굴이 어려지만 사업 특성상 이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냄

#### 4) ‘맞춤형 프로그램’ 대상 선정 방식 개선 필요성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회적연결지수’를 조사함. 이 지수 측정에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심리학회와 공동으로 개발한 설문지 활용되고 있음
  - ‘사회적연결지수’ 조사에는 모든 참여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참여자 중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인문상담 또는 심리상담 시행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에서 통상 ‘사전/사후조사’로 불리고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대상 선정 조사는 몇 가지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첫째, 협력기관 대상 조사에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개선필요 사항으로 ‘사전/사후조사’가 5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사업 운영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동 항목이 사업대상자 발굴(40.9%),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20.5%), 사업방향설정(15.9%)에 이어 네 번째(13.6%)로 지적됨
  - 둘째, 설문 실시 과정 상의 어려움임.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자가 대부분 50~90대 등 노령층이며 현행 20개 문항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과 문항에 대한 이해력이 낮아 옆에서 설문작성을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설문 내용 중 개인적으로 민감한 질문들이 있다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됨
  - 셋째,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과 같이 내밀한 부분의 드러냄에 대한 거부감과 진입장벽. 설문조사를 해서 일정 등급을 받아야지만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프로그램 참여에의 진입장벽으로 느낌. 또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
  - 넷째, 사전 조사를 통해 비적격자임(1급 또는 5급)에도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금지시키지 못하는 현실. 실제로 사후조사 응답자들을 살펴보면, 사전 조사에서 5등급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사회적 연결지수’는 5단계로 분류되는데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대상자는 1단계(심각집단)와 5단계(자립집단)를 제외한 2~4단계 집단임

- 다섯째,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후조사 설문에 응답하지 않는 문제. 이로 인해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참여하는 대상이 동일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는 문제
- 이런 이유로 맞춤형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설문조사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5) ‘맞춤 없는’ 맞춤형 처방

- 이 사업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맞춤형 처방’을 한다는데 있음
- 맞춤형 처방은 운영 과정에서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체화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맞춤형인 것은 대상자의 외로움 유형, 수준 등에 맞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의미에서임
- 그러나 실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운영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참여자 외로움 유형과 수준에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협력기관 설문조사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적용된다거나 기존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본 사업을 위해 일정 부분 개선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응답하였으나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에 따르면, 기존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일부 변경하는 선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맞춤형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들이 유형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유형화에 조응하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과 대상자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매개자가 존재하여야 함
-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사전/사후조사와 프로그램 간의 상관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런 맥락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관들은 사업중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운영’(20.5%)을 두 번째로 꼽았으며, 사업개선 필요사항으로 동 사업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56.7점)을 세 번째로 지적함
- 지역거점센터 모두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역 내 인구학적 측면 사전조사를 통한 명확한 타겟층 구성, 문화-의료보건-복지-행정 등 각종 외부단체와 협력을 통한 연계 프로그램 구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특정 목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개발 성과는 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요인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임

- 외로움 정도, 사회적 관계망,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개인별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진단도구 구축의 미흡함
  -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문화센터,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적극적인 협업 경험 및 역량 부족
  - 이러한 이유 외에도 정신 건강과 관련된 낯선 용어들의 이해와 숙지, 지역 자원조사, 마중물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자 모집, 사회연결척도 검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많은 업무들을 단 기간내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등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향후 사업의 특성화 및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

## 6) 인문상담의 차별적 특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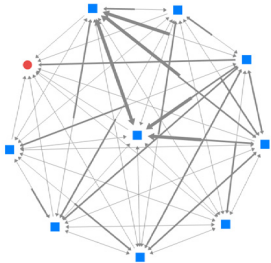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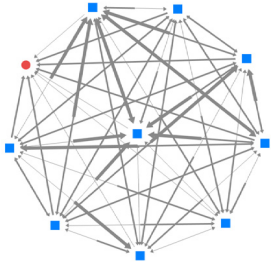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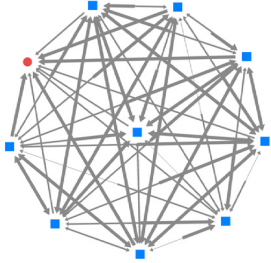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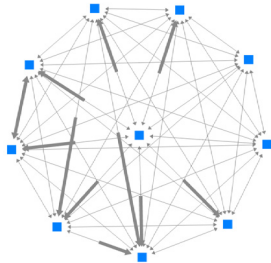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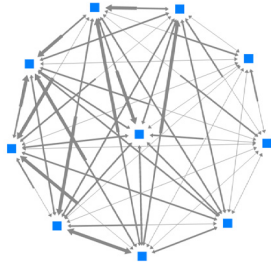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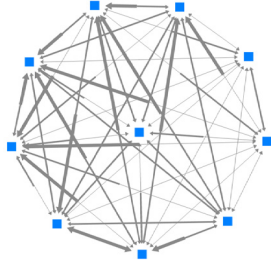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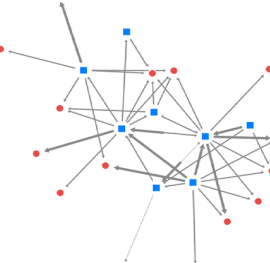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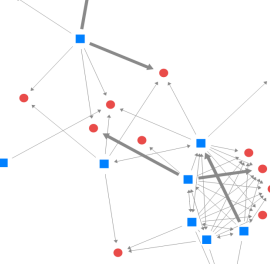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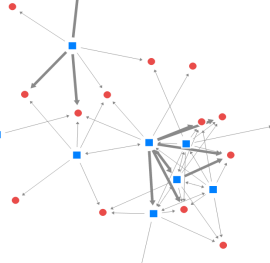
- 인문상담은 사전 조사 설문을 마친 사업 참여 대상자 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제공. 이를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구축 운영
- 참여자 조사 결과는 인문상담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평가(85.5%)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기관 조사에서는 상담자/상담기관들이 상담 이전에 피상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 상담자들은 상담 분야의 전문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인력으로 상담의 전문성 또한 확인됨
- 다만, 이루어진 상담의 경우 일반 상담과 다른 ‘인문상담’의 특성이나 차별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인문상담’이라는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역이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실례가 있는지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부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인문상담을 기존의 심리상담과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러한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인은 어려움
- 인문상담이 전문성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인문상담자에게 어떤 능력이나 자격, 경험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거점센터별로 인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는 기관이 있고, 또 실시한다고 해도 대부분 기존 심리상담을 시행하던 인력이 참여함

## 2. 연결망 분석

### 1) 협력단체 연결망 분석

- 문화로 사회연대사업에 참여한 협력단체의 사업 참여전, 참여중, 참여후 단체들 간의 연결망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실시
- 그림에서 네모 점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단체를 의미하며 동그라미 점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단체들이 그들과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단체를 의미함. 그리고 노드들(단체)을 잇는 선분은 관계의 유무를 의미하며 선분의 두께는 관계의 강도를 의미함. 참여전, 참여중, 참여후의 연결망 강도는 모두 약함(1점), 보통(2점), 강함(3점)이라는 3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 연결망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 거점센터에서 모두 참여전보다 참여중, 참여후에 교류하고 있는 단체 연결망의 관계가 보다 촘촘해졌으며, 연결망의 크기가 커진 경우도 있음
  - 김해문화재단의 경우 설문에 참여한 협력단체들이 사업 참여전에 이미 약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문화로 사회연대사업 참여를 통해 이러한 관계의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춘천문화재단 역시 설문에 참여한 협력단체들이 사업 참여전에 이미 약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사업 참여를 통해 관계의 강도가 강해졌으나, 사업 참여중과 참여후에 연결망구조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 군산문화재단의 경우 문화로 사회연대사업을 통해 연결망의 크기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사업 참여중에 설문에 참여한 단체들 간의 관계가 촘촘하게 형성되었다가 참여후에 약간 느슨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4-35]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단체 사업 참여 전 /중 / 후 연결망 구조의 변화(참여 후는 예상)

지역	참여전	참여중	참여후
김해 문화재단			
춘천 문화재단			
군산 문화재단			

- 문화로사회연대사업 참여 전후에 협력단체 연결망 구조의 변화를 좀 더 정밀하게 측정된 결과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음
  - 총 링크 수는 노드(단체)와 노드 간의 연결이 있는 경우의 총합을 의미함. 평균링크는 설문에 참여한 단체가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단체의 수를 의미하며,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링크는 관계의 강도의 총합을 반영한 단체의 수를 의미
  - 밀도는 가중치가 부여된 연결의 총합을 의미하며, 노드(참여자)간의 연결이 얼마나 촘촘한지를 나타냄. 계산 방법은 가능한 총 관계 수와 실제로 맺어진 관계 수의 비율로 구함
  - 마지막으로 평균 거리는 연결망 내에서 노드 간의 거리를 의미하며, 노드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를 의미함
- 세 거점센터의 협력단체들은 문화로사회연대사업에 참여하면서 전체 네트워크의 크기(총링크수)가 늘어났으며, 설문에 참여한 단체가 교류하고 있는 평균 단체의 숫자도 대부분 늘어났고 단체 간의 연결이 얼마나 촘촘한지를 나타내는 밀도 역시 강도가 강해지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음
  - 다만, 김해문화재단과 춘천문화재단의 경우 앞서도 언급했듯이 설문에 응답한 협력단체들이 사업 참여전에 이미 약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링크수와 평균링크수는 변화가 없었으나, 관계의 강도를 반영한 평균링크수와 밀도의 경우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문화로사회연대사업 참여를 통해 협력단체들 간의 관계가 더욱 촘촘해졌음을 알 수 있음
  - 군산문화재단의 경우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 참여를 통해 협력단체간의 연결망 규모와 관계맺음의 강도가 모두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평균거리는 연결망에서 노드(단체) 간의 거리를 의미하는데, 김해문화재단과 춘천문화재단은 변화가 없었으며, 군산문화재단의 경우에만 거리가 줄어들음
  - 이는 총링크수와 평균링크와 마찬가지로 사업 참여전에 이미 협력단체들 간에 연결망이 이미 구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평균거리 역시 변화가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군산문화재단의 경우 문화로사회연대사업을 통해 협력단체 간의 관계가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음

〈표 4-47〉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 / 중 / 후 협력단체 연결망 속성의 변화

(단위: 개, %)

구분		총 링크수	증가율 <sup>a</sup>	평균 링크	증가율	평균 링크 <sup>b</sup>	증가율	밀도 <sup>b</sup>	증가율	평균 거리	증가율
전체	참여전	72	5.1	7.9	5.9	11.8	53.8	0.868	64.7	1.296	-3.5
	참여중	76.7		8.5		16.1		1.241		1.193	
	참여후	75.7		8.3		18.1		1.430		1.251	
김해	참여전	81	0	9	0	12.8	77.3	1.278	77.4	1	0
	참여중	81		9		16.9		1.689		1	
	참여후	81		9		22.7		2.267		1	
춘천	참여전	90	0	9	0	10.2	58.8	1.133	58.9	1	0
	참여중	90		9		15.9		1.767		1	
	참여후	90		9		16.2		1.8		1	
군산	참여전	45	24.4	5.6	25	12.3	25.2	0.194	14.9	1.887	-7.2
	참여중	59		7.4		15.4		0.266		1.578	
	참여후	56		7		15.4		0.223		1.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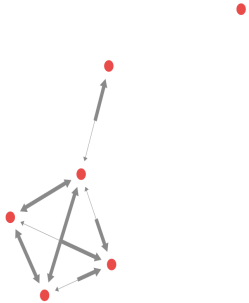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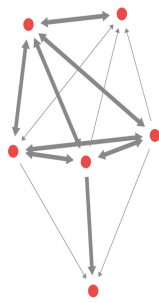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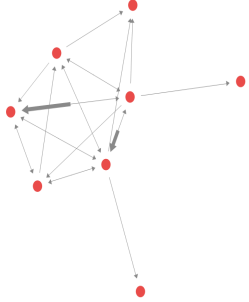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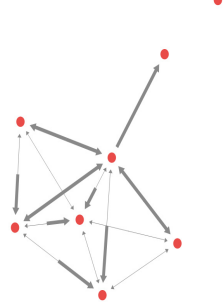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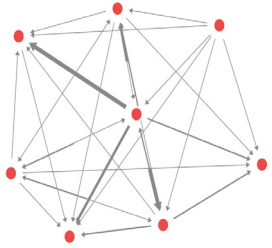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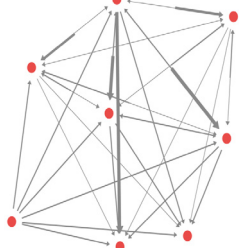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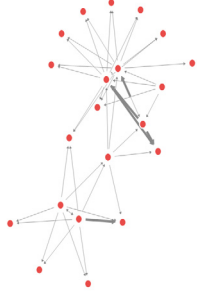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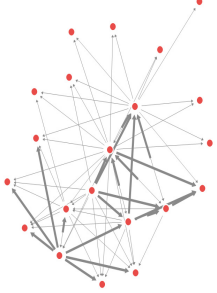
a: 참여전 대비 참여후 네트워크 속성의 변화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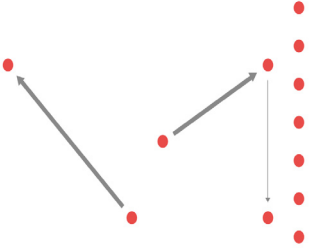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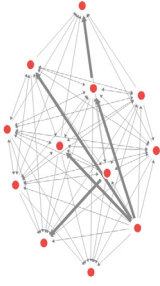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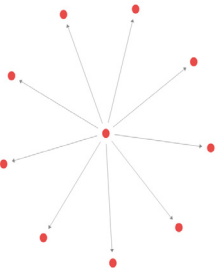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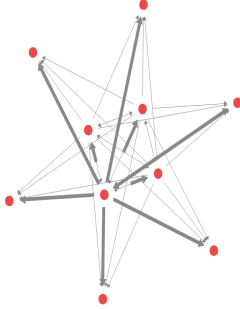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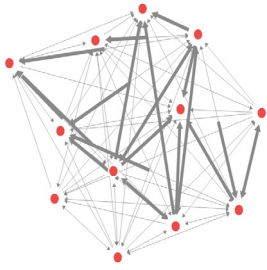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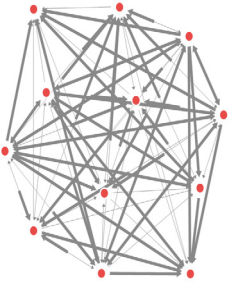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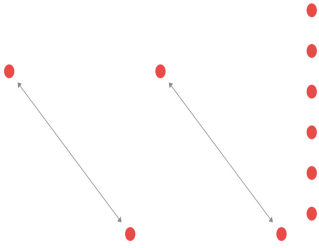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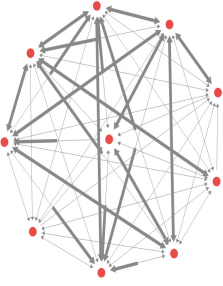
b: 가중치 적용

## 2) 참여자 연결망 분석

- 문화로 사회연대사업 참여 전후 참여자들의 연결망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함
  - 아래 [그림]에서 동그라미 점은 노드(node)를 나타내며, 각 프로그램별 참여자를 의미함. 그리고 노드를 잇는 선분은 관계의 유무를 의미하며 선분의 두께는 관계의 강도를 의미함
  - 참여전과 참여후의 연결망 강도는 모두 3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몰랐음/잘 모름(0점), 알았음/알고 지냄(1점), 친했음/친하게 지냄(2점)으로 코딩
- 연결망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후에 참여자들 간의 연결망이 보다 촘촘해졌으며, 연결의 강도도 강해졌음을 알 수 있음
  - 김해문화재단 프로그램 1과 원주 연세대산학단 프로그램 2처럼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분절적인 연결망의 구조(단절된 개인과 2인 연결망만 존재)를 보였으나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참여자 간 연결망이 하나의 거대한 집단의 형태로 형성되었으며, 관계의 강도도 강해진 사례가 존재함
  - 군산문화재단 프로그램 2, 원주 연세대산학단 프로그램 1, 포항문화재단 프로그램 2와 같이 기존에 하나의 집단으로 연결되어 있던 참가자들 간의 연결 강도(친밀함의 정도)가 문화로 사회연대사업 프로그램 참여 이후 더욱 강해진 사례도 존재함
- 반면, 춘천문화재단의 2개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거점센터의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문화로사회연대사업 참여를 통한 연결망 형성 및 관계의 강화가 상대적으로 약함

[그림 4-36]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전후 연결망 구조의 변화

센터	프로그램	참여전	참여후
경남문화 예술진흥원	프로그램1		
	프로그램2		
군산문화 재단	프로그램1		
	프로그램2		

센터	프로그램	참여전	참여후
김해문화재단	프로그램1		
	프로그램2		
원주연세대 산학단	프로그램1		
	프로그램2		

센터	프로그램	참여전	참여후
춘천문화재단	프로그램1		
	프로그램2		
충남문화재단	프로그램1		
	프로그램2		

센터	프로그램	참여전	참여후
포항문화재단	프로그램1		
	프로그램2		
영암문화재단	프로그램1		

- 문화로사회연대사업 참여 전후에 협력형 단체 연결망 구조의 변화를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가 아래 <표 4-48>에 제시되어 있음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전체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참여 전후에 링크수가 2배가량 늘어났으며, 밀도 역시 약 2.2배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링크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참여자들 간의 관계 맺음이 활발해졌음을 의미함. 다시 말해, 사회적 고립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문화로 사회연대사업은 유의미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밀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참여자들 간의 관계가 좀 더 촘촘해졌음을 의미함. 따라서, 참여자들 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음을 의미함

- 반면, 연결 정도 분포(degree distribution)의 표준편차와 평균거리는 감소함
  - 연결 정도 분포의 표준편차가 감소했다는 것은 사업 전반을 통하여 참여자들 간의 관계 맺음 정도가 균등하게 변했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연결 정도 분포의 표준편차가 오히려 증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움
  - 평균거리가 감소했다는 것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참여 후에 참여자들 간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거점센터에서 평균거리가 감소했으므로 문화로 사회연대사업 참여를 통해 관계의 결속력이 강해졌음을 알 수 있음
- 거점센터별로 살펴보면 링크수와 관련하여 모든 거점센터에서 참여자들간 평균 링크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김해문화재단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원주 연세대산학단, 춘천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영암문화재단의 증가율이 높음
  - 그러나 영암문화재단의 경우 1개 프로그램만 조사했기 때문에 거점센터별 평균값을 해석하는 데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군산문화재단, 포항문화재단의 평균 링크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밀도와 관련하여 모든 거점센터에서 참여자간 평균 밀도가 증가했으며, 평균 링크수와 마찬가지로 김해문화재단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충남문화재단, 원주 연세대산학단, 포항문화재단의 증가율이 높음
  - 춘천문화재단, 군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연결 정도 분포(degree distribution)의 표준편차와 관련하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원주 연세대산학단, 춘천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포항문화재단은 프로그램 참여 후 감소함. 즉, 이들 거점센터에서는 사업 전반을 통하여 참여자들 간의 관계 맺음 정도가 균등하게 변했다는 것을 의미함
  - 반면, 군산문화재단, 김해문화재단, 영암문화재단은 프로그램 참여 후 연결 정도 분포(degree distribution)의 표준편차가 증가함
- 평균거리와 관련하여 모든 거점센터에서 평균거리가 감소했으며, 특히 춘천문화재단과 충남문화재단의 평균거리 감소율이 가장 높음
  - 그러나 춘천문화재단 프로그램 2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후 모든 참여자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리를 측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게 적절

〈표 4-48〉 거점센터별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후 연결망 속성의 변화

(단위: 개, %, 점)

센터	구분		링크수	증가율 <sup>a</sup>	밀도 <sup>b</sup>	증가율	연결정도 분포의 표준편차	증가율	평균 거리	증가율
전체		참여전	23.9	100.8	0.345	123.4	1.072	-6.9	1.334	-15.7
		참여후	48.1		0.771		0.998		1.125	
경남 문화 예술 진흥원	센터 평균	참여전	18	27.8	0.615	51.4	1.232	-11.1	1.35	-8.7
		참여후	23		0.931		1.096		1.233	
	프로그램 1	참여전	14	50.0	0.8	50.0	1.374	-63.6	1.3	-10.8
		참여후	21		1.2		0.5		1.16	
	프로그램 2	참여전	22	13.6	0.429	54.1	1.09	55.1	1.4	-6.7
		참여후	25		0.661		1.691		1.306	
군산 문화 재단	센터 평균	참여전	39	34.6	0.492	45.1	1.355	20.1	1.362	-0.9
		참여후	52.5		0.713		1.628		1.350	
	프로그램 1	참여전	31	16.1	0.857	41.7	1.691	6.6	1.031	-0.4
		참여후	36		1.214		1.803		1.027	
	프로그램 2	참여전	47	46.8	0.126	68.3	1.019	42.5	1.693	-1.2
		참여후	69		0.212		1.452		1.672	
김해 문화 재단	센터 평균	참여전	6	941.7	0.069	789.1	0.367	269.2	1.125	-1.7
		참여후	62.5		0.6135		1.353		1.106	
	프로그램 1	참여전	3	2833.3	0.038	1755.3	0.433	419.2	1.25	-17.4
		참여후	88		0.705		2.248		1.033	
	프로그램 2	참여전	9	311.1	0.1	422.0	0.3	52.7	1	17.8
		참여후	37		0.522		0.458		1.178	
원주 연세대 산학단	센터 평균	참여전	47.5	102.1	0.477	168.7	1.122	-39.8	1.087	-4.3
		참여후	96		1.281		0.675		1.04	
	프로그램 1	참여전	91	16.5	0.864	44.7	1.754	-60.8	1.173	-11.7
		참여후	106		1.25		0.687		1.036	
	프로그램 2	참여전	4	2050.0	0.089	1373.0	0.49	35.3	1	4.4
		참여후	86		1.311		0.663		1.044	
춘천 문화 재단	센터 평균	참여전	2	100.0	0.062	13.0	0.444	-1.4	1	-50.0
		참여후	4		0.070		0.438		0.5	
	프로그램 1	참여전	2	300.0	0.056	148.2	0.416	110.3	1	0.0
		참여후	8		0.139		0.875		1	
	프로그램 2	참여전	2	-100.0	0.067	-100.0	0.471	-100.0	1	-100.0
		참여후	0		0		0		0	
충남 문화 재단	센터 평균	참여전	12	108.3	0.434	211.4	0.887	-100.0	1.5	-33.3
		참여후	25		1.35		0		1	
	프로그램 1	참여전	20	50.0	0.667	124.9	1.374	-100.0	2	-50.0
		참여후	30		1.5		0		1	
	프로그램 2	참여전	4	400.0	0.2	500.0	0.4	-100.0	1	0.0
		참여후	20		1.2		0		1	
포항 문화 재단	센터 평균	참여전	35.5	66.2	0.437	86.8	2.233	-24.8	1.653	-16.5
		참여후	59		0.817		1.680		1.380	
	프로그램 1	참여전	36	30.6	0.418	32.8	2.219	8.9	1.7	-3.8
		참여후	47		0.555		2.416		1.636	
	프로그램 2	참여전	35	102.9	0.456	136.4	2.247	-58.0	1.605	-30.0
		참여후	71		1.078		0.943		1.123	
영암 문화 재단	센터 평균	참여전	39	97.4	0.007	71.4	0.808	53.0	1.851	-10.5
		참여후	77		0.012		1.236		1.657	
	프로그램 1	참여전	39	97.4	0.007	71.4	0.808	53.0	1.851	-10.5
		참여후	77		0.012		1.236		1.657	

a: 참여전 대비 참여후 네트워크 속성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전체 증가율의 평균은 참여전 전체 평균과 참여후 전체 평균의 변화를 의미함.

b: 밀도는 가중치가 부여된 연결의 총합을 의미함



## 제 5 장

# 2024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성과 분석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성과 분석

제3절 정책 제언



## 1. 성과의 차원 구분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이라는 현대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과 복지 영역을 본격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과는 거점센터나 사업 자체에만 국한한 성과로 평가되기 어려우며, 사업의 취지와 의미, 지향과 운영 과정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에 기반하여 정책적 차원의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다른 한편으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이 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사업 운영 및 이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사업 성과 평가와 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정책적 차원의 평가 포함)는 서로 긴밀히 연계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님. 이런 점에서 성과 분석은 차원을 구분하여 정책 차원의 성과와 사업 차원의 성과로 구분하여 분석

## 2. 사업목적 기반 성과 분석

-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은 다양한 기준과 방식으로 이루어짐. 사전에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여부를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초기에 성과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업 취지와 목적에 기반하여 운영한 후 그 사업이 가지는 다차원의 의미를 성과라는 차원에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음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과 같이 지역문화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모에 선정된 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 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편차 가운데서도 사업이 성격이나 내용상 유사성을 가지며 운영되는 것은 해당 사업이 동일한 ‘사업목적’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때문임
- 성과 분석이 초기에 설정된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되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사업 목적에 기반하여 성과가 분석되어야 한다는 점임
- 이런 점에서 이 연구의 성과는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의 기본 목적, 곧 ‘사회적 연결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완화’라는 차원을 중심으로 분석. 다만, 사업 초기 단계로써

이러한 결과가 사업을 통하여 바로 도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환경 조성의 노력들도 성과 차원에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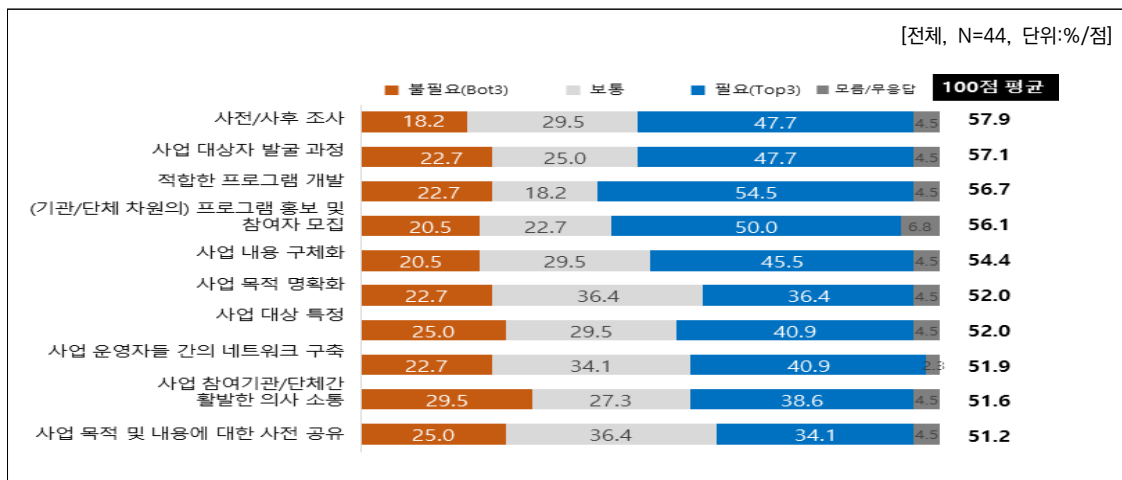
### 3. 거점센터 성과는 운영 평가 중심으로

- 2024년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전국적으로 9개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9개 거점센터 가운데는 2023년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진 센터와 그렇지 못한 센터가 공존
- 새롭게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에 참여한 센터들은 새로운 성격을 가진 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 이해와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함
  - 이러한 환경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거점센터간 편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게 하였으며, 공통 지표를 중심으로 거점센터 운영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를 제기함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이 다른 사업들과 달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시행착오 과정을 통하여 안정적 단계로 전환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거점센터 운영성과는 거점센터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는 차원에서의 평가로 전환하고, 거점센터별 운영성과 평가보다는 사업 목적 대비 실제 운영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
- 또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이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인 만큼, 이 연구에서 개발된 거점센터 운영실태 지표를 점수 중심으로 분석하지 않고 정성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 거점센터 운영실태 지표가 각 거점센터간 운영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관점에서 개발되어 센터간 운영 편차가 큰 현 단계에서는 정량적 비교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 1. 종합 운영 평가

### 1)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대한 높은 공감대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문화분야에서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과 같은 현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실시된 사업으로 사업 취지 및 방향, 내용 등에 대한 이해가 성공의 전제조건이 되는 사업임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참여기관들로 하여금 사업 취지나 목적에 대한 공감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으로 파악됨. 이는 참여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운영 평가에서 ‘참여주체의 사업 취지 이해’가 8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개선 필요사항에서 ‘사업 목적 명확화’가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난 데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처럼 사업 취지나 목적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은 상호 역할 분담 및 프로그램 운영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이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보여줌
  - 거점센터별 차이는 있지만 사전 준비기간으로 평균 10.6일, 횟수로는 8.6회 준비모임을 가짐



[그림 5-1] 사업 개선 필요 사항

- 이러한 공감대는 주관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들이 사업 이해를 위해 자체 학습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것에서도 배경을 찾을 수 있음

- 매개자 역할을 하는 인력들을 ‘문화로연결활동가’, ‘관계리더’와 같은 모임들로 구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업 성격 및 내용에 대한 이해 학습 기회를 마련하는 등 사업 이해를 위한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기울여짐
- 참여 주체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은 현장 실태조사단에 의한 실태 조사에서도 확인됨
- 다만, 사업 취지와 방향성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이해와는 별개로 사업을 진행해 가는 방법론 및 방법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됨
  - 위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 내용 구체화, 사업 대상 특정 등에서 일정한 어려움을 경험한 것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이해된 취지와 사업 내용의 구체화가 쉽지 않았음을 보여줌
-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론 및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2) 전문 인력 투입의 센터간 편차

- 인력에 대한 평가는 ‘상담 인력 수’와 ‘운영 인력 수’로 측정. 현 단계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유형의 사업이 도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이고 사업 내용 또한 구체화해가고 있는 단계인 만큼, 목표 대비 실행과 같은 차원에서 투입 인력 수를 중심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음
  - 현 단계에서 측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향후 사업 운영에서는 전문인력의 목표 투입 수가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기반한 실투입인력 수가 평가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예산대비 투입인력 수를 비교하여 거점센터별 편차를 확인함. 예산 100만원 대비 투입 인력 규모를 비교하면 센터별로 큰 편차가 나타남
  - 센터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투입 예산 100만원 기준 0.47명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센터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기관 F의 경우, 투입 예산 100만원 대비 0.1명의 인력이 투입된 데 비해, 기관 B는 같은 예산 대비 1.41명이 투입되어 14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표 5-1〉 예산 대비 투입인력 수

구분	서울	충남	강원A	강원B	전북	전남	경북	경남A	경남B	합계
사업운영인력	13	119	11	4	2	5	4	4	5	57
프로그램 운영인력	122	119	48	14	4	5	22	30	81	445
인문상담인력	18	17	5	4	2	2	3	54	15	68
투입인력 계(A)	153	255	64	22	8	12	29	88	101	570
투입 재정(B)	180	180	180	110	110	110	110	110	110	1,200
재정대비 인력(A/B)	0.85	1.41	0.35	0.2	0.07	0.1	0.26	0.8	0.91	0.47

- 투입 인력이 사례비 지급인력과 동일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예산 대비 투입인력 규모를 절대적 개념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다만, 예산 효율성 면에서 볼 때,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더 많은 인력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해당 거점센터가 사업 수행에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로는 사용할 수 있음
- 위 표에 기반해 분석할 때,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전문인력 투입에 있어 예산 대비 센터별 인력 투입 규모에 편차가 크고, 인력 운용에 있어서 센터별 자율성의 폭이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음

### 3) 협력 네트워크의 다양성과 취약한 제도화

- 협력 네트워크는 ‘협력기관 발굴 건수’와 ‘기관 간 협력 활동 정도’를 기준으로 측정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을 위해 9개 거점센터들은 총 386개 기관/개인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
  -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지자체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을 띄고 있으며, 발굴관련하여서는 지자체나 사회복지 기관, 의료 보건 기관,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기관, 프로그램 관련하여서는 문화예술, 교육, 시민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경향을 보임
- 어느 분야 기관들과 많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는 거점센터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점센터별로 어떤 부문에 보다 큰 강조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줌

〈표 5-2〉 거점센터별 협력 기관/단체 수

구분	협력네트워크									합계
	지자체	사회복지	의료보건	상담	교육	시민단체	문화예술	개인	기타	
서울	2	6	2	6	14	0	35	0	10	75
충남	40	20	5	2	0	7	21	3	0	98
강원A	5	1	1	2	1	6	0	35	1	52
강원B	1	2	1	1	0	0	1	0	0	6
전북	1	7	0	3	0	0	15	0	0	26
전남	8	3	4	1	2	1	9	0	2	30
경북	4	10	0	2	0	0	3	2	0	21
경남A	2	10	0	6	0	3	2	27	2	52
경남B	4	6	2	2	0	2	7	0	3	26
합계	67	65	15	25	17	19	93	67	18	386

- 거점센터별로 발굴건수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광역거점센터와 기초거점센터간 차이가 나타나며, 같은 유형의 거점센터 내에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특히 강원A나 경남A의 경우 다른 거점센터에 비해 개인과의 협력관계가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보다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교육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다른 기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협력기관 발굴 건수’의 경우, 지역 규모나 특성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기관 유무나 규모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센터별로 비교하며 수치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다만, 적어도 협력기관을 많이 발굴한 곳과 적게 발굴한 곳의 차이는 의미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거점센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기초거점센터(강원B~경남B) 가운데 강원B는 협력기관이 6개에 불과한데 비해, 경남A는 52개로, 그 구체적인 수치의 정확성에 일부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경향적으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관 간 협력활동 정도’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기관들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협력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바, 특히 사업 운영을 위해 정례적 협의 모임을 운영하는지, 운영할 경우 어떤 주기로 운영하는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측정할 수 있음
- 회의의 경우, ‘기관 간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정례 협의와 사업 운영을 위해 연관인력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정기회의가 있음. 거점센터 분석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관 간 협의체의 정례적 회합 여부로, 구성원간 사업 진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회의와는 성격을 달리함
- 현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업 시작 단계에서 타 기관과의 협력, 업무 조율을 위해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사업 진행과정 가운데는 정례 협의체가 운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기관 간 업무 조율을 위한 수시 협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기관 간 협력체계가 안정화되고 지속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정례 협의의 공식화가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향후 협력기관들과의 협의를 정례화,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4) 인문상담: 미흡한 특성화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인문상담 프로그램을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도입. 이 사업에서 실시된 인문상담에 대해서는 ‘상담 건수’, ‘상담자 전문성’, ‘인문상담 특성화 여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

- 인문상담은 총 2,423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인문상담 건수는 기초거점에 비해 광역거점에서 일반적으로 더 많이 실시되었으나 특정 기초 거점은 광역 거점 못지 않게 많은 건수의 인문상담을 실시하였음
- 인문상담은 대상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실시되는 만큼, 상담 건수 자체로 거점센터 평가에 반영하기는 어려움. 다만, 2~4단계에 해당하는 대상자 대비 상담건수는 2~4단계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지표로 의미를 가짐
  - 사전 조사에서 2~4단계 해당자와 인문상담 건수를 비교한 자료(아래 <표>)에 따르면, 거점센터별로 대상자 당 상담건수에 큰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문상담은 대상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치 자체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거점센터에서 인문상담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는 있음

**<표 5-3> 2~4단계 해당자 대비 인문상담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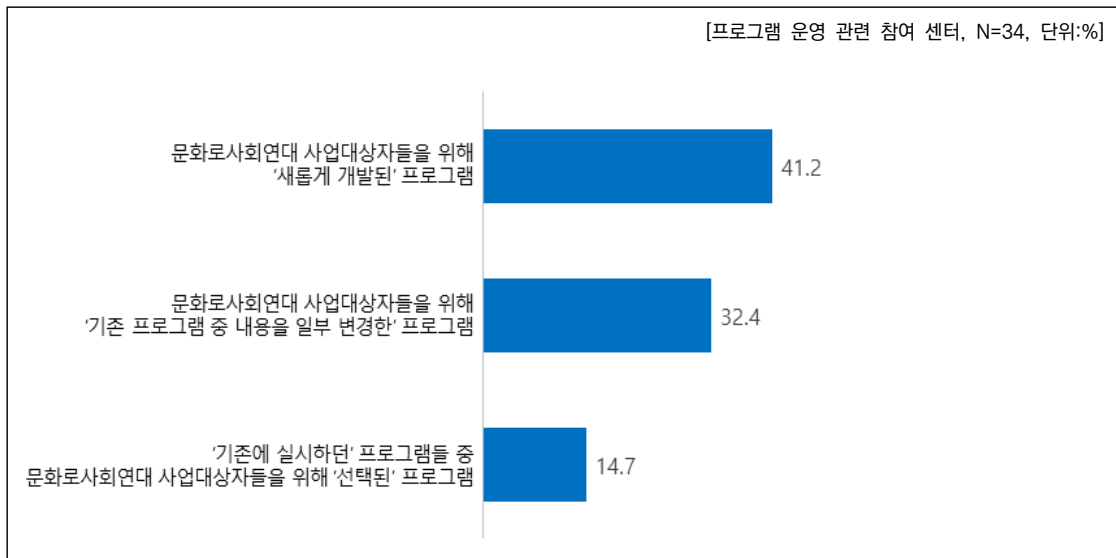
운영	서울	충남	강원A	강원B	전북	전남	경북	경남A	경남B
2~4단계 해당자 (A)	242	1092	780	68	92	285	70	140	343
인문상담 건수 (B)	422	1450	104	880	70	10	33	-	96
대상자당 상담건수 (B/A)	1.74	1.33	0.13	12.9	0.76	0.03	0.47	-	0.28

- 상담자 전문성은 상담 영역이 전문성을 가지는 영역이므로 매우 중요한 요소임. 앞서 살펴 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거점센터들은 상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거점센터들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회복지사와 같이 상담관련 전문 자격증이 아닌 자격을 가진 인력이 상담을 수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상담의 영역이 매우 다양하여 인문상담과는 연관성이 부족한 자격증을 가진 인력들도 다수 상담 인력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남
  - 인문상담 전문인력 자격증 사례: 상담심리치료,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언어청각 치료학과, 간호학과, 자살예방지도사, 원예상담사, 사회복지사, 교류분석상담사, 도형 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심리분석사, 국제아토피상담사, 진로 적성상담사, 지역아동교육지도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가족상담사, 가족심리상담사, 놀이심리상담사, 분노조절상담사, 아동청소년폭력예방상담사, 학교 폭력예방상담사, 부모교육상담사, 심리상담사 등
- 인문상담 특성화 여부는 대부분 거점센터에서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일부 거점센터에서 일반상담과 다른 인문상담으로서의 차이를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기울여진 것으로 확인되지만, 대부분의 거점센터들은 상담관련 기관과의 협력 아래 일반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됨.

## 5) 맞춤형 프로그램 기준 부재 및 운영의 불안정성

- 프로그램 운영은 ‘참여자 대상 유형과 프로그램 부합도’ 및 ‘계획 대비 실행률’을 중심으로 측정
- 참여자 대상 유형과 프로그램 부합도와 관련하여서는, 협력기관 대상 조사 결과 참여자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파악됨



[그림 5-2] 2~4단계 해당자 대비 인문상담 건수

- 그러나 현장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대상자 유형과 맞춤형 프로그램 사이의 연계는 세분화되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거점센터 사전/사후 사업 참여자 월별 실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후 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사전 조사에서 5단계에 해당되는 사람도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사전조사에서 2~4단계인 사람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유도하였으나 단계에 따른 프로그램 세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프로그램 연계 과정도 외로움 유형에 대한 분석과 매칭되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계획대비 실행률은 거점센터 월별 실적 보고에 나타난 재정집행율을 중심으로 분석함. 예산집행률은 예산 집행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기능과 동시에 특정 기간에 예산이 집중되어 사용됨으로써 사업이 전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집행되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 예산집행은 거점센터간 사업 특성 및 내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센터간 예산 집행의 커다란 편차는 사업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음
- 아래 표에서 제시된 특정 시점의 거점센터별 월별 예산집행율을 비교해 보면, 해당 시점에 다수 거점센터의 예산집행율이 20~30%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일부 거점센터는 10% 미만, 특히 0.1% 예산만이 집행된 사례도 확인됨
- 이는 거점센터별로 프로그램 운영이 기간 등에 있어서 큰 편차를 보이고 진행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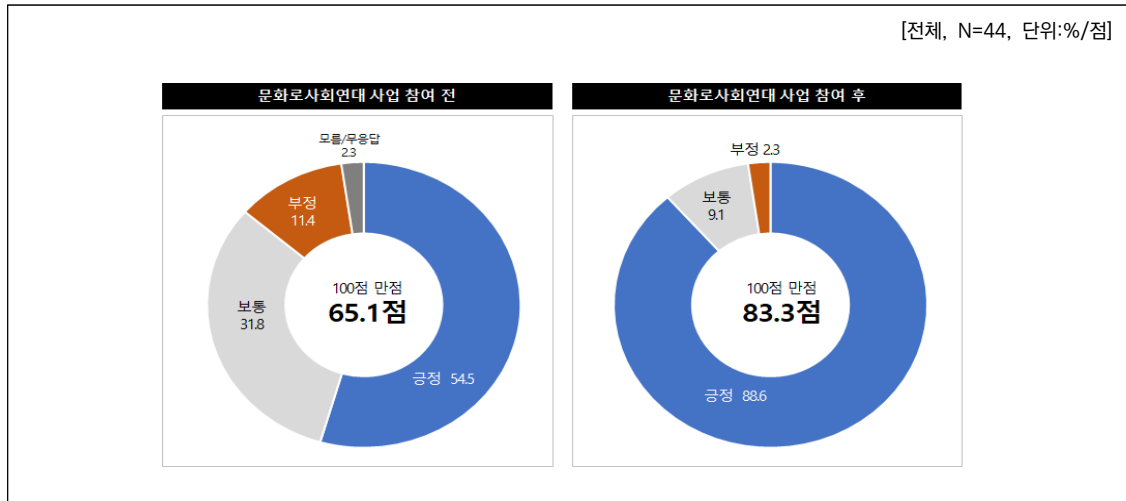
〈표 5-4〉 거점센터별 특정 월 예산 집행률

운영	서울	충남	강원A	강원B	전북	전남	경북	경남A	경남B
집행률	23.8	33.6	7.5	25.8	19.0	6.7	0.1	20.0	6.4

-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에서 진행된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노력은 많이 기울였지만, 실제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줌

## 6) 사업 참여단체의 고립감 대응 필요성 인식 제고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사회적 인식 제고는 사업 참여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감 및 외로움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중심으로 측정
- 협력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은 사업 참여 전 사회적 고립감 및 외로움에 대한 문제의식이 65.1점에 불과하였으나, 사업 참여 후 83.3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문화예술이나 보건복지 영역 등 각자의 영역에서 관련 활동을 해온 기관들이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을 통하여 협력하는 경험을 가지면서,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과 같은 문제에 대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그림 5-3] 사업 전후 협력기관 인식 변화(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대응 필요성)

## 7) 대상자 발굴 노력의 편차

- 대상자 발굴은 마중물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의해 측정. 2024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총 참여인원은 15,866명임
  - 이러한 수치는 5개 기관이 참여한 2023년 11,024명에 비해 44% 증가한 것임
- 프로그램 총 참여인원을 기관 수를 고려하여 분석하면 1기관 당 참여인원이 1,762.9명으로 2023년 2,204.8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5-5〉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수

지 역	총 참여 인원	1기관당 참여인원
2024	15,866	1762.9
2023	11,024	2204.8
증가율	143.9%	79.9%

- 1기관당 참여인원 규모가 감소된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 어려움.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해소와 관련한 사업이 한 프로그램당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회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중물 프로그램이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할 때, 맞춤형 프로그램이 아닌 마중물 프로그램에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동시에 마중물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새로운 계층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아래 <표 5-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거점센터별로 마중물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는 큰 차이가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지역 여건이나 기관 전략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가지는 의미는 존재

〈표 5-6〉 거점센터별 마중물 프로그램 대상 계층 및 참여자 수

구분	서울	충남	강원A	강원B	전북	전남	경북	경남A	경남B
마중물 참여자 수	161	1,920	1,430	120	232	83	292	397	928
대상 계층	1인가구	청년	운송업 종사자	노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이주민
	아동 청소년	노년	감정 노동자		중장년	중장년	중장년 남성	농어촌 주민	장애인
	중장년		퇴역군인			사회 은퇴자	취약계층		1인가구
	독거노인		사회복지 실무자						

- 이는 대상자 발굴을 위한 거점센터의 노력에 편차가 있거나 마중물 프로그램 운영 전략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중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운영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에서 마중물 프로그램 참여자 수의 커다란 편차는 이 프로그램 비중을 사업 내에서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선결정이 내려진 후 참여자 규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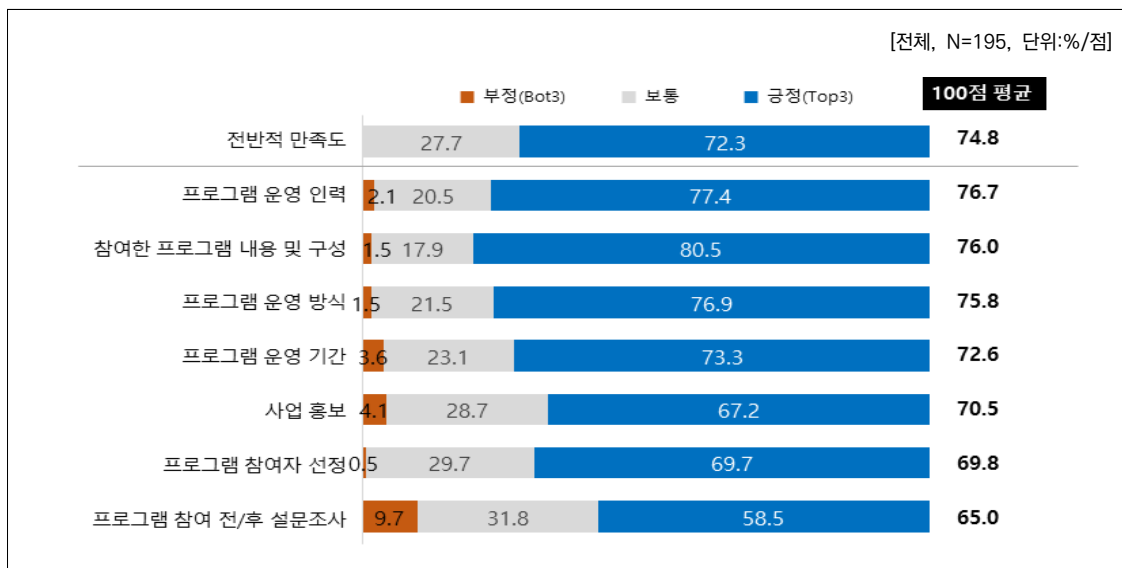
## 8) 맞춤형 프로그램 대상자와 참여자의 불일치

- 이용자 참여는 프로그램 참여 전 조사를 통하여 2~4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맞춤형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로 측정
-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대비 실 참여자를 비교하는 것은, 대상자들이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으나 거점센터들이 얼마나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는지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 거점센터들이 제출한 월별실적 보고자료에 기반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중 실제 참여한 참여자 비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실제 참여해야 하는 대상자 중 23%만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는 의미로, 간접 발굴형태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력도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맞춤형 프로그램에의 참여 유도가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을 보여줌

〈표 5-7〉 대상자 중 실제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자 비율

구분	서울	충남	강원A	강원B	전북	전남	경북	경남A	경남B	계
사전검사(건)	242	1,092	780	68	92	285	70	140	343	3,112
사후검사(건)	114	243	53	25	29	85	52	21	124	746
사후검사 실행률(%)	47	22	7	37	32	30	74	15	36	23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자들의 사업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됨(72.3%)
- 세부적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인력이나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을 보이는 반면, 프로그램 참여 전후 설문조사(사전/사후조사)나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같은 조사에서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사업 취지나 방향성보다는 운영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기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사전/사후 조사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협력기관들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에게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림 5-4] 부문별 만족도

- 전반적으로 볼 때, 이용자 만족도와 프로그램에의 대상자 참여 유도 차원에서는 개선 여지가 큰 것으로 확인됨

## 9) 참여기관의 확장된 네트워크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후 협력기관, 단체의 연결망 변화는 유의미하게 강화,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남
  - 총링크수는 참여 전 72에서 참여 중 76.7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링크 수 증가는 사업 참여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파악됨(75.7)
  - 평균링크 또한 5.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평균거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협력기관 간 관계는 사업 참여 중 가장 높은 변화율을 보임. 그러나 사업 종료 이후에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사업 참여 전에 비해서는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결망 분석에서 총 링크가 증가하고 밀도가 높아지며 평균거리가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참여기관 간 관계가 강해지고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함
- 이런 결과를 볼 때,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간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감 및 외로움 해소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는 활동을 증가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음을 보여줌

〈표 5-8〉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 / 중 / 후 협력단체 연결망 속성의 변화

구분		총 링크수	증가율 <sup>a</sup>	평균 링크	증가율	평균 링크 <sup>b</sup>	증가율	밀도 <sup>b</sup>	증가율	평균 거리	증가율
전체	참여전	72	5.1	7.9	5.9	11.8	53.8	0.868	64.7	1.296	-3.5
	참여중	76.7		8.5		16.1		1.241		1.193	
	참여후	75.7		8.3		18.1		1.430		1.251	

## 2. 성과 분석

### 1) 사업 차원 성과

#### (1) 문화안전망: 단체간 교류 협력 관계 구축

- 문화로사회연대 지원사업 성과의 4개 분야 중, 첫 번째인 ‘문화안전망 구축’은 교류/협력하는 단체의 수가 이번의 지원사업 참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증가했는가? 하는 측면인 ‘교류/협력 단체 수 증가율’ 지표와, 사업으로 인해 교류/협력하는

단체와의 협력의 강도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가? 측면의 ‘참여단체간 밀도, 거리 증가율’ 지표의 2가지로 구성됨

- 상기의 2가지 지표 중, 수평적 범위 확장 측면인 ‘교류/협력 단체 수 증가율’ 지표는, 기존의 교류/협력 단체 수 평균 13.0개에서 새로운 교류/협력 단체가 평균 4.3개가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17.3개의 단체 수 기준으로 33.1%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사업으로 인한 문화안전망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한 사업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이를 기관 소재지별로 보면 ‘도시 지역’의 증가율 지표가 더 큰(59.7%)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참여 전 교류하는 단체의 수가 ‘농촌지역’ 소재 기관에 비해 훨씬 낮은 상태에서 시작한 기저효과로 볼 수 있음

〈표 5-9〉 새롭게 교류/협력하는 단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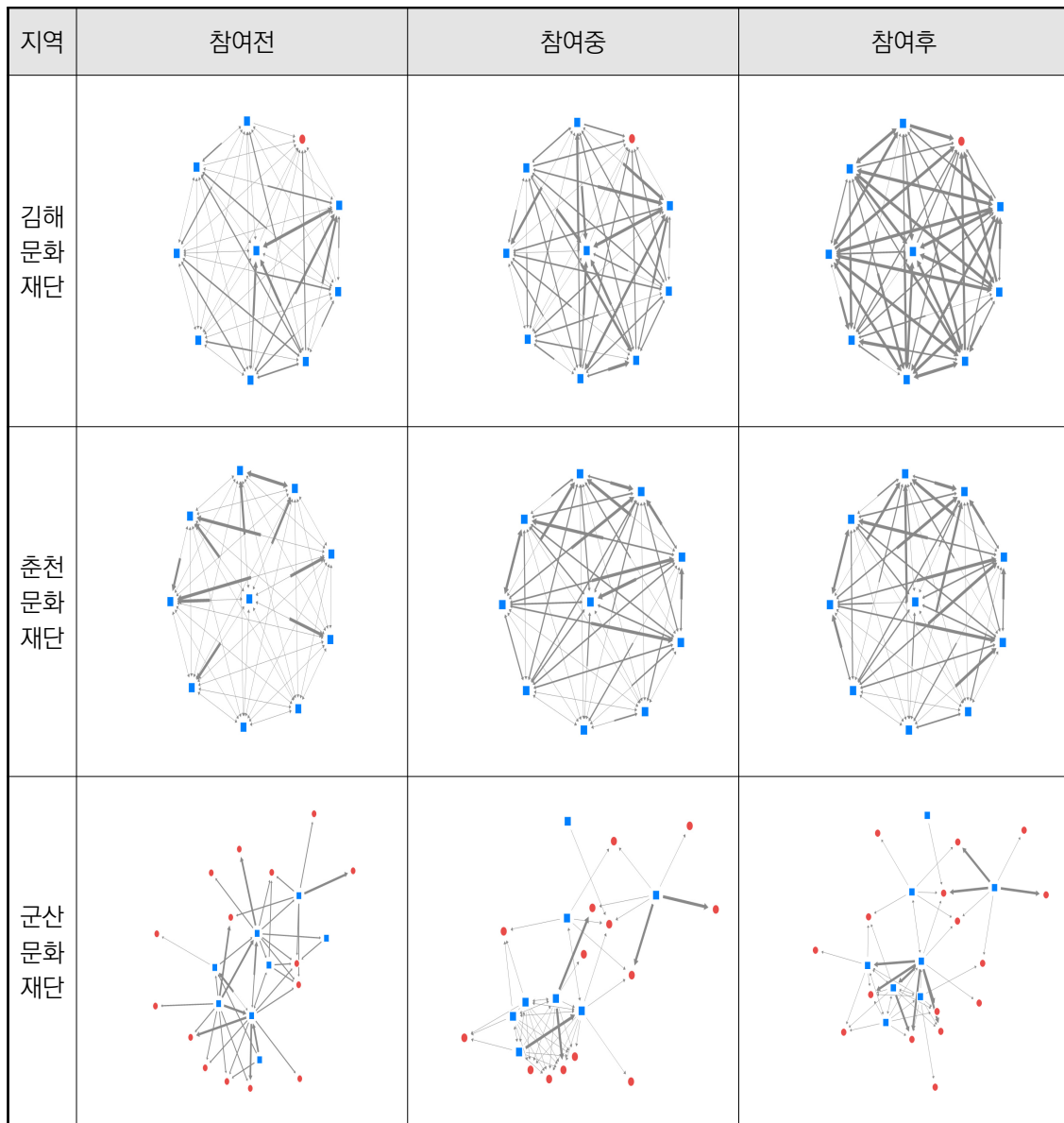
(단위 : 개)

구분	참여 전 교류 단체 수 A	참여 후 신규 교류 단체 수 B	참여 후 전체 교류 단체 수 C	증가율 D
전체	13.0	4.3	17.3	33.1%
도시 지역 소재 기관	6.0	3.6	9.6	59.7%
농촌 지역 소재 기관	19.6	4.8	24.4	24.5%

※ 증가율(D) = {(C-A)/A} × 100

-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 참여 단체간 교류/협력 강도 조사에서는 그 강도와 밀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세 거점센터의 협력단체들은 문화로 사회연대사업에 참여하면서 전체 네트워크의 크기(총링크수)가 늘어났으며, 설문에 참여한 단체가 교류하고 있는 평균 단체의 숫자도 대부분 늘어났고 단체 간의 연결이 얼마나 촘촘한지를 나타내는 밀도 역시 강도가 강해지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5-5]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단체별 사업 참여 전 / 중 / 후 연결망 구조의 변화(참여 후는 예상)



〈표 5-10〉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 / 중 / 후 협력단체 연결망 속성의 변화

구분		총 링크수	증가율 <sup>a</sup>	평균 링크	증가율	평균 링크 <sup>b</sup>	증가율	밀도 <sup>b</sup>	증가율	평균 거리	증가율
전체	참여전	72	5.1	7.9	5.9	11.8	53.8	0.868	64.7	1.296	-3.5
	참여중	76.7		8.5		16.1		1.241		1.193	
	참여후	75.7		8.3		18.1		1.430		1.251	

-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 사업이 기관/단체간 협력관계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만족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효과와 관련하여서도 같은 부분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음

〈표 5-11〉 분야별 만족도

	7점환산 평균(점)	100점 환산 평균(점)
사업 취지	5.9	82.2
사업 내용 및 구성	5.8	80.3
사업 추진 방식	5.5	75.0
사업 운영 기간	5.1	68.9
사업 행정	5.4	72.7
사업 홍보	5.2	70.1
사업 효과 (참여자 변화)	5.6	77.3
사업 효과 (기관/단체간 협력 관계 형성)	5.8	79.5

〈표 5-12〉 사업 효과

	7점환산 평균(점)	100점 환산 평균(점)
사회적 고립감/외로움 완화	5.6	77.3
새로운 대상 계층 발굴	5.5	75.6
문화 기관/단체에 사회적 고립감 대응 필요성 인식 제고	5.8	80.2
기관/단체간 협력 체계 마련	5.8	80.2
사회적 고립감/외로움 관련, 기관/단체 역량 제고	5.7	77.9

- 결론적으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지역내 단체들이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해 새롭게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 내 문화안전망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해소

- ‘사회적 고립감/외로움 완화’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후의 고립감 변화’ 지표와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후의 외로움 변화’ 지표, 그리고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후의 행복감 변화’ 지표로 구성됨
- 3가지 지표 중,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후의 고립감 변화’ 지표 결과는 문화로사회연대 참여로 인하여, 사업 전에 느꼈던 고립감이 전체적으로 17.7%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참여자 관점의 고립감 개선 성과는 명확한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그 차이가 없으나, 연령별로는 30세를 전후하여 성과의 편차가 있어 특히 높은 연령층에게 사업이 영향이 크게 나타남

〈표 5-13〉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후 고립감 변화

(단위 : 점)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의 고립감 인식 (7점 평균) A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의 고립감 인식 (7점 평균) B	개선율 C
전체	4.0	3.3	17.7%
남	4.0	3.3	17.7%
여	4.0	3.3	17.7%
10대	3.1	3.1	1.0%
20대	4.5	3.9	13.9%
30대	4.2	3.3	21.1%
40대	4.0	3.1	22.1%
50대	3.3	2.6	21.0%
60대 이상	4.6	3.6	21.6%

※ 개선율(C) = {(A-B)/A} × 100

○ 한편,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후의 외로움 변화’ 지표 역시, 사업 참여 전보다 사업 참여 후에 느끼는 외로움의 정도가 전체적으로 18.8%의 감소하여 참여자들이 사업 참여로 인한 고립감, 외로움의 정도는 모두 20% 가까이 감소하는 비교적 명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외로움 측면도 고립감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성과의 차이는 없으나, 30세를 전후한 외로움 감소의 정도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표 5-14〉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후 외로움 변화

(단위 : 점)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의 외로움 인식 (7점 평균) A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의 외로움 인식 (7점 평균) B	개선율 C
전체	3.9	3.2	18.8%
남	4.0	3.1	22.2%
여	3.9	3.2	17.6%
10대	3.0	2.9	4.3%
20대	4.3	3.6	16.5%
30대	4.2	3.1	25.4%
40대	3.5	2.8	20.3%
50대	3.3	2.6	19.7%
60대 이상	4.7	3.6	23.3%

※ 개선율(C) = {(A-B)/A} × 100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후의 삶의 즐거움 변화’ 지표는, 앞서의 ‘고립감(17.7%)’, ‘외로움(18.8%)’ 지표보다 다소 높은 수준(23.1%)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결국, 고립감, 외로움의 감소를 원인으로 본다면 이로 인한 삶의 즐거움 증가는 결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인과적 관계도 추정해 볼 수 있음.
- 성별로는 남녀 간 차이가 명확하지 않으나, 고립감, 외로움 감소 정도와 마찬가지로, 연령별 차이가 비교적 두드러지며, 특히 60대 이상의 삶의 즐거움 증가는 타 연령대의 즐거움 증가보다 그 변화의 정도가 큼

〈표 5-15〉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후 행복감 변화

(단위 : 점)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의 삶의 즐거움 인식 (7점 평균) A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의 삶의 즐거움 인식 (7점 평균) B	증가율 C
전체	3.9	4.8	23.1
남	4.0	4.8	20.8
여	3.9	4.8	23.9
10대	4.3	4.2	-2.2
20대	3.8	4.5	21.1
30대	3.7	4.6	22.8
40대	3.9	5.1	31.1
50대	4.2	5.2	22.5
60대 이상	3.5	5.2	50.0

※ 증가율(C) = {(B-A)/A} × 100

-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해소와 관련한 이러한 유의미한 변화는 사전/사후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남
-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전후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바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지수((사회적 관계지수+외로움 지수)/2)는 유의미한 차원에서 약간 감소함
  - (프로그램 참여 전) 사전조사 결과 사회적 연결 지수 평균은 100점 만점 23.8점, (프로그램에 참여 후) 사후조사 결과 사회적 연결지수 평균은 22.87점으로 약 0.93점 감소

〈표 5-16〉 사회적 연결 지수 변화

구 분	평균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사전조사	23.80	0.36	23.10	24.50
사후조사	22.87	0.31	22.26	23.49

- 그런데 이러한 감소는 사회적 관계가 아닌 외로움 감소에 기반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관계의 결여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전조사 결과 사회적 관계 결여 점수 평균은 100점 만점 16.76점, 사후조사 결과 점수 평균은 16.34점으로 0.43점 감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닌 것으로 분석됨

〈표 5-17〉 사회적 관계 지수 변화

구 분	평균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사전조사	16.76	0.43	15.92	17.61
사후조사	16.34	0.35	15.65	17.02

- 이에 비해 외로움 점수는 유의미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프로그램 참여 전) 사전조사 결과 외로움 점수 평균은 100점 만점 30.84점, (프로그램에 참여 후) 사후조사 결과 점수 평균은 29.41점으로 약 1.43점 감소. 이 차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5-18〉 외로움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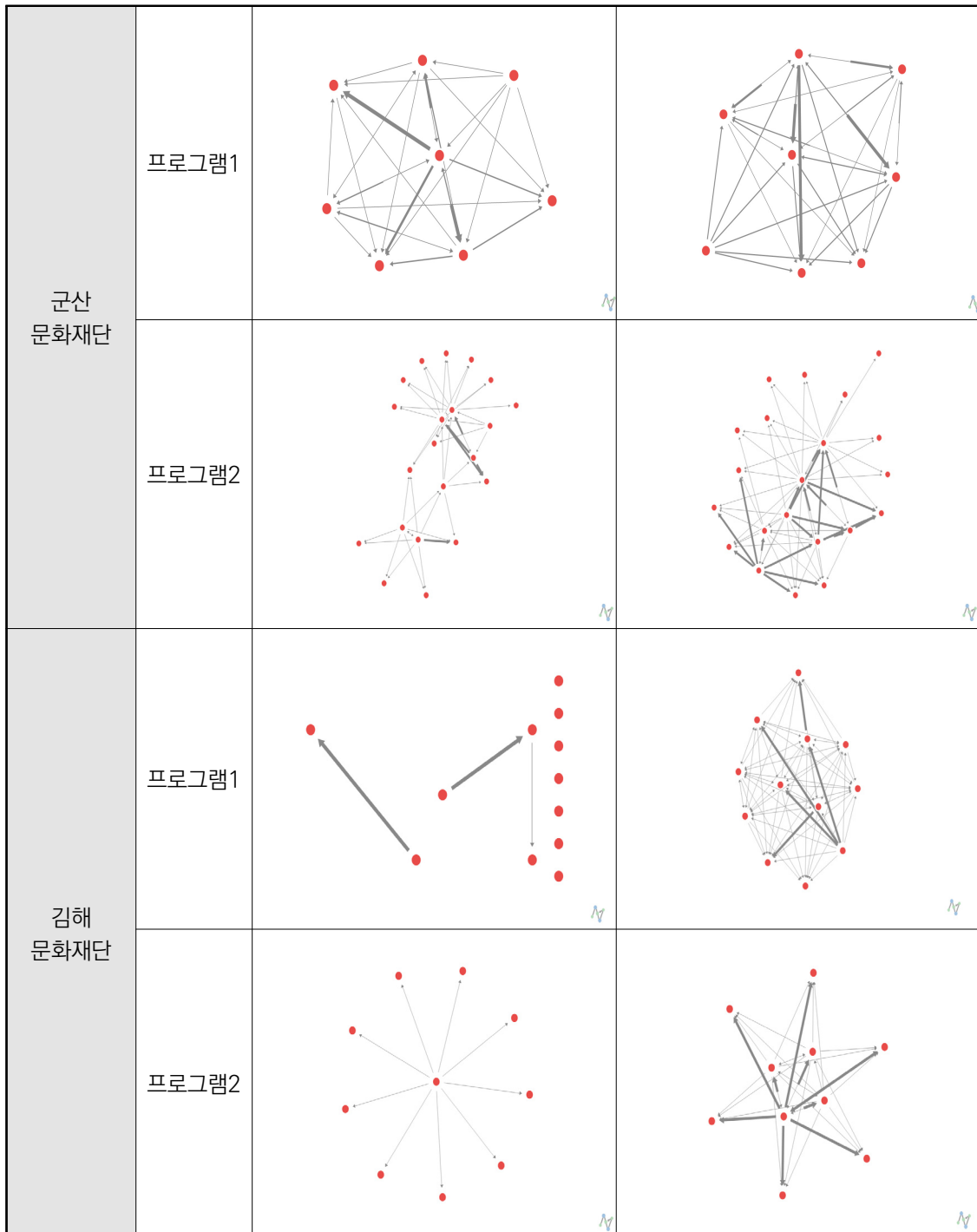
구 분	평균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사전조사	30.84	0.43	30.00	31.68
사후조사	29.41	0.39	28.64	3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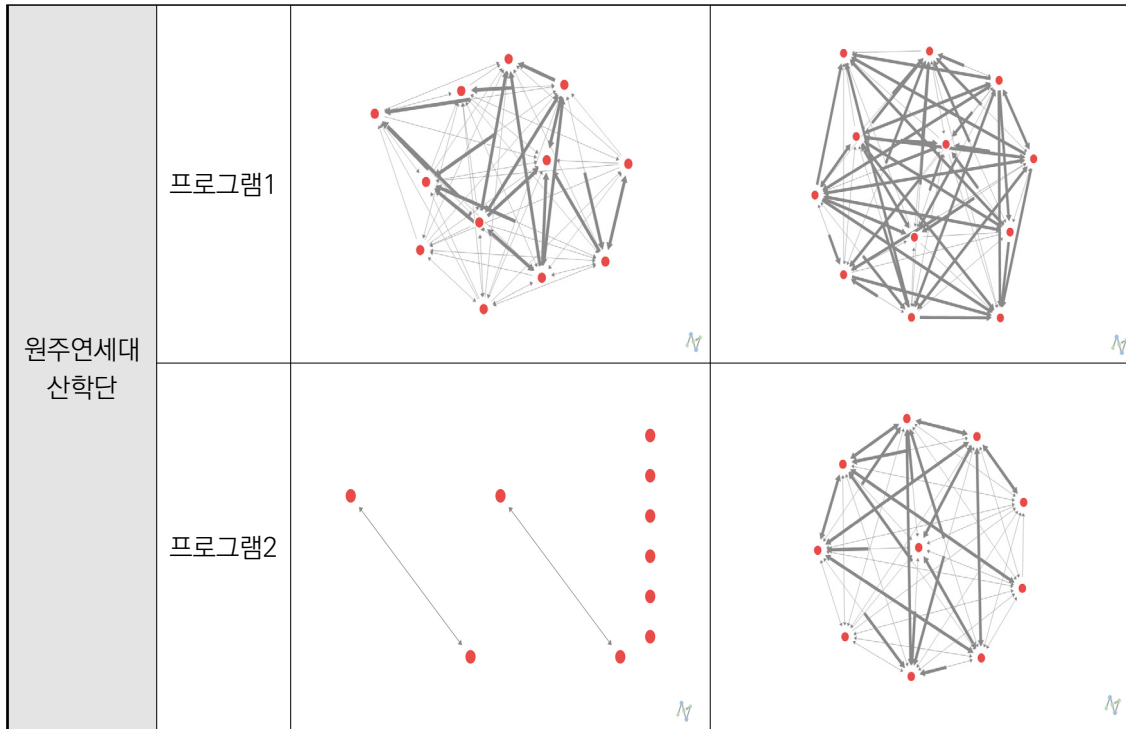
-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판단하면, 사회적 관계 개선보다는 외로움의 직접적인 감소를 통해 문화로사회연대 프로그램의 효과가 확인됨
  - 사회적 관계의 결여 지수는 타당성이 낮으며, 사전-사후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3) 사회적 관계 활성화

- 사회적 관계 활성화는 사업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조사 결과 프로그램 참여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5-6] 프로그램 참여 전후 참여자 연결망 변화





- 이러한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링크수가 2배가량 늘어났으며, 밀도 역시 약 2.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연결 정도 분포(degree distribution)의 표준편차와 평균거리는 감소함
  - 연결 정도 분포의 표준편차가 감소했다는 것은 사업 전반을 통하여 참여자들 간의 관계 맺음 정도가 균등하게 변했다는 것을 의미함
  - 평균거리가 감소했다는 것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참여 후에 참여자들 간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음

〈표 5-19〉 프로그램 참여 전후 참여자 연결망 링크수, 밀도, 평균거리 변화

구분		링크 수	증가율a	밀도b	증가율	연결정도 분포의 표준편차	증가율	평균 거리	증가율
전체	참여전	23.9	100.8	0.345	123.4	1.072	-6.9	1.334	-15.7
	참여후	48.1		0.771		0.998		1.125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 활성화 정도는 이들의 공동체적 관계나 활동에 대한 관심 변화에서도 나타남.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이들은 다른 영역보다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응답자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동호회/동아리(33%)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그다음으로 동네/지역(27.5%), 이웃(24.4%), 봉사활동(23%) 순으로

변화율이 높음

- 반면, 관심의 변화가 가장 적은 영역은 종교(3.9%)이며, 이외에도 정치(7.6%), 돈(8.3%), 국가경제(8.4%) 순으로 변화가 적음

- 이런 결과는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을 통하여 돈, 건강, 친구, 가족과 같은 사적인 영역과 국가경제와 같은 거시적 영역보다는 동호회/동아리, 동네/지역, 이웃, 봉사활동과 같은 지역기반 공동체와 관련된 관심이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표 5-20〉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후 관심의 변화

(N=124)

참여	건강	돈	가족	친구	동호회 / 동아리	여가 생활	봉사 활동	동네/ 지역	이웃	기후/ 환경	정치	종교	국가 경제	국제이슈
이전	2.75	2.29	2.83	2.57	2.03	2.40	1.91	1.93	2.01	2.10	1.85	2.05	1.90	1.78
이후	3.18	2.48	3.14	3.03	2.70	2.87	2.35	2.46	2.50	2.37	1.99	2.13	2.06	2.01

- 또 다른 측면에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활동하는 사람의 유형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옴
- 조사 결과 문화로 사회연대사업 참여 이후에 사적모임(동호회 등) 동료와의 관계가 가장 증가율이 높으며, 친구와의 관계도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이웃이나 일/활동을 함께하는 동료의 증가율이 높음
- 이러한 결과는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활동을 높게 증가시켰음을 보여줌

〈표 5-21〉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참여 전후 연결망의 변화

범주	빈도수	참여	혼자	가족	친구	이웃	사적 모임 (동호회 등) 동료	일/활동을 함께하는 동료
전체	124	이전	2.06	2.19	1.98	1.70	1.69	1.65
		이후	2.19	2.42	2.40	2.09	2.23	2.00
변화			0.13	0.23	0.42	0.39	0.54	0.35

- 종합적으로 볼 때,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실생활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음이 확인됨

(4) 사회적 인식 제고

- '사회적 인식 제고'는 협력 기관의 '고립, 외로움 관련 인식 변화 정도'와 협력기관, 프로그램 참여자의 '문화프로그램의 고립감 완화 기여 인식 정도'의 2가지 지표로 구성됨
- 2가지 지표 중, 사업을 수행하는 협력기관의 '고립, 외로움 관련 인식 변화' 지표 결과는 사업 참여로 인해 고립, 외로움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7점 만점 척도 중 중간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만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변동하여 사업을 현장에서 실제 수행하는 실행기관의 관심 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특히, 농촌 지역 소재 기관의 경우, 도시 지역 소재 기관보다 참여 전의 인식은 더 낮은 수준에서, 참여 후의 인식은 도시 지역 소재 기관보다 더 크게 나타나서 사업 참여로 인한 기관 인식의 변화폭이 큼

〈표 5-22〉 협력기관의 고립, 외로움 관련 인식 변화 정도

(단위 : 개)

	참여 전 고립, 외로움 관련 인식 (7점 평균) (A)	참여 전 고립, 외로움 관련 인식 (7점 평균) (B)	증가율 (C)
전체	4.9	6.0	22.4%
도시 지역 소재 기관	5.3	5.9	12.4%
농촌 지역 소재 기관	4.5	6.1	35.6%

※ 증가율(C) = {(B-A)/A} × 100

- 한편,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의 문화프로그램이 고립감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지에 대한 협력기관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식 지표는, 프로그램 제공자인 협력기관 담당자들과 수혜자인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식이 모두 긍정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다만, 일종의 기대 지표라 할 수 있는 협력기관 담당자들의 인식보다 결과지표라 할 수 있는 참여자들의 인식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23〉 협력기관과 참여자의 문화프로그램의 고립감 완화 인식

(단위 : 점)

	협력기관	참여자
문화프로그램의 고립감 완화 기여 인식 (7점 평균)	5.8	5.3

## 2) 정책 차원 성과

### (1) 문화정책 영역 확장

- 시범사업 기간을 제외하면, 2023년부터 시작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현 단계에서 사업 자체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보다 이 사업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와 효과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함
  - 이 사업은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문화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이전에 문화정책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업들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짐
  - 기존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사업이나 타 부처 소관 영역에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등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업들은 대상의 차이가 있을 뿐 기존의 문화 프로그램을 새로운(또는 확장된)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음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주목적이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 해소에 두어지고 이 목적에 문화영역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문화프로그램 제공 사업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름
- 정책적 차원에서 볼 때,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문화산업, 문화예술교육 영역에 이어 문화정책 영역을 또 한번 확대하는 성격을 가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문화산업이나 문화예술교육 영역이 기존에 문화정책이 다루던 영역과는 다른 산업이나 교육 영역과 연계되면서 문화정책 영역을 새롭게 확장시켰다면,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문화영역과 복지 영역을 연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동안 문화정책 영역에서 취약계층 문화향유 지원사업을 제공해 왔고, 복지정책 영역에서도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을 통하여 문화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왔지만, 두 정책 영역 간에 긴밀한 연계 없이 서로 독자적인 정책 영역만을 구축해 왔음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과 같은 정책 실시 배경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현대 사회는 각 정책 영역들이 독자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회 이슈들을 생산해 내고 있음
  - 1인 가구, 독거 노인, 고립 가구, 은둔 청소년 등의 문제는 기존의 복지정책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임
- 이런 맥락에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문화정책과 복지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장평가, 자문회의, FGI 등에서 문화단체,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또한 이 사업을 통하여 갖게 된 연계, 협력의 경험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됨

## (2) 문화·예술단체 지평 확대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문화·예술단체들로 하여금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활동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계기를 제공함
-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영역 안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는 않아 왔음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그 중심에 문화활동보다는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를 둠으로써 그러한 사회문제를 문화활동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단체의 인식 및 활동 지평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이러한 문화·예술단체의 인식 지평 확대는 단체의 활동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 가지는 본원적, 사회적 가치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사회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3) 지역 중심의 협력 계기 마련

- 문화정책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문화서비스의 지역 통합체계 구축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
  - 그동안 공연, 전시, 도서, 생활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이 지역 내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기보다는 분절적이고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제공되는 모습을 보여 옴
  - 지역 내에서의 이와 같은 문화서비스 제공 기관 간 협력 미흡은 각 기관들의 재원이 서로 다른 통로를 통하여 제공되는 데서 비롯. 이로 인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문화서비스 제공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기획, 실행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서비스 수혜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남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 해소라는 주제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 지역에 산재하는 복지기관들 또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을 통하여 복지기관 간 및 복지-문화기관 간 서로 연계, 협력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중요한 의미로 평가
- 이런 면에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비단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 해소에 국한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 중심의 문화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다 큰 정책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4) 예술 중심에서 문화 중심으로 전환

- 그동안 문화정책은 좁은 의미에서의 예술중심 정책 범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을 보여옴. 이런 측면에서 문화정책은 문화향유정책, 곧 예술작품이나 예술활동의 대중적 참여 또는 향유를 중심으로 이해되어 옴

- 문화다양성 사업과 같은 정책이 있기는 하였지만, 문화정책 영역 안에서 적합한 포지셔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줌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예술활동을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자원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기는 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자원과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예술활동에 국한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남
- 현대 사회의 제반 문제적 상황들에의 대응과 관련하여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해 왔으나 이 때 언급된 문화의 역할이 예술의 역할에 국한된 것은 아님.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문화의 역할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사업으로 문화정책의 영역을 예술중심 정책 너머로 확대시키는 성격을 보여줌

#### (5) 문화적 복지 사각 지대 발굴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 문제 해소에 문화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지역 내에 문화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문화안전망은 지역 사회의 안전성 확보를 문화적 차원에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치안, 경찰 위주의 지역사회 안전망과는 다른 의미를 가짐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중 기존에 문화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 주변의 은둔, 고립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한 사업은 기존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람들을 사회에 재통합시키는 역할을 담당함

**〈표 5-24〉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관련 발굴된 계층**

구분	발굴 계층				
연령	청년(5)	중장년(3)	노년(2)		
경제활동	운송종사자	감정노동자	퇴역군인	사회복지실무자	사회은퇴자
특성	이주민	장애인			
거주환경	취약계층	농어촌주민	1인가구		

\* ( )안은 거점센터 수

- 이처럼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활성화하여 고립감과 외로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함. 나아가 이를 위해 구축하는 다양한 기관, 단체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는 지역 내 및 지역을 넘어 우리 사회에 문화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실제로 복지기관 관계자들은 사회복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고립 또는 은둔자에 대한 접근이 문화활동을 매개로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

## 1. 정책 방향

### 1) Two track 접근: 치유적 접근 & 관계적 접근

-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 방향은 한편으로 그러한 고립감과 외로움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치유적 차원에서 해소시키는 방법과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외로움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두 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직접적 방법은 그동안 전문성과 문제 해결 방법론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예술치유 차원의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간접적 방법은 일반 문화정책 차원에서 관계 지향적인 사업 영역을 강화함으로써 추진될 수 있음
- 그동안 이루어진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이나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등은 관계 지향적 사업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생활문화’ 차원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의 수준과 층위가 다른 만큼, 예술치유적 접근과 관계 지향적 접근을 균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고립감, 외로움 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복지영역과의 협력 제도화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문화영역과 복지영역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줌
- 복지기관에서 실시하는 적지 않은 프로그램이 문화프로그램이라는 점과, 그동안 문화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전문성을 축적해 온 광범위한 인력군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 영역과 문화영역의 연계, 협력은 두 영역 모두에 상호 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문화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영역도 문화예술과 교육 정책 영역을 연계하는 법,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었음
  - 적극적 복지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과 같이 사회복지적 차원의 복지사가 각지대는 아니지만 문화적 차원에서 볼 때 복지사가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복지정책과 문화정책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복지사가각지대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 고령화, 1인 가구, 은둔/고립가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은 문화 영역과 복지 영역이 긴밀하게 상호 연계, 협력하여야 할 환경을 조성함
- 현 거점센터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이 보다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영역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음

### 3) 문화분야로서의 특성 차별화

-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응 노력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들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 따라서 문화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영역만의 독특성, 차별성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영역은 문화활동을 통한 자연스러운 사회적 관계 형성, 형성된 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자신 및 상대에 대한 이해 및 신뢰감 증진 등 여러 측면에서 타 영역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현재 다양한 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대응 활동들은 발굴과 관리 단계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발굴된 대상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 통합되고 이러한 통합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콘텐츠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문화정책 영역은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이 사회적 관계 속으로 통합되고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에서 기존 타 정책 영역과의 연계점과 차별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영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 영역(문화, 체육, 관광, 문화산업 등)들을 콘텐츠 자원으로 삼아 이를 사회적 고립감 및 외로움 대응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복지 영역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문화정책 영역으로서의 강점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이외에도 문화기관과 복지시설의 협력 구조 마련,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중심 문화네트워크 구축 등 방안 등이 모색될 수 있음
- 다른 한편으로, 문화분야는 기존의 사회복지 지원 체계 속에서 복지 수혜 대상으로 안정화,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계층들을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활동 주체로 변화시키고, 기존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대상 계층을 새로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영역과의 차별성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문화활동을 통한 자신의 발견,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 찾기 등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단계로까지 확장되는 로드맵을 구상할 수 있음

## 2. 사업 개선 방향

### 1) 지역 내 문화 중심 협력 기반 구축에 초점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문화정책 내 다른 사업들과 유사한 ‘또 하나의’ 사업으로 유형화하기보다 기존 사업들을 지역 중심으로 상호 연계하는 특성을 가진 사업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당연히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지만 사업 초점은 타 공모사업과 같이 프로그램 운영에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자원들을 상호 연계하여 사회적 고립감 및 외로움 해소와 관련한 지역내 문화중심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이 필요함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이 마련한 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지역자원 조사 과정은 이와 같은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차별화의 다른 한 초점은 관계형성 중심형 사업이라는 점에 두어지는 것이 중요함. 이것은 문화정책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치유 사업과의 차별화라는 점에서도 중요함
  - 예술치유 사업 또한 관계형성형으로 접근되는 사례도 있지만 사업 특성상 사업 전반이 관계형성형 사업으로 특성화되어 있지는 않음
  - 관계형 사업은 형성된 관계의 지속성에 초점을 둬으로써 타 사업들에서 부수적으로 형성되는 관계보다는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관계 자체의 지속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특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관계는 공동체처럼 보다 규모가 있는 차원에서 형성될 수도 있지만, 1:1 차원에서도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 관계는 또한 오프라인상에서 맺어질 수도 있지만 온라인상에 맺어질 수도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혼합하여 형성될 수도 있음
- 따라서 관계의 규모나 영역보다는 문화활동을 매개로 관계 자체가 형성된다는 점에 초점이 두어지는 사업으로 특성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2) 사전/사후 조사, 대상자 선별 과정 재검토

- 참여자들의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사전/사후 조사나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협력기관 차원에서도 대상자 발굴이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됨
- 기존 사회복지 체계 안에서는 위기 계층 발굴과 관련한 오래된 경험과 전문성,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문화영역에서 새롭게 대상자 발굴과 관련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에 사회복지 체계 안에서 발굴, 관리되고 있거나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은 ‘보조적’ 수준에서 기울여질 필요가 있음. 이런 방식으로 대상자 선정 과정을 크게 축소하는 것이 필요함
- 프로그램 진입장벽으로 존재하는 사전 조사 기반 대상자 선별 과정도 폐지하고 프로그램 참여 후 표본 조사에 기반해서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
- 다만, 기존 사회복지 체계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계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발굴하여 고립감을 극복하게 하는 사업들이 시행될 필요는 있음
- 다른 한편으로 대상자 선별 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외로움이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병리학적으로 외로움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경남A지역거점센터에서 실시한 ‘1+1 프로그램’(기존 문화활동 참여자가 주변의 고립, 외로움 지인들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별도의 발굴이나 대상자 선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을 발굴하는 효과를 보임

## 3) 상담 과정 분리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과정에서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인문상담의 경우, ‘인문상담’이라는 영역에 대한 규정이나 필요한 전문성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채 실시되고 있음
- 상담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며,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에서 전문성을 가진 상담까지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상담이 필요한 대상의 경우는 지역 내 상담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에 따라

연계하되, 이 과정이 사업의 기본 체계 안에 규정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은 해당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서 담당하도록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의 내용과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함

#### 4) 전문역량 구체화 및 인력 양성

- 문화영역과 복지영역의 협력은 문화영역 종사자로 하여금 새로운 전문역량의 축적을 요구함
  -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는지, 문화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와 같은 사항 등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활동을 전개해 온 문화·예술단체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임
- 관계 형성과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로사회연대와 같은 사업에서는 이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요구됨
  - 그동안 문화정책 영역에서는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대부분 문화영역과 관련된 전문성 영역이었던 데 비해 복지영역과의 연계는 새로운 영역의 전문성을 필요로 함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에서 맞춤형 처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프로그램화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재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 해소와 관련하여 문화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전문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역량들은 어떻게 축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기반하여 이와 관련한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5)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

- 사회적 관계 형성과 활성화를 통하여 고립감,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공된 맞춤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던 기관들은 대상자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였거나 기존 프로그램 가운데 대상자들에게 적합하게 프로그램에 일부 변화를 주었다고 응답하였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 없음
- 문화프로그램이 가지는 본래적인 치유적 특성이 고립감과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해소(완화)에 목표를 두며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치유 사업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자격증) 예술치료사들에 의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또한 이 과정에 사용되는 진단 툴이나 프로그램들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사용을 거쳐 효과와 전문성이 검증된 것들임

- 프로그램은 의료, 복지, 문화예술 분야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에 기반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동안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필요함

## 6) 증거 기반(Evidence-based) 사업 추진

- 문화로사회연대와 같이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이라고 하는 특정 사회적 문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은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극복하고자 하는 현상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명한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일반적 문화향유 사업은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그 효과 검증에 대한 요청이 다소 약할 수 있으나, 문화로사회연대 사업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이 사회적 연결망 구축에 강조점이 있는 만큼, 이러한 연결망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프로그램 참여자간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연구 자료가 축적될 필요가 있음

- 사업수행 단체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전/사후 조사 등은 이러한 프로그램 엄밀성과 관련하여 실시된 일들임

- 이처럼 향후 엄밀성에 기반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사업이 동시에 기획, 추진됨으로써 사업 기반이 될 수 있는 분석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런 점에서 향후 실시되는 사업은 사업 기획, 진행, 종료 이후 과정에서 사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축적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연구와 결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를 위해 사회복지 기관, 건강 관련 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1),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 \_\_\_\_\_ (2023),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3~'27)」, 관계부처 합동.
- 김기웅 외(2018), 「치매안심센터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 김용동(2011), 「민간위탁시설 운영평가지표 개발」, 대전발전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23),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 문화체육관광부.
- 블루터치 홈페이지(2024.12.01), 생명이음청진기사업, <https://blutouch.net/service/stethoscope>
- 보건복지부(2014), 「정신건강증진센터 평가체계 개선 및 지표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 \_\_\_\_\_ (2017), 「지역아동센터 평가 편람」, 보건복지부.
- \_\_\_\_\_ (2023), 「2023 정신건강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_\_\_\_\_ (2024), 「2024 전국 정신건강관련기관 현황집」,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사회보장정보원(2018),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보건복지부.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2024.12.01),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https://www.welfare.seoul.kr/web/contents/business1-4-7.do>
- 서해정 외(2013),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평가지표 및 운영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양정부 외(201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여성가족부(2024),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여성가족부.
- 이상은 외(2023), 「2023년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종합운영성과 평가」, 지역문화진흥원.
- 정영식 외(2023), 「2023년 디지털새싹 캠프 성과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6),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평가 매뉴얼」, 보건복지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3), 「20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행정안전부(2024),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으로 고립가구 위험요인 사전 예방」, 행정안전부.



---

RCDA 조사연구 2024-6

## 2024 문화로사회연대 지역거점센터 운영성과분석 연구

---

연구수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주관기관      (재)지역문화진흥원

---

발행인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재)지역문화진흥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0

전화 (02)2623-3100 | 홈페이지 [www.rcda.or.kr](http://www.rcda.or.kr)

ISBN 979-11-92112-74-9(03300)

